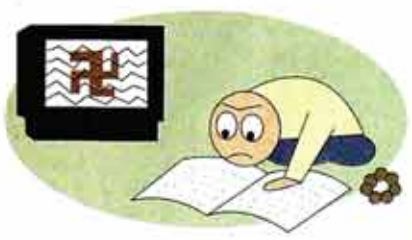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2-152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9월 2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39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언론 모니터 무관심

매일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와 사건의 홍수속에 건전한 사회의 시대 정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언론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이렇게 현대를 살아 가는데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이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비경 역할을 하는 모니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교계에서 언론 모니터 운동을 활발하게 꾸준히 하고 있는 단체는 90년에 창립된 보리방송모니터회 뿐이다. 불교방송 개국이후 출범한 보리방송모니터회는 불교방송은 물론 범위를 넓혀 현재는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의 쇼 · 코미디 · 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며 불교를 왜곡한 사례와 부적절한 방송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다. 또 연대 단체들과의 의견 교류 및 세미나와 모니터 요원 교육 등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재정 상태 등으로 인해 모니터 단체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불교비하 내용 빈발
모니터 모임 한곳뿐

이제는 방송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모니터 기능도 단순히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서 벗어나 좋은 방송을 위한 대안 제시 등 분석과 연구 기능도 첨가돼야 된다. 또 SBS-TV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프로에서 지적됐던 '비맞은 중이 염불하듯이 중얼 거린다'는 식의 단순히 스님을 비하한 내용을 가지고 질책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홍무원이 발간한 〈국어사전의 불교용어 오류 검토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신문 및 방송에 나타난 잘못된 용어와 사례들을 지적해 주고 바로 잡아 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언론 모니터에 대한 발전 방향을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한 공청회 개최도 필요하다.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반면 이들 곁에서 충고해 주고 조언해 주며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 주는 모니터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해야 할 때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불자 여러분의 정성과 애정어린 후원으로
불교방송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은행지로 : 6003478 국민은행 827-25-0020-943
농 협 : 069-01-238221 외환은행 : 189-13-03929-3
예금주 : 불교방송 문의전화 : (02)705-5560~1

진각종 통리원장 방북

종단 수반으론 처음…"남북 불교교류 새 장"



◇성초 통리원장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이 종단 수반으로는 최초로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 성초 통리원장, 휴명 종회의장, 회정 총무부장, 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국장 등 진각종 대표단 4인은 18일부터 25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17일 중국 북경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번 진각종 통리원장의 공식 방북은 교계 원장급 인사가 방북하는 것으로는 최초의 일로서 남북불교 교류의 새 장을 여는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초 통리원장 등은 이번 방북기간 동안 보현사 월정사 등 사찰을 참배하고 조선불교연맹 박태화 위원장 등 북한불교 지도자들과 함께 남북평화통일기원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또한 복지시설건립 지원문제, 재가국제불교성직자연합 창설문제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40호 상보)

한편 진각종은 이번 방북에 앞서 신도들이 기증한 성금으로 조선불교도연맹이 운영하는 황해도 사리원 국수공장에 25인승 중고버스 1대(1만2천불 상당)를 기증했으며 이번 방북에서 기증식도 가질 예정이다. 진각종은 지난해 8월에는 컴퓨터를 조선불교도연맹에 기증했으며 12월에는 광불협과 함께 사리원 국수공장에 자전거 100대를 전달한 바 있다.

지난 98년 7월 대북한 포교와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국제불교연구소(소장 회정정사)를 개소한 바 있는 진각종은 매년 2억씩의 통일기금을 적립하는 등 남북한 불교교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포도 영글듯 불심도…

까만 포도송이에 가을이 영글었다. 충북단양 천태종 구인사 포도농장에서 스님들이 포도송이를 따며 결실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부처님 전에 공양물로 올려질 포도는 온중생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는 부처님의 자비한 미소가 되어 사바세계에 회향될 것이다.

구인사=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조계종-선학원 합의문 '부결'

조계종 종회 "종헌위배 내용 포함돼 있다"

선학원 22일 이사회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합의한 공동합의문 인준이 부결됐다.

조계종 종회는 15일 열린 142회 임시종회 3일째 회의에서 조계종-선학원 합의문 인준의 건을 심의했으나, 합의문(안) 가운데 종헌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며 재협상 후 다음 종회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현응스님은 "합의문(안) 5조 '조계종 소속 승려가 선학원에 사찰등록을 할 경우 총무원과 협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종헌 9조3항에 규정된 사설사암 등록 의무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합의문 인준이 부결되자 영담스님은 법안대책특위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종회는 혜창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선학원 현안대책실무위원장 성문스님은 사견임을 전제, "재협상은 고려치 않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선학원 자체적인 승적관리 및 도제양성 체제 마련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선학원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조계종 종회의 합의문(안) 인준 부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사찰 오수정화시설 설치
조계종, 정부지원 촉구

조계종종무원 사회부(부장 양산)는 정부의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사찰의 오수정화시설 설치 지원과 이 법의 신축적인 운용을 촉구키로 했다.

사회부는 사찰의 경우 공공성을 지녔으므로 오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용의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며, 또 오염기여도가 낮은 사찰까지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사회부는 이같은 입장을 골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과 생태계 보전지역, 공원구역 등 환경보호구역 안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보호구역 내 800㎡이상의 기존 건축물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사찰의 경우 설치한 곳이 24%에 머물러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노인의 해 기념 특별대행사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이자, 10월2일은 정부가 정한 '제2회 노인의 날'입니다.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현대불교신문사와 공동으로 노인공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계 노인의 해 맞이 기념 특별대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정: 1999. 9. 28(화) ~ 10. 2(토) (5일간)
◇장소: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내용
-순회 노인 무료진료 (9. 28~30 오전 9시~오후 5시)
-학술세미나 (9. 29 오전 9시30분)
· 주제: 새천년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의 역할
· 발표: 김동배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정길홍 관장(구로노인종합복지관)
임미자 교수(이화여대 체육학과)
혜도스님(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래자랑 (9. 30 오전 10시)
-체육대회 (10. 1 오전 10시)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대축제 (10. 2 오전 10시)
◇문의: 은평노인종합복지관(02-385-1351)

주최 : 은평노인종합복지관 · 현대불교신문사

수행환경 보존-문화재 관련법 강화등
조계종종회 '대정부 결의문' 채택

조계종 중앙종회는 15일 정부와 국회에 민족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종회는 결의문에서 "개발위주 정책으로 사찰수행환경이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찰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련 △불교문화재 관련법 강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촉구하고 10월 12일 열리는 사찰환경 보존 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은 2일 본사주지회의, 7일 관람료사찰주지회의에서도 채택됐다.

종회는 또 사미 · 사미니 의제의 전면 시행과 김대복소장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정성운 기자

추석연휴로 다음주 신문 쉽니다

내년 정부예산중 문화예산 1% 넘어

내년도 정부예산중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를 넘어설 전망이다.

17일 기획예산처는 "2000년 정부예산중 문화예산은 올해 6천6백47억원보다 40% 늘어난 9천3백15억원이 반영돼 일반 회계기준 정부예산의 1.0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책정된 예산은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음반 등 5대 문화산업의 창업과 수출증대를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조성을 위해 4백3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윤장대(보물 제684호)에 願(원)을 실어 돌려라 ~ 이루어지리라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윤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청 안 합장

· 입재 : 1999(불기2543)년 10월 17일(음 9월 9일)토요일 오전 10시 · 회향 : 1999(불기2543)년 10월 26일(음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 등(1인1등) 10,000원 · 영가 위패(1위당) 10,000원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 용 문 사
우 체 국 : 702191-0016235
· 대장경을 이고 법성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윤전하실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당일은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용 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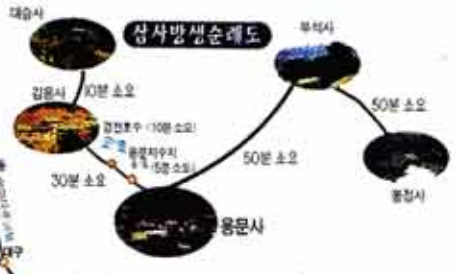
문 의 : (0584)655-8695(종무소), 655-1010, 8405

용문사는 움직이는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9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보물 684호)

용문사 가는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40분간격)
3시간 1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 (서울 ⇒ 예천)대한항공 오전 8시 45분 오후 5시
아시아나 오후 4시
(예천 ⇒ 서울)대한항공 오전 10시 10분 오후 6시 30분
아시아나 오후 5시 20분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사 설

스님들의 괴문서

요즘 출처가 불분명한 괴문서가 종단 안팎에 많이 나돌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돈과 권력이 집중된 자리에 연관되어 괴문서는 등장하곤 했다. 총무원장 선거를 놓고 벌어졌던 지난해 종단사태 때부터 괴문서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종단 안팎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보내지고 있어 날로 그 폐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괴문서에 이름이 한번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그 당사자가 받는 타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괴문서를 발송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생활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인데 그것도 부족하여 남의 이름을 도용하여 유포시키는 행위는 인간적으로 치졸하다 못해 비열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인천의 사표입을 자부하고 있는 스님들이 벌이는 그러한 행위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승가 전체나 불교계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마구잡이로 까발려 특정인을 망신주려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만약 결정적 하자가 있어 종단의 위상에 손상을 입힐 여지가 있는 사람이 종단의 주요직을 맡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자기는 숨어 있는 채 남의 단체 이름을 도용하여 상대방의 인격에 흠집을 내려고 마구잡이로 까발리는 것은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수타니파타〉에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라 친구를 배신하고 험담하는 것이 비린 것이라 했다. 보아하니 지금 괴문서를 마구 뿌려대고 있는 사람이 승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야말로 비린 자 가운데 비린 자라 하겠다. 백보를 양보하여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하더라도 최소한 체면 지킬 것은 지키면서 싸우라는 것이다. 스님으로서 최소한의 체면마저 내던진 채 니전투구식으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결국 스님들 전체를 패자로 만들뿐 당사자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누구 말마따나 세속에서 누려보지 못한 명예와 부를 누려 보려고 안달이 나서 그러는지, 정말로 종단과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괴문서를 유포시키는 자들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 명예와 부를 위한 것이라면 판을 잘못 선택하였으니 환속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한 충정이라면 그 방법이 크게 잘못되었으니 그 또한 당연히 참회해야 할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불교를 망가뜨리려는 외도의 짓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니 그런 사마외도는 불교인의 이름으로 색출해 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마다 낡은 틀을 벗어버리기에 바쁜데 유독 우리 불교계만은 구습에 발이 묶여 내일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승가와 불교계 전체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폭로성 위주의 괴문서를 유포시키는 행위는 자제하고 출가본연의 정신을 회복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쏟아야 더 이상 불조에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추잡한 내용의 괴문서를 만들고 유포시킨 당사자뿐 아니라 불교계 전체가 이러한 일이 만연되고 있음을 자자·포살로써 진정으로 참회해야 한다. 그래야만 앞세포는 더이상 자라지 않을 것이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강강수월래

"교구본사별 복지법인 만들자"

조계종 복지재단, 11월 종회에 상정할듯

불교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구본사별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 전국적인 사업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본사별 복지법인설립안은 조계종 복재재단이 내년 설립 5주년을 앞두고 '이대로는 안된다'는 운영상의 위기감에 따른 새로운 방향모색 차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같은 여론은 그동안 일선 복지관계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돼 온데다, 지난 16일 조계종 복지재단 주최 '불교복지포럼'에서도 핵심 과제로 거론됐다. 게다가 복지재단은 이번 논의 결과를 오는 11월 정기종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복지관계자 및 종단 실무자들은 권경임씨(복지재단 자문위원)가 '종단의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강화방안' 논문에서 제기한 교구본사별 복지법인설립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권씨가 제기한 방안은 현 복지법인을 불교사회복지원 형태로 전환하고 각 교구본사별로 복지법인을 설립해 단위사찰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는 체계. 이같은 체계의 필요성은 현재의 복지법인체제로는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 경우 교구본사의 지휘에 따라 각 말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종적구조와 시·군 단위의 지역별로 복지연합체를 구성하거나 복지관 및 아동시설 등 시설종별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횡적구조를 가미한 체계를 구성할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구본사별 복지법인 설립과 맞물려 현 복지재단의 불교사회복지원으로의 전환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별도의 법인임에도 총무원 사회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종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복지법인의 현 체계는 권한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따라서 비효율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복지재단 최종환 부장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물리는 불교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구본사별 법인설립과 불교사회복지원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16일 제2대 회장 취임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했다.

중신회 백창기 회장 취임

청사건립기금 2억 보시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제2대 회장 취임식이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거행됐다.

3년여의 파행을 불식하고 중앙신도회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이날 법회에는 총재인 총무원장 고산, 고문인 교육원장 일면, 포교원장 정련스님,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대의원·회원 5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백창기 회장은 총무원 청사건립기금으로 2억원을 보시해 중앙신도회가 조계사 성역화 사업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했다. 고문인 윤철상 삼영학원 이사장은 경기 강화군 내가면에 소재한 개인 사유지 1만평을 중앙신도회 연수원 건립 조건으로 기증해 회원들이 중앙신도회의 재정자립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재경 기자

btn 정상화 총무원 나선다

조계종 btn특위 해산…허사장 "사퇴의사"

조계종 btn특위는 12일 11차 회의를 열어 특위해체를 결의하고 이후 btn(사장 허문도) 정상화를 위해 총무원이 적극 나서 책임질 것을 제안키로 했다.

총무원은 최근 유력한 투자자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는 "투자자를 거의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무원장의 재가를 받아 새 경영진을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허 사장은 12일 조계종 문화부장 일철스님을 만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계종에서 적극 나서고 새 투자자를 추천한다면 사장직에서 물러날 뜻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주일 기자

본원종 3대종정에 태허스님 재추대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13일 종로 연화정사에서 종정추대위원회를 열고 제3대 종정에 현 종정인 태허스님(경북 예천 연방사 주석)을 재추대했다. 태허스님은 1915년 문경生으로 28년 김용사에서 경원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본원종 초대 및 2대 종정을 지냈다.

조계종 포교사고시 11월 28일 실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11월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국대 등에서 제5회 포교사고시를 실시한다. 종단등록 불교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조계종 재적사찰에 신도등록을 필한 자, 신도5계 및 보살계 수지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시험의 원서접수는 10월23일까지다. 구비서류는 응시원서, 조계종신도증 사본, 수계증 사본, 불교대학 졸업(예정) 증명서등. (02)720-7060 김재경 기자

태고종 선암사에 비구니 교육도량

태고종은 전국비구니회의 숙원사업이었던 비구니교육도량을 선암사 운수암에 마련한다. 이에 따라 운수암은 스님들이 기거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량정비불사에 들어갔다. 비구니회는 선암사 강원에 입학할 학인모집에 들어가 내년 학기부터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경숙 기자

동국학원 이사후보 성관스님 등 4명 사퇴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오현)는 14일과 16일 동국학원 이사후보 사퇴(성관, 범종, 정휴, 장윤스님)에 다른 재선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성원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동국학원 이사후보로 선정됐던 정휴스님과 장윤스님이 13일 이사후보를 사퇴했다. 이에 앞서 성관, 범종스님이 이사후보를 사퇴해 12명의 이사후보 중 4명이 사퇴했다.

종립학교관리법에 따르면,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이사 등 임원후보를 선정해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동국대에 복수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괴문서 유포 중단 촉구

조계종 종회의장단 "불신만 조장할뿐"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법등스님과 부의장 청화, 명진스님은 13일 교계기자 간담회를 갖고 괴문서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법등스님은 "정화개혁회의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단의 중진스님들을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괴문서 유포의 중지를 촉구했다.

호법부장 종고스님은 임시종회 종책질의 답변을 통해 "괴문서 발신지가 통도사 팩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파악했다"며 "유포자에 대해서는 증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괴문서는 지난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종단을 걱정하는 (육화회, 청림회, 실천회)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위상 정립을 위한 원우회 일동' 명의로 교계 언론사 등에 우편과 팩시밀리를 통해 뿌려졌다. 괴문서에는 종회의원 등 10여명을 비수행인으로 규정하고 공직사퇴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발신처로 명기된 각 단체들은 "종단의 혼란을 노리는 세력들이 이름을 도용해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며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구산선문 참선 기행

10월 : 봉림산문(봉림사지)·성주사·장유암

10월에는 현욱선사(787~868)에 의해 개창된 봉림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현재는 터만 남아 있는 봉림사지를 찾아갑니다. 봉림사지에서는 고려 왕실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한때 경남 지방의 선풍을 진작시켰던 향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천년 고찰 성주사에서는 대웅전(지방문화재 제134호)과 3층석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가야시대의 장유화상이 토굴을 짓고 수도하며 불법을 수로국에 전한 효시가 됐다는 유서 깊은 장유암도 참배 합니다.

◇출발: 10월 9일(토) 밤11시·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디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 일양약품·대한불교제과인회

공 고

불교미술 보응문성 金魚 문도총회 소집

보응문성 스님은 근세의 대 불모로서 한국 불교미술에 괄목할만한 업적을 쌓으셨고 이 시대 불교미술의 큰 산이신 일섭 스님, 신상균 선생님 등의 스승으로서 불교 미술인들의 근간으로 자리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스님의 행적이 지금까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늦게나마 스님의 후학들이 원력을 모아 보응문성 스님을 기리는 첫 번째 사업으로 스님의 행장을 담은 비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차에 걸쳐 비 건립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제 문도들이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 미진한 문제 등을 의논하고저 다음과 같이 「**보응문성 문도총회**」를 개최하오니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중흥을 위한 뜻깊은 일에 다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1999년 10월 7일(음 8월 28일) 하오 1시
♣장 소 : 한일관(지하철 종각역, 제일은행 옆) Tel. 02-732-3735
♣대 상 : 보응 스님의 4代(曾孫弟子)까지
♣문의처 : 보응문성 금어 비 건립 추진위원회 사무실
T. 02-738-1117 FAX. 02-738-1118

▣ **보응문성 금어 비 건립 추진위원**
석정 스님, 재섭 스님, 신언수, 박준주, 조정우(이상 문도)
황수영 박사(전 동국대학교 총장), 정영호 교수(교원 대학교)
범하 스님(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장충식 교수(동국대학교 박물관장)
장곡 스님(갑사 주지스님), 양산 스님(조계종총무원 사회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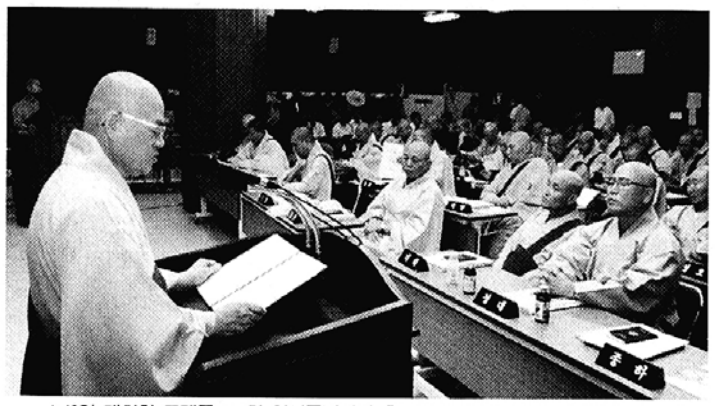
▣ **실행위원** : 허길양, 전연호, 박동수, 송광무, 조기환

보응문성 금어 비 건립 추진위원장 황 수 영

조계종 제142회 임시중앙종회가 17일 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됐다. 종회는 이번 회기 동안 원로회의법 신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상정된 27 안건 중 19개 안건을 심의했다. 조계종-선학원 합의문 인준은 부결됐다.

이번 종회에서도 5일간의 회기 중 16, 17일 이틀 동안은 성원미달로 휴회를 거듭하다 끝내 자동폐회되는 구태를 되풀이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틀 동안의 휴회로 계단법 승려법 승적제적법 총림법 등 종법제·가정안과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 재원마련을 위한 토지처분 동의요청, 동국대 불교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등의 안건은 심의하지 못했다.

이번 종회에서는 회기 첫날과 둘째날 집행부에 대한 종책질의를 벌여 집행부 감시와 대안 제시의 가능성을 보였다.



◇13일 개회한 조계종 142회 임시종회에서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종회도 16·17일 이틀 동안이나 성원미달로 휴회를 거듭했다.

지방승가대 정원 재조정 논의

조계종 142회 종회 강릉BBS추진등 종책질의 '진지'

특히 종책질의를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제도를 처음 시행해 차분한 가운데 종책을 토론하는 생산적인 보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종회에서 미리 제출한 질의서를 통해 종책질의에 장곡 정념 세영 지현 향적 법보 원행 태공 여연 현응 성관 장적 화범 지명 지광(금산사) 운달 지홍 지현 법안 유광 도각 월우스님 등 모두 22명이 질의에 나섰다. 다른 의원들도 보충질의 등을 통해 종책질의에 나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종책질의 가운데 청사신축과 관련된 내용이 6건으로 가장 많아 종도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총무부장 원택스님 답변을 통해 청사 신축과 관련, "6개월 이상 걸리는 기본·실시설계 기간중 여러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며 "종회의원들께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화부장 일철스님은 성보보존을 위해 불교문화유산보존위원회 설립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성보박물관의 문화관광부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불교방송 설립을 위해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사회부장 양산스님은 민영교도소 설립과 관련 "원칙적으로 법제정에 반대하나, 3대 종교에서 시범적으로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호법부장 종고스님은 교구 호법국장의 조사권 부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도사 문제해결을 위해 호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육원 질의에서는 승가대학 총정원 10인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현응스님은 "총정원 30명 이상을 10명으로 낮춘 것은 교육원의 무소신"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 계성스님은 "오랜 논의를 거쳐 확정한 정원을 하향조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답했다.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종회 차원에서 승가대학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포교부장 현진스님은 "군승단을 조계종에서 관할하면 타종단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계종의 관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진스님은 또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종회 주요결의사항

원로의회법 '통과'

▲btn특위 해체와 총무원이 btn경영 정상화에 책임지고 나서줄 것을 촉구 결의했다. btn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총부채가 90억원을 상회하나 종단의 적극적인 정상화 의지가 있으면 금융권 부채의 분할 상환 및 미지급금의 연차적 지급 등으로 최소한의 자금(약 10~20억원)으로도 btn의 경영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다"며 "총무원 문화부를 중심으로 향후 btn 경영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담금 조정 특위, 종헌종법 개정특위 활동 시한을 정기종회 개회 전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중앙종무기관 추경예산안 4억2천6백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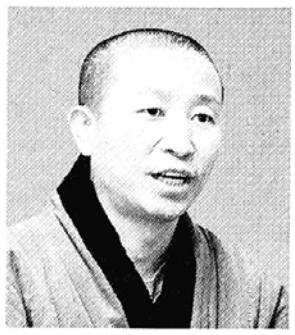
▲사미·사미니 의제 시행 촉구, 종단 대정부 각종 법령 및 현안 촉구, 군당국의 김태복장군에 대한 종교편향 행위 시정 촉구의 건과 관련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진관스님 석방 촉구 결의문은 사회분과위에서 검토 후 발표하기로 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선출:명진스님(종회부의장) 사퇴에 따라 궐석이 생긴 종립학교관리위원에 여연스님을 선출했다. 중앙선관위원-범여, 종본. 소청심사위원-혜자. 기초선원운영위원 위촉-무여, 인각, 원룡. 종헌종법개정특위위원-장적, 현봉.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정휴스님의 사표는 반려키로 했다.

▲원로회의법, 신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원로회의법 3조1항을 '원로회의 의원의 자격은 승랍 45년 이상, 연령 65세 이상의 원로 비구로 한다'로 개정, 80세 상한선을 삭제했다. 또 부칙 2조 경과조치도 개정. 지난 3월 종회에서 개정한 원로회의법에 따라 자격상실된 원로회의 의원 자격을 회복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석주, 운경, 비룡, 응담, 도천스님이 다시 원로의원의 자격을 회복했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스님

"연기적 세계관으로 새문화 창출"



지난 11일 창립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의 상임대표를 맡은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은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를 통해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연기적 관계로 회복하고, 나아가 시대적 문제를 푸는 문화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의 이념은 무엇인가.

▲잘못된 세계관에 의한 가치의식과 방법론에 따른 모순은 불행을 지속시킬 뿐이다. 이제는 연기적 세계관으로 이런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바로 이런 문제를 푸는 열쇠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불교위상

생협·귀농교육 전개
인간-자연 관계 회복

도 저절로 높아지게 되리라고 본다.

-사업의 성패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지금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옳고 바람직한 일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최선을 다하면 결과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연기적 세계관에 기초하지 않는 유기농 나눠먹기는 의미가 없으며, 문제는 지금 시대가 당면해 있는 문제를 푸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불교적 세계관에 대한 불자들의 자부심이 있어야 하고, 불교가 갖고 있는 사찰의 임야와 농지 등의 자원활용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좋은 물건이 있어도 이를 바르게 사용하려는 신념과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농촌과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것은 다음 문제다.

-사업의 핵심은 무엇인가.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사업의 절반 이상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명에 대한 불교의 이념과 생명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고서는 효과적인 사업을 전개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농촌공동체와 도시공동체별로 나누어 생협과 귀농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전개할 방침이다.

-세부사업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사찰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개별사찰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창립 전에 18개 본사스님들을 만나 유기농 매장 개설과 유휴농지 활용 등의 협조는 이미 구해놓았다. 각 교구에서 단위사찰로 운동이 전개돼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님들의 생명공동체 운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스님들과 불자들의 호응이 없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목어

도청은 투도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스스로 보존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 인권이란 개성의 존중이다. 개인이 진정으로 존중될 때, 서로간의 신의가 형성되고 사회의 안정과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요즘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의 미명 아래 전화를 감청한다고 하니, 국민이면 누구나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해보자. 내가 하고 있는 전화의 내용을 누군가가 도청이나 감청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름끼칠 일이다. 이와 반대로 수사관 자신의 전화가 감청이나 도청 당한다고 생각할 때, 역시 불안하고 초조할 것이며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불법감청이 사회문제화 되자, 경찰청에서는 서둘러 감청 및 통화번호 조회시에는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 총경 이상의 결재를 받아 서면으로 요청토록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때는 통신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피해의식과 불안감으로 인한 국민정서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런지!

어떤 의미에서든 감청이나 도청은 투도죄(偸盜罪)에 해당된다. 설사, 업무상의 일이라 할지라도 양심에 저촉되는 죄값은 남아 있을 것이다. 〈범천신책경(梵天神策經)〉에는 이를 경계하는 말이 있다.

"삼가 도둑질하지 말 것이니 도둑질하면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한다. 탐심을 일으켜 남의 물건을 훔치면 후생에 축생보를 받게 된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감청이나 도청을 하여 남의 인권을 유린하고, 남의 정보를 몰래 훔치는 도둑질은 반드시 새나 쥐의 과보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첨단기자재가 인간의 편리와 편안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더 죄짓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국민의 정서안정을 위하여 하루빨리 감청·도청에 대한 엄중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

진각종 등에 군승개방 긍정검토

조계종 포교원 '군승제도 개혁안' 준비

군승특별교구제·군법사 충원안도 논의

조계종 포교원은 최근 군승제도 개혁안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군승단과 예비역군법사단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될 이 군승제도 개혁안은 진각종 등의 군승 진출 및 군승 충원 방안, 군승특별교구 설치 문제 등으로 대별되고 있다.

조계종 이외의 군승 개방 문제는 진각종을 비롯한 천태종 타 고종 등의 군승 진출 요구에 의해 제기됐다. 정규 4년제 대학인 위덕대를 보유한 진각종은 96년부터 위덕대 졸업자에게도 군승후보생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국방부와 조계종에 지속적으로 청원해 왔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조계종은 진각종이 재가종단인데다 법회의식이 조계종과 판이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군승 진출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군포교 활성화'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종단협이 지속적으로 각 종단에 군승 진출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자 포교원은 타종단에의 군승 개방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포교부장 현진스님은 14일 열린 제142회 임시중앙종회 포교원 종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군승단을 조계종에서 관할하면 타종단에서도 군승후보생(요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타종단의 군법사 진출 문제를 공론화해 내년 상반기 중 포교원안을 마련해 종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고산스님도 16일 진각종 성조 통리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런 뜻을 재확인했다.

포교원은 각 종단의 군승 진출을 반대하더라도 국방부가 승인하면 어쩔 수 없다는 법적 현실과 군법사 충원의 어려움 등을 감안, 진각종으로부터 매년 3억5천만원 정도의 군포교 지원금을 받고 3~5명 정도의 군승후보생을 진각종에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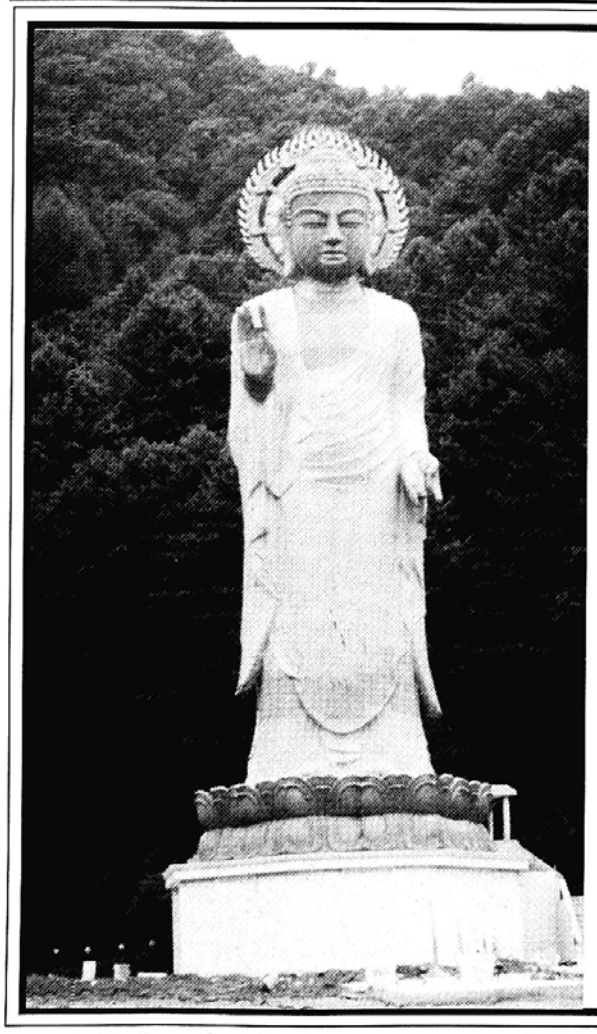
포교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군승 부족난을 해소하고 군승 내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군포교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동국대 불교대학과 중앙승가대에 재학중인 학인들의 군승사관후보생 지원율이 저조해 매년 일반대학에 재학중인 스님들을 군승요원(8명정도)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매년 군승 T.O. 18명 중 5명 가량의 결원이 발생(군승사관후보생은 5명정도)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2002년까지 180명으로 군승 T.O.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획기적인 군승충원 방안이 없어 모처럼의 군포교 확산 기회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포교원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군승특별교구의 설치 문제는 군법사의 종법적 지위 향상 및 예비역군법사의 활용, 타종교 군종교구에 필적하는 종단 공식 군포교 기구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지난 89년부터 군승단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으로서 포교원도 신중히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군승단 내부의 의견 통합문제, 군법사의 독신 여부를 둘러싼 종지종풍과의 합치성 문제, 특별교구의 종헌종법상의 적법성 문제, 예산 확보 문제, 타종단 군승 진출시의 관리 문제 등 난제가 적지 않아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길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奉 동양최대 아미타 대불 낙성식 및 점안 봉불식 祝

부처님 몸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과 극락도 지옥도를 관람합니다.
(아미타 대불 높이 36M, 폭 10M 아파트 12층 높이)



화담스님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남과 북, 동해바다 서해바다 가로세로 중앙이 강원도 홍천입니다.
홍천 연엽산은 신라말기 도선국사께서 우리나라 명당 약 400군데를 비로국찰로 정하셨고 풍수지리학의 원조이시며 홍천땅에 명당 기운이 솟아 이곳에 비보국찰을 세우실려고 하루밤 야숙을 하시는데 연화봉에 서광이 비치고 남여 화신이 내려와 이곳에 오셔서 "산이름을 지어 주시고 터 닦음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였다 합니다.
산이름은 연엽산이라 명하셨고 연화봉을 둘러쌓인 99봉오리가 마치 연꽃이 피어 있듯이 합니다.
산에 기운이 너무 쎄 산에 기운이 누그러질 때 앞으로 약 천년후에 불사에 인연자가 타나날 터이니 그때까지 터를 보호하여 달라고 하였답니다.
도선국사께서 짚고 다니는 주장자로 약수물을 뚫고 절도 없는 곳에 연합, 절골이라 이름하였다고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소승은 남양주시 도농동에 은선사를 창건 28년간 모아놓은 부처님 정재와 신도님들의 시주물로 우연히 강원도 홍천 연엽산 도선국사 불연지를 만나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시주 동참으로 불사시작한지 지금 6년이 되었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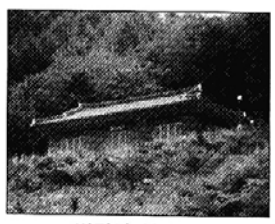
국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불사를 하다보니 이렇게 극락과 지옥을 혜매고 있습니다.
대웅전을 3층건물로 연건평 680평, 삼성각 30평, 아타대불 36m 아파트 12층 높이며 부처님 몸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 10대 보은은중경과 극락도 지옥도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1층에 부처님 12분을 탱화로 모셨고 각 12지 띠별로 기도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아미타대불 낙성식 및 점안 봉불식을 전국에 큰스님과 불자형제 사부대중을 모신 자리에서 점안 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라옵니다.
불자형제 여러분 이곳 연화사 아미타 대불 몸안에 있는 부모은중경을 전국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요즘 교육제도가 인재를 길러 내는데 치중하다 보니 사람만드는 예절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자기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들로 꽉 차있는 듯합니다.
이곳 아미타 부처님 몸에 잉태하여 부모님을 생각해보는 부모십대보은은중경을 청소년들을 위하여 부처님법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대웅전과 요사채 식당 등등이 완성되지 못하여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이해 바라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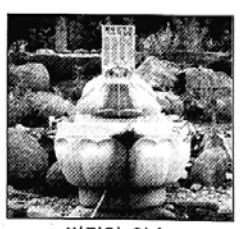
법당 전경(불사중)



아미타 예불 및 법당



법당뒤 삼성각



법당앞 약수

⊙ 날짜 : 1999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11시 <삼일간>
⊙ 위치 : 홍천에 오셔서 강재구공원 성동마을 지나 연화사
⊙ 주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664
⊙ 전화 : 0366) 433-1815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전 남 정 연화사 주지 김 화 담

굶는 어린이와 노인의 희망

용신 봉사상 받은 정관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인데 뜻밖에 귀한 상을 받게 돼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 16일 서울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시상하는 제35회 용신 봉사상을 수상한 정관스님(공주 금강사회복지관장)은 수상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용신 봉사상은 소설 상록수의 실제 여주인공인 채용신의 삶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매년 봉사정신이 투철한 여성 가운데 1명을 선정, 수상하는 값진 상이다.

"결식아동과 무의탁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정을 베푸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솔선수범해 보이고 싶었고, 이들에게 힘이 돼주고 싶었습니다."

스님은 93년 공주 금강사회복지관 관장소임을 맡아 지금까지 133회에 걸쳐 1천1백여명의 무의탁 노인에 3천2백여만원을, 750여가구의 불우이웃에 1천 9백여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지난 6월부터는 무의탁 노인 80명과 결식 아동 30명에게 매일 무료급식과 도시락을 마련해 죽고 있다. 또 공주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해 비행청소년 선도에도 앞장서 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한국유물 바로알리기 절실"

美 박물관 한국담당 큐레이터 린다 최



"한국의 문화예술을 주제로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해외 주요대학에 한국미술학과를 설치하고 한국유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워크숍 참석차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린다 최(38·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 한국담당 큐레이터)는 해외 한국 미술품의 보존과 전시를 위해 이같은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미국 UCLA대학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한 한인 2세 불교신자.

최씨에 따르면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해외 박물관에는 중국관 일본관은 있었지만, 한국관은 없었다고 한다. 또 한국유물은 박물관 계단, 통로 등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거나 중국관이나 일본관의 한 구석에서 초라하게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관을 설치하고, 소장 유물을 복원·보관·전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린다 최는 "90년대 들어 국내·외 재단과 민간단체의 지원에 힘입어 해외박물관에 한국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문 큐레이터가 부족해 깊이있는 전시기획과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워크숍을 기점으로 앞으로 한국유물에 대한 출판·세미나 등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어로 된 한국문화재 서적을 구하기가 어려워 일본에서 출간된 일본어책이나 영문책을 통해서 한국 고미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실정이라는 린다 최는 정부와 학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고은시인, 美·멕시코서 시낭송회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한국시를 강의하고 있는 고은시인초청 시낭송회가 새 천년을 앞두고 미국과 멕시코에서 연말까지 잇따라 열린다.

첫번 째 시낭송회는 18일 오후 7시 미국 뉴욕 34번가에 위치한 1천2백석 수용규모의 맨하턴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유료로 열렸다. 이날 시낭송회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시인 마이클 맥클루어가 통역낭송했다. 바이얼린 독주회, 소프라노 독창 등도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어 10월 8일 하버드대학, 10월11~16일까지 UCLA, 11월 10일~14일까지 시카고대학, 12월 26일~27일 멕시코 등에서 동양사상을 근간으로 우주를 노래하는 고은시인의 시낭송회가 연달아 열린다. 김중근 기자

동국대-동양대 교류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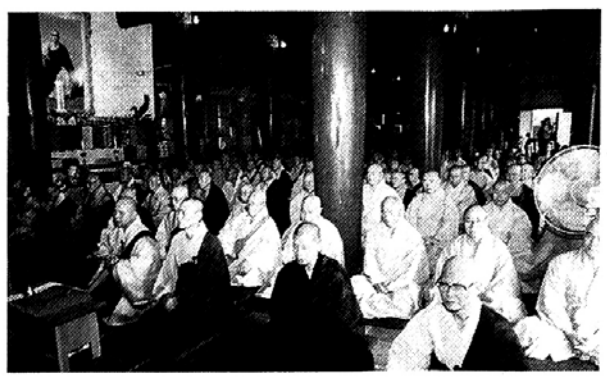


녹원 동국학원 이사장 스님〈사진위〉과 송석구 동국대 총장〈사진아래〉은 16일 자매대학인 일본 동양대학을 방문해 양교의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96년 협정체결 이후 처음 방문한 녹원스님과 송 총장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불교대·인문계열 부분의 교류외에도 이공계 분야의 교류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일본 동양대학은 이공계 분야의 명성이 높은 곳으로 교류가 활성화되면 동대 이공계의 발전도 기대된다.

강지연 기자



불국사 월산 대종사 2주기 추모재

성림당 월산대종사 2주기 추모다례재가 14일 오전 11시 불국사 무설전에서 엄수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탄성스님, 前총무원장 월주스님, 호계원장 월서스님, 법주사 혜정스님을 비롯 수덕사 법주사 금산사 주지 등 종단과 문중 지도자를 비롯 성타스님(불국사주지) 종상스님(석굴암주지)을 포함한 상좌 및 문중스님 등 5백여 스님과 경주부시장 경주시의회의장 등 기관장 및 신도대표 등 재가 불자등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추모다례는 헌다에 이어 월산스님의 생전 육성녹음 법문을 청취하고 헌화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주=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교 차 로

구화산 지장동상 기공식 축사



성타 불국사 주지는 9일 중국 구화산에서 지장 김교각스님 탄신 1205주년을 맞이해 99m높이의 지장동상을 건립하는 착공대법회에서 한국불교 대표로 "양국의 동체적 관계를 재확인하고 불교중흥에도 공동 기여하자"고 축사를 했다.

21세기 불전전산화 세미나



보광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스님은 10월6일 오후2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21세기 불전전산화 방향' 주제의 설립기념 세미나를 연다.

삼화사 문화재지정 축하세미나



원행 삼화사 주지스님은 10월7일 삼화사 문화재 지정축하법회와 '두타산성과 삼화사의 민족정신'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삼화사·동해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점역 '원심 법공양' 발행



덕신 조계사 장애인포교 원심회장 스님은 최근 불교신행연구원이 발행하고 있는 월간〈법공양〉을 점역으로 옮긴 〈원심 법공양〉을 발행했다.

승가대발전기금 기탁



본각 중앙승가대 비구니수행관장 스님은 최근 학교 발전기금으로 8백만원을 기탁했다.

청소년 장학금·생활비 후원



각우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10일 7명의 청소년에게 총 1백만원의 장학금을, 30명에게 각 1백만원의 생활비를 전달했다.

제1회 위덕독서대상 공모



손제석 진각종립 위덕대학교 총장은 20일부터 10월30일까지 제1회 위덕독서대상을 공모한다.

5일 가을 학술발표회



목정배 성철선사상연구원장은 10월5일 오후2시 부산 국제신보사 강당에서 가을 학술발표회를 연다.

3군 군승단 하계수련회



이희용 대한민국육해공군군승단장은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가톨릭 이시돌수련관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군법사 90명(신임 군법사 13명 포함)이 참석했다.

日 교육사학회 학술회 참석



박선영 동국대교수(교육학)는 10월2일 일본 홋카이도대학에서 개최되는 일본교육사학회 학술발표회에 참석한다.

64차 통일정책 강연회 개최



이배영 남북문화교류협회중앙회장(은평구청장)은 15일 연세대에서 제64차 통일정책 강연회를 개최했다.

'윤회의 자아·무아' 주제발표



정승석 동국대 교수는 10월2일 성철선사상연구원의 제12회 백련불교아카데미에서 '윤회의 자아와 무아'를 주제로 발표한다.

진양엔터프라이즈 이전개업



강인성 대구경불련 회장(진양엔터프라이즈 사장)은 18일 안경전문 수출업체인 (주)진양엔터프라이즈 확장 이전 개업식을 거행했다. (053)558-4500

중앙대서 관현악 등 강의



김성녀 연극인은 최근 중앙대 겸임교수로 임용돼 99학년도 2학기부터 관현악 및 연기실습을 지도한다.

인재불사의 중추 삼장강사 10명

강원·학림교수…경전번역 현대화 기대


◇응각스님


◇능허스님


◇반산스님


◇일귀스님


◇현진스님


◇선행스님


◇용학스님


◇원철스님


◇지상스님


◇법장스님

한국불교의 희망을 일굴 10명의 '삼장강사'가 탄생했다.

7일 조계종립 승가대학원을 졸업한 10명의 졸업생들은 학림이나 불교관련 석사 또는 강원(승가대학)의 중강 이상자들로서 3년동안 다양한 강의훈련과 번역훈련을 거쳐 경전연구는 물론 기존의 강원교육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새 삼장강사들은 재학중 역경에 전념해 지난 97년 학인 공동저서인 〈금강경전서〉를 발간하고 98년에는 행자교육 교재인 〈고승전〉을 발간하는등 승가교육에 필요한 교재들을 보듬어내는 성과를 일궈냈다.

응각스님이 〈벽암록〉, 법장스님이 〈조당집〉을, 반산·선행·현진·지상스님이 〈화엄경청량소〉, 〈법화경이야기〉 〈능엄경사경〉 및 〈능엄경정맥소〉, 〈현수법장의 화엄학개론〉 및 〈서장〉을 각각 출간했다. 또 원철스님은 〈선림승보전〉을 발간했으며, 용학스님은 〈불광대사전〉 한글색인과 〈불조직지심체요절〉을 엮어내 경전연구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일귀스님은 〈수능엄경〉을, 능허스님은 〈열반경〉을 각각 번역했다.

졸업한 스님들은 현재 해인사 학감(응각스님), 백양사 강사(법장스님), 해인사 강사(반산·선행스님), 직지사 강사(능허·현진스님),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일귀·원철스님), 직지사 중강(지상스님), 범어사 중강(용학스님)등 제방강원이나 학림의 교수로 재직중이라 승가교육 및 경전번역의 현대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대구=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새천년 제2건국 호국기원

봉 소원성취 수륙대재 방생 대법회 축

◈ 증 명 : 세계불교승왕청 최고위원(각 종단 종정 큰스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세계불교승왕청에서는 오는 양력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충남 태안 이원면 만대어촌관광마을에서 **새천년 「제2건국」 호국기원 소원 성취 수륙방생 대법회**를 봉행코저 합니다.
이 기도법회에 동참하시어 꼭 한가지 소원 성취를 기원하여 이룩하고 조상이 천도되어 왕생극락하게 하여 복과 덕을 갖추게 되어 가정의 평화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세계불교승왕청 최고위원회
대법주 세계승왕 인왕 신판석

▣ 일 시: 오는 10월 15일(음9월 7일) 금요일 오후 1시
▣ 장 소: 충남 태안 이원면 만대어촌관광마을(서해안앞바다)
☎0455)675-6728
- 천안 톨게이트에서 서산(국도) → 태안삼거리에서 원북면 방향 직진
- 이원면 소재지서 약 4km(천안에서 1시간 30분정도)

♣ 점심식사제공 제물준비완료(허상무대설치)
♣ 축원(각 사암스님 또는 집행부 접수처 각사암
♣ 동참 경비 부담 없음(주최측 부담)
♣ 동참시는 전화바람(동참안내문 보내드림)

▣ 후 원 : 만대 어촌 관광마을

이날 행사는 새천년「제2건국」호국비 제막식과 정치·경제·사회 각계인사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일만여 불자가 움집한 가운데 TV, 라디오, 신문등으로 홍보할 예정임.

● 서울 구로구 구로4동 732-2 신협B/D T. 02-837-2003 H. 011-356-3427 법왕자 김 소 부 ●

탐방 포항운전기사 불자연합회



◇포항 운불련은 7월18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운불련 체육대회에서 족구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법륜 굴리며 보살행 앞장

92년 창립…보경사 원찰
매월 무료급식·차량 지원

경상북도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운전기사불자들의 모임이면서도 드러나지 않게 신행활동에만 매진해온 단체가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포항 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권용재)는 지난 92년 7월 포항 운흥사에서 정법수호 및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창립됐다.

올해로 창립 7주년을 맞은 포항 운불련은 60여 명의 개인택시 운전기사 모두가 몸집 불리기보다는 내실다지기에 충실하며 수형 및 사회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특히 30대의 택시를 동시에 허가를 내 같은날 부제를 실시함으로써 회원들의 응집력을 한껏 높히고 있다. 최근에는 포항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중의 하나인 보경사를 원찰로 정해 신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6년에는 자체 사무실을 마련하고 98년에는 전국 운불련에 가입해 조직체계를 갖췄다.

포항 운불련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 오전10시 보경사에서 주지 법달스님을 법사로 정기법회를 갖고 있으며 둘째 일요일은 봉사의 날로 정해 무료급식과 차량봉사 등에 나서고 있다.

지난 96년 3월부터는 학산종합사회복지관과 자매결연을 체결, 매월 지체장애인을 위한 후원금을 보시하고 있다. 매월 복지관 장수식당에서 노인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 노인 무료 합동결혼식이나 효도관광등에도 차량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52만 포항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포항 운불련은 법문테입을 틀어주거나 경전의 말씀을 직접 전하면서 승객들의 마음의 짐까지 덜어주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등 조용한 주행속에서 뜨거운 신심으로 거리의 포교사로 서서히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호출택시(0562-281-2211)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은 앞으로 자체법당을 마련한다는 원력을 세워놓고 있다.

권용재 회장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기억에 남는 운불련이 되겠다"면서 "운불련을 애용하고 아껴달라"고 말했다. 0562-277-9943 포항=이윤호 기자

지자체 불자회 170여곳 활동

매년 꾸준히 증가…"자비로 대민봉사"
강남구청·시설관리공단도 내달 창립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각 지방 자치 단체의 불자회 결성이 두드러지고 있는(조계종 포교원 조사결과) 가운데 서울시 강남구청과 시설관리공단 불자회가 10월31일 동시에 창립될 전망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남구청 불심회는 지난해 6월, 팔공산 사찰순례를 함께 한 10여 명의 불자공무원들이 의기투합하면서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지금은 1백여 명에 이르는 불자들이 입회원을 냈을만큼 참여 열기가 뜨겁다. 4개월 과정의 능인불교대학 이수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불자회 결성을 발의한 주택과 양승원씨는 "그동안 강남구청에는 '반석회'라는 개신교모임은 있었지만 불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모임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불자회 창립은 개개인의 신행활동은 물론 불자공무원들이 불교적 신념과 이념으로 대민봉사에 임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현문화복지관, 대치문화복지관 등을 돌아보며 10월31일 창립 법회 장소 섭외에 한창인 강남구청 불심회는 매주 1회 경전공부와 사경법회, 매월 한차례 정기법회와 3개월에 한번씩 전국 명찰순례 등을 계획하고 있다. 강남구청 불심회는 더 나아가 향후 승·재가가 함께 참여하는 '강남구 불자연합회'를 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화장장, 대공원, 공영주차장 등의 관리업무를 맡아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불자회 창립 움직임도 분주하다.

지난 8월 각 직장불교회에 자문을 구한 시설관리공단 불자회는 4일 1차 창립 발기인 모임을 가진데 이어 10월2일 2차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일정과 임원진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설관리공단 김근백 인사과장은 "97년 성동구청 불심회가 창립되면서부터 성동구청불심회의 준회원으로 법회활동을 해 오긴 했지만 남의 불자회에 곁다리로 끼어서 신행활동을 하다보니 서로들 불자로서 책임감과 소속감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고 "9백여 명에 이르는 공단 식구들 중에 겨우 30~40여 명만이 뜻을 같이하고 있어 아쉽지만 모범적인 직장불자회로 자리잡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불자회 창립 발기인들은 10월31일로 예정된 창립법회를 앞두고 공단을 8개 구역으로 나눠 불자회 홍보 및 불자회원 배가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한편, 전국 관공서 및 정부 투자기관 불자회는 1백70여 곳(99년 조계종 포교원 집계), 94년 교정인연합회 등 6개 단체, 95년 부산 연제구청 법우회 등 3개 단체, 96년 경북도청 불자회 등 9개 단체, 97년 공정거래위원회불자회 등 4개 단체, 98년 한전 월성발전소 불자회 등 4개 단체 등이 창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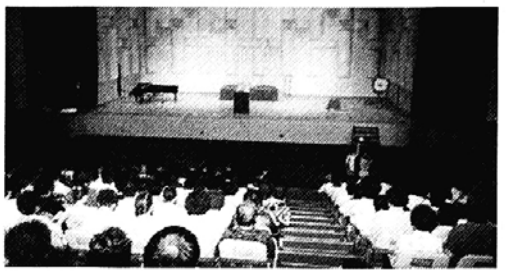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부산 사하구사암련 보현의집 위문

부산시 사하구사암연합회(회장 종원)는 13일 노숙자 쉼터 보현의 집을 방문하고 23개 사찰에서 모은 쌀 6가마, 내의류 1백50벌, 고무신, 떡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종원스님은 "불우이웃 모금활동을 벌여오던 단위 사찰들이 힘을 모았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보시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 통일맞이 민족화합 음악회

통일맞이 민족화합대법회 및 자비실천음악회가 13일 KBS 부산홀에서 사부대중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불교신문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회, 개식법회, 자비실천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불교신문 사장 조연스님은 "온 국민을 화합으로 이끌고 평화통일의 염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 신라문화원 6돌 기념법회

경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13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개원 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에 이어서 우룡스님을 법사로 7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큰스님 초청법회를 가졌다.

큰스님 초청법회는 우룡스님에 이어 10월 4일 혜국스님, 12일 진철스님, 26일 서암스님 순으로 진행된다.



은평노인복지관 산악회 발대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스님)은 노인들의 활동적인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은빛 산악회'를 조직하고 지난 11일 복지관 강당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1백20명의 노인회원으로 구성된 은빛산악회는 발대식 직후 북한산 삼천사로 1차 산행을 실시했으며, 쓰레기 줍기 등의 환경캠페인도 벌였다.



심상 군법당에 작품기증

사진동우회 심상(회장 허애영)은 9일 인제 군법당인 금강법당에 석가모니불 사진을 비롯한 불교관련 작품 10점을 기증했다. 심상은 군법당 분위기 조성과 불자 군장병들의 신심 증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발표 작품을 기증. 032)321-5332



"청보리 포교 앞장서겠어요"

서경인 교사련 창립2돌 법회

서울·경기·인천 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11일 조계종 총무원 청사 1층에서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정련 포교원장, 현진 포교부장 스님을 비롯 교사불자 1백여 명 등이 참석했다.

임완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경인 교사불자회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를 임태했던 저력있는 단체인만큼 모범이 돼 전국 선생님들을 포교하고 청소년을 정법으로 이끄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불자 산악인 통일의지 다진다

전국불교산악인련 10월3일 대법회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총재 손현수)가 10월3일 지정 수행도량 창건 2주년을 맞아 안동 홍은사에서 '남북 평화통일 기원 대법회'를 연다. 평화통일의 새 천년을 발원하고 불교 산악인의 포교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는 11일 홍은사에서 중요무형문화재 48호인 만봉스님이 직접 그린 '효행도' 봉안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봉원사 주지 인공스님을 비롯 서울 동부불교산악회와 안동불교산악회 회원, 일반불자 등 1백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우리 모임에선

동산 포교사단 법문발표회



동산포교사단(단장 이차환)은 3일 등산고육회관에서 단원들과 후배, 재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교사 10분 법문 발표회를 가졌다.

시대에 걸맞는 포교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문발표회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금요일 오후 7시 정기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또 동산포교사단은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 포교사 의식 수련회도 갖는다.

강원호 명예기자

국토개발硏 불자회 창립

국토개발연구원불자회(회장 김의식)는 27일 오후6시30분 관악산 백운사에서 창립 14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0343)380-0382

열린민족산우회 등반대회

열린민족산우회(회장 고준환)는 19일 군포 수리산 등반대회를 가졌다.

이날 등산에서는 수리산 삼림욕장에 들러 약 7백70m에 걸쳐 조성된 '맨발로 걷는 길'을 걸었다. 열린민족산우회는 매월 셋째주 일요일 정기산행을 실시, 명산대찰을 찾아 순례하면서 민족정신을 함양할 방침이다. 018-316-7283 안성조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합니까?"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160면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49재 법보시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법보시: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582-6612 · 팩스 : 586-9078

선재여행사(善哉旅行社)가 문을 열었습니다

귀명삼보하옵고,

월간 『법공양』을 발행하고 있는 불교신행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해외 불교성지순례를 전문으로 하는 선재여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교계의 사부대중께 지면을 통하여 인사를 올립니다.

선재여행사는 단순한 해외여행을 하고자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 깊고 신행이 깃든 순례, 우리나라와 해외의 불교문화를 비교하면서 심도있게 살피고 참배하고 그 속에 깃든 불교정신을 음미해 보는 순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연 것입니다.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떠나는 사찰 단위의 해외 성지순례, 불교단체 및 계모임에서의 성지순례에 저희 여행사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앙망하오며, 떠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인도·중국·일본·미얀마·티벳·네팔·태국·스리랑카 등 불교권 국가를 대상으로 삼아 뜻깊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행이 되도록 모든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김현준 배상

※ 문의전화 : 선재여행사 (02) 582~6647~8
불교신행연구원 (02) 582~6613

최근 국가의 교육정책을 보노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교사들의 명퇴를 적극 권하던 교육부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난에 허덕이고, 각종 교육정책들도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BK 21(Brain Korea)사업만 해도 서울대 등 몇몇 대학의 특정분야를 겨냥한 사업임에도 전 대학에 확대하면서 불공정 선정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 사회뿐 아니라 교계도 승려교육, 신도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통해 지속적인 인재양성에 매진해야 함에도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래불교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는 가장 기초적인 과제이다. 경전가운데 교육과 인재양성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교육과 인재양성

"배운만큼 실천할 수 있게"

▨저 어리석은 중생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종내 깨달을 날이 없다. 그러므로 보살마하살은 부지런히 정진(精進)해 배움을 닦아 자기의 학문을 성취시키는 한편, 중생들로 하여금 이 가르침 중에서 도리에 맞게 학문을 닦아 실지실견(實知實見)하여, 청정한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게 한다. 〈불모출생경〉

▨온갖 존재는 한량이 없으니, 학문을 쌓아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빗방울이 떨어져 시원스레 흐르는 물이 되는 것은 점점 모였기 때문이니, 무시윤회(無始輪廻)의 바다에서 보리심을 일으켜 금강도량에 앉아 불과(佛果)를 성취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제법집요경〉

▨곧고 바른 것을 길(道)이라 하고 두려움 없는 곳을 목적지라 한다. 고요하고 한가한 수레를 타고 진실의 가르침을 덮개로 삼고 부끄러움을 고삐로 삼으며 바른 생각을 재갈로 하여 지혜를 훌륭한 말몰이 삼고 바른 소견을 안내자로 삼는다. 이 세상 어느 사람이라도 이것을 타면 생사의 험한 숲속을 지나 편안하고 즐거운 열반에 도달하리라. 〈잡아함경〉

▨사람이 생존 중 아무리 많이 외고 널리 배운다 하더라도,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문의(文義)·구의(句義)를 또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람이 초목을 많이 져 날라 백·천 짐에 이른다 해도, 애만 썼을 뿐 아무 소용도 없는 것과 같다. 〈출요경〉

▨차라리 조금 배워 도리(뜻)를 이해할지언정, 많이 배우기만 하고 도리는 이해 못함을 택해서는 안된다. 〈열반경〉

▨비유컨대 그물을 잡을 때, 먼저 그 벼리를 거두어야만 그물코가 다 바르게 되는 것이니, 벼리를 거둘 줄 모른 채 그물코만 먼저 바르게 하려 하다가는, 뒤죽박죽 서로 뒤엉켜버려 풀 수 없게 되고 만다. 배움도 이와 마찬가지다. 〈오고장구경〉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은 응당 네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널리 많이 배워 온갖 음절(音節)과 어구(語句)를 지님이요, 둘째는 세간과 출세간의 온갖 사물의 생멸하는 모양을 정당하게 잘 이해함이요, 셋째는 선정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번뇌가 없음이요, 넷째는 파괴됨이 없어서 부처님의 설하신 대로 실천함이다. 〈십주니바라론〉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데 있어서 다섯 가지를 행해야 한다. 첫째는 악을 떠나 선에 나아가도록 함이요, 둘째는 글을 가르침이요, 셋째는 가르침과 계율을 받들게 함이요, 넷째는 일찍 아내를 얻게 함이요, 다섯째는 집안에 있는 재물을 급여함이다. 〈육방예경〉

▨스승은 다섯 가지 일로 제자를 측은히 여기며 가르쳐야 한다. 다섯 가지란 학문을 배우게 하며, 지극한 기예(技藝)를 가르치며, 배움에 민첩케 하며, 선도(善道)를 가지고 인도하며, 현명한 친구를 따르게 함이다. 〈선생자경〉

▨바른소견과 뜻, 바른 말과 행위, 바른 방편과 생각과 선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배우는 이라 하고, 이를 성취한 사람을 배울 것 없는 이(아라한)라 한다. 〈잡아함경〉

▨천장(千章)을 왼들 뜻을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경을 많이 왼다해도 뜻을 모르면 무슨 소용 있으리. 한 뜻이라도 듣고 행하여 제도됨만 같지 못하다. 한 글귀를 알더라도 행하면 도를 얻는다. 〈법구비유경〉

목탁소리

팔순 앞둔 대불청

도 필 선 〈취재 1부 기자〉

대한불교청년회가 창립 79주년을 맞아 11~12일 양일간 대전 충무체육관과 보문산 일대에서 제18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식전 행사에 이어 열린 불청대회는 청년불자 8백여 명과 종단 내외귀빈, 세계 각국의 청년단체 대표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대불청은 환영사, 대회사를 통해 '불청대회는 한국불교의 희망, 청년불자 하나됨을 위한 자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불청은 1시간 30분 동안이나 불교계 내의 유력(?) 인사들에게 격려사와 축사 등을 토해내게 하더니 시상식을 끝으로 어이없게 불청대회를 마무리했다. 말잔치에 지친 단상 아래에서는 "지겨워" "안 오려고 했는데…" "(축사할 사람이)몇 사람이나 더 남았냐. 이 사람들 말 끝나면 불청대회는 끝이지"라는 원색적인 불만들이 노골적으로 터져 나왔다. 분명 전국에서 청년불자들이 '누가 누가 말 잘하나'를 평가하러 몇시간씩 비행기나 버스를 타고 온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 실망스러웠던 것은 본대회가 끝나고 벌어진 뒤풀이마당이다.

각 지구, 지회별로 모여 앉아 벌인 술자리에서는 어느 지구 지회라고 할 것 없이 중앙 사무국을 성토하는데 열을 올렸고 '중앙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 대불청이 안된다'는 한목소리였다. 청년불자들이 고뇌를 함께하며 좀 더 나은 대불청 건설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보다 '네 탓이오'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한국 최대 청년조직'이라는 수식어를 불이기조차 부끄러웠다는 것이 이날 참가한 의식있는 청년불자들의 자탄이었다.

그나마 포교마케팅을 발표하고, 불청의 사회적 역할모색 등에 대해 토론하며 밤을 지샌 경기지구 같은 소조직이 있어 다행이었다.

대불청은 진정 변해야 한다.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초대 가수들의 얼굴만 바뀌는 불청대회는 지양하고 청년불자들에게 유익한 강연과 토론의 장으로 변화를 주어 불청의 내실을 다지고 위상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이 되면 대불청은 창립 80주년을 맞는다. '팔순'이라는 나이에 걸맞는 원숙하면서도 웅골찬 새 청년불자상을 보여주어도 부족한 터인데 걷치레 행사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psdo@buddhapia.com)

열린마당

새시대불교포럼 토론회

불교통일운동의 과제

21세기는 통일의 시대가 될것이다. 통일의 시대를 앞두고 그동안 지속돼온 불교 통일운동의 반성할 점과 그 과제는 무엇일까.

새시대불교포럼(회장 박승원)은 14일 조계종 포교원 4층 강의실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불교통일운동의 반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노귀남씨의 발제와 이승환 조성렬씨의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단체연대로 정보공유 바람직"



노귀남(경희대 강사)

통일운동은 80년대 재야민중운동으로 시작하여 88년부터 시민대중에 의한 운동으로 확산됐다.

교계의 통일운동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를 1기, 1995년부터 현재까지를 2기로 나눌 수 있다. 1기의 활동은 주로 사회민주화운동과 맥을 같이하여 이루어졌다면 2기에는 북한 식량난 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대중화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불교의 통일운동은 불교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띤 '불교자체의 목적'이 분명함과 동시에 전체 통일운동에 조응해야 한다. 이점이 통일사상 또는 운동의 이념적 원리로 원용될 수 있는 불교사상의 원론적 강점은 많다.

제1기 통일운동이 주로 기존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동참함으로써, 독자적 영역개척보다는 진보진영의 운동론으로 활동함으로써 불교의 대중적 정서를 움직이는데 실패했다. 2기의 경우는 진보의 세력보다는 대중과 결합하여 많은 힘을 얻고 있다.

현시기 불교통일운동의 쟁점은 불교계의 대북교류와 지원의 창구문제가 있다. 불교교류의 대표성을 서로 주장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위해 단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동 통일학교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본다.

"북한 인권개선에 관심가져야"



조성렬(국가정책사회硏 상임연구원)

불교통일운동은 먼저 불교이론과 불교다운 통일운동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98년 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협등을 구성하고 반핵운동을 제기했지만 이 내용은 우리의 역량으로 상당히 버거운 것이었으며 내적으로도 정립하지 못했다. 불교통일운동은 먼저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룰 것인가 아니면 포용정책을 쓸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우리 스스로의 변화도 중요한 변수이다.

이와함께 확고한 불교통일운동 사상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 대북활동에만 머물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문제 다루기처럼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중요하다.

또 시대상황이 바뀌만큼 통일운동을 논함에 있어서 동북아 평화정착노력과도 연계하여 문제를 풀어가려는 대아적인 자세를 견지할 때라고 본다.

"불교교리 입각 통일이론 개발"



이승환(조국평화통일민족회의 사무총장)

그동안의 불교계 통일운동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충분한 이론개발과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뛰어들었다고 본다. 불교통일운동은 먼저 분단상황에서 불교대중의 교리에 입각한 이론개발을 통한 자기얼굴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 불교가 갖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완화시켜 평화를 기준으로 한 세계적인 입장과 방법론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했으면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기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통일후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과 관련 열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교계가 실시한 통일학교등은 80년대 통일교육의 연장형식에 불과했다. 불교의 화쟁사상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통체대비의 정신을 갖도록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2000년대를 앞두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것이 불교계가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찰환경보존 법적 대응을

목.소.리



정기웅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여러가지 면에서 잘 보존돼야할 사찰의 환경피해가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사찰이 법에 바탕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소개하고 이에 바탕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전통사찰보존법을 들 수 있다. 전사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인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사찰경내지의 경우 법률의 수용이나 사용또는 처분을 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장관이 동의할 때는 전통사찰의 소속종단 대표와 협의를 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가 당해사찰 주지와 협의하여 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보존구역에는 불교목적이외의 건조물설치 및 현상변경,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전사법에 해당하는 전통사찰은 860개며 등록 사찰은 837개이다.

198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상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은 국보 및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구역, 사적보호구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보호물보호구역등이며 사찰건조물은 2km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조계종의 유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407점, 시도지정문화재 491점, 문화재자료 228점 총 1126점이다. 이외의 종단은 국가지정문화재 10점, 시도지정문화재 43점, 문화재자료 23점등 총 71점이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건물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전통건조물보존법은 축조된지 50년이상된 사찰 건축물로 인근 1백미터 이내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으로 국립, 도립 군립공원 등의 지역은 증개축이 제한받으며 도시계획법은 문화재보존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건축물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자연환경보존법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생태계보존지역은 법으로 보호받는다. 이곳도 2km이내는 건축물등을 건립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사찰들이 존재하는 곳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지정요청이 늘고 있다.

이같은 법률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첫째 전통사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찰은 지정을 받아 경내지와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사찰에 많은 유형 무형문화재와 기념물 민속자료등을 문화재로 지정받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동식물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 내용은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 주최로 15일 열린 친환경적 사찰만들기 토론회의 발제문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책이 있는 시간 · 책이 있는 공간 · 시공사



불교학자가 친구 손잡고 떠나는
원효 유적 답사

자 떠나자 원효 찾으러



장휘옥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원효 스님의 유적지 한곳한곳을 발바닥에 땀나게 돌아다니며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정리한 글. 코끝이 빨개지도록 추운 겨울날 스님이 귀신 꿈을 꾸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당항성을 찾아다니다 보은병의 따뜻한 물로 타 마신 커피, 자동차 씽씽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서 친구를 교통순경 삼아 목숨 걸고 찍은 제석사 안내석 사진, 답사하다 궁금한 점이나 풀지 못한 문제는 돌아와서 공부하고 서로 얘기하고 다시 해결하러 떠나면서 만든 정리 노트……
불교학자와 늦깎이 주부 학생이 답사 여행을 하면서 나누는 수다와 잡담. 『자 떠나자 원효 찾으러』는 그 생애와 사상을 접하는 방법에서부터 스님의 무애행을 닮았다. 그리고 이렇게 1300년 전 스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여행 속에서 어느새 자신과 삶과 세상을 되돌아보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

설명이 끊어진 자리, 언어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화두(話頭)는 탄생한다.

화두의 향기



'삶의 곁에 두고 틈틈이 되새김질할 나만의 화두가 하나쯤 있었으면……'
의미를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장으로만 생각했던 화두를 여기서는 내 삶의 동반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다른 책들과는 조금 다르게 읽습니다. 마치 시집 읽듯이 천천히 곱씹어서. 그러다 마음에 맞는 화두 하나 골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 삶의 어느 언저리에서 문득 연꽃 한 송이 피울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청 지음 / 신국판 / 값 7,500원

새롭게 정리한 아함의 세계

精選 아함경



이연숙 풀아옮김 / 4×6배판 변형 / 양장본 / 값 24,000원

전체 아함 가운데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경들을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 새로이 체계적으로 엮은 책. 아함의 방대한 분량에 겁먹고 가까이 대하지 못했거나, 단편적인 부분만을 접해 왔다면, 이제 『精選 아함경』을 통해 아함뿐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담겨 있는 불교 전체를 정리해 보자.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시공사

국내 첫 불교창작 오페레타 '아미타불'

법장비구의 구도과정 '가극으로'

10월19일 '운문스님 불교음악 40년 음악회'서 초연
국악선율에 피아노 신디사이저 등 조화


◇운문스님


◇정부기교수


◇법장 비구의 구도과정을 그린 오페레타 '아미타불' 연습장면.

정부기 교수 작곡

"…나무아미타불, 구원을 받으려는 도든 중생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결단코 정각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부귀와 왕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해 중생구제와 성불을 위해 48서원을 세워 아미타 부처님이 된 법장비구의 구도 과정이 오페레타로 만들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작곡가는 '초파일 송가' '육바라밀' 등을 작곡한 정부기교수(중앙대 작곡과). 정교수는 그동안 소품류의 찬불가 작곡에만 전념해왔지만 시청각을 함께 이용한 효과적인 불음포교를 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94년 교성곡 '붓다의 노래' 이후 5년만에 오페레타를 만들었다. 정교수의 이번 '아미타불'은 최근 수년동안 대작 국악교성곡이 주류를 이뤄온 불교 음악계에신선한 장르인 오페레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오페레타는 드라마와 연극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는 오페라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규모와 시간 구성면에서 오페라보다 적은 것이 특징.

오페레타 '아미타불'은 오는 10월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운문스님의 불교음악 40년 기념음악회'에서 초연된다. 이번 음악회는 특히 우리나라 현대 찬불가의 효시를 이루며 '보현행원' 등 5백여 찬불가를 작시한 운문스님의 불교음악 40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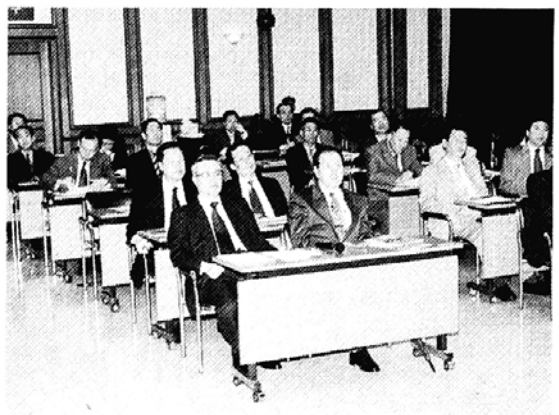
"누구든지 중생을 구하려는 간절한 원(願)을 세우고 수행 정진 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법 정신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불자들이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꼭 필요한 정신입니다. 시각과 청각이 조화됐으며 연극적인 요소가 많은 오페레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에 적절한 음악 장르라 생각해 대중적으로 알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법장 비구의 구법 정신이 장엄하게 담겨진 이번 작품에 대해 정교수는 "음의 높낮이를 폭넓고 다양하게 구성해 극적인 효과와 장엄미를 연출 시키려고 했다"며 "신디사이저를 활용한 대중적인 음율도 많이 가미시켜 일반인들도 친근감 있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금과 아쟁 등 흥겨운 국악 선율을 기본으로 양악기인 피아노와 파이프오르간, 현대악기인 신디사이저 등 동서양 악기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오선지 위에 그려낸 '아미타불'의 하일라이트는 아미타부처님이 된 법장비구와 함께 비구와 보살, 청중들이 다함께 합장하며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장면.

'서원의 발원' 및 '수행' '성불' 등 총 4장으로 구성된 이번 작품에는 환희의 춤과 악마의 춤, 염불송을 위한 춤 등 감정의 기복을 무용으로 나타낸 것도 눈길을 끈다.

이번 공연에는 경국사, 불음합창단 등 1백20여명이 연합으로 무대에 서고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협연한다. 법장비구역의 테너 박지웅과 석가세존역의 바리톤 장관석 등이 솔로로 열연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매월 둘째 월요일 신라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는 경사모 회원들.

탐 방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천년불교문화 세계에 알린다"

회원 1백여명 경주공부 · 답사등 열심

경주에 대해 알고 나아가 세계에 널리 알리려는 순수 민간 모임이 있어 화제다.

경주출신인사들이 주축이된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경사모)'이 바로 그것.

경사모는 지난해10월 구홍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이 고향친구와 경주출신의 주변인사들에게 '경주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자'는 제의를 한 것이 계기가돼 결성됐다.

현재 경사모에는 구홍일이사장을 비롯 황수관박사(연세대교수) 이현세씨(만화가) 이경희선생(서예가) 이지태씨(한보산업 대표) 장만화씨(前서울은행장) 이태형씨(국회의장 비서관) 우창록씨(율촌법무법인대표) 김병태씨(의료기기상사대표)등 53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경사모는 매월 둘째 월요일 저녁에 불교학자나 고고학자등을 초청, 신라문화및 역사에 대한 학습회를 갖는등 '경주공부'에 열정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라사개관' '신라의 고분문화' '신라불교개요' '풍수지리학상으로본 고도경주' '석굴암불상의 특징' '고고인류학적측면에서 본 서라벌' 등의 강의가 진행되면서 모임의 취지가 널리 알려지자 다른지역의 인사들도 참여를 희망해 지금은 문호를 개방한 상태다.

경사모는 회원수가 1백명에 달하면 사단법인을 설립, 회지나 강의록을 발간하고 정기적인 경주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하는등 좀 더 체계적인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

또 기금을 적립한후 경주관련 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발맞추어 경주를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작업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이지태 경사모총무이사(46)는 "경사모는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니라 경주를 제대로 알고 널리 알리려는 모임"이라며 "경주를 사랑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문화에 대한 강한 긍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02)696-3910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金魚 만봉스님 불화전

부산국제신문 전시관, 10월1~10일

이 시대 최고의 단청장 만봉스님(중요무형문화재48호 기능보유자)의 '말없는 법문'을 듣는 전시회가 열린다.

10월 1일부터 10월까지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전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부모은중경, 십육나한상, 극락도, 영산회상도, 해수관음상 등 1백여점이 선보인다. 해수관음상은 바다의 도시 부산 불자들을 위한 스님의 신작으로 최초로 선보이는 불화이다. (051)500-5224

화제의 전시

전통문화재조각회전

서울 관문사서, 10월1~13일

전통불교조각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전통문화재조각회(회장 이재순)가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서초구 관문사에서 제6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전을 연다.

지정문화재 조각기능인으로 지정된 작가 53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밀적금강'(김정철) '석가모니불좌상'(이진형) '관세음보살입상'(송근영) '나반존자상'(김광현) 등 목·석조 조각품 1백여점이 선보인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문화재 조각기능인들의 우수한 전통적 기예를 엿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02)3460-5300

티벳불교미술의 진수 '볼기회'

화정박물관 개관기념 특별전…도록도 발간

서울 이태원동에 200여평 규모로 화정박물관을 개원한 한빛문화재단(이사장 한광호)이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티벳 불교미술의 진수인 탕카는 물론 불경과 불구류 등을 선보이는 개관기념 티벳미술 특별전을 갖는다.

특별전에는 한이사장이 40여년간 수집한 티벳 불교미술품 수백여점 가운데 130여점을 엄선, 선보인다. 불화와 불상, 불탑, 불경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 특별전에는 만다라, 여래, 보살, 불모와 조사, 나한, 수호존·분노존, 호법존 등이 진열된다. 또 뛰어난 조형성을 보여주는 불상과 티벳 특유의 형식을 지닌 불탑, 다양한 제작방식을 보여주는 사경, 그리고 정밀한 공예기술을 지닌 불구도 출품돼 티벳 불교의 정신세계를 보여줄 전망이다.

이완우 학예연구실장은 "티벳은 인도, 서역, 네팔, 중국 등의 불교미술을 널리 수용해 다양한 미술양식을 갖고 있다"며 "이 따문에 티벳의 불교미술은 아시아 각국의 문화교류를 비롯해 우리나라 불교미술과의 비교·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전시 의미를 설명했다. 화정박물관은 이번 특별전 도록 〈티벳의 미술(Art of Tibet)〉도 발간한다. 이 도록에는 150점의 티벳 불교미술품이 소개된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국내 첫 티벳미술 전문박물관으로 16일 개관한 화정박물관에 소장·전시되고 있는 '까담파 불탑'.

외국인 관광객 선호유물 신라금관·반가사유상順

관광공사 설문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재는 신라금관과 허리띠(국보 191·192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78호) 광주철불좌상(국보 311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외국인들이 가장 인상 깊은 전시실로 꼽은 곳은 불교조각실, 신라실, 고려자기실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관광공사가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내·외국인 807명을 대상으로 '유물 선호도' '전시실 선호도' '기념품 선호도' 등의 설문조사에 따른 것.

국적별로 유물 선호도를 세분해 보면 영어권 관광객들은 광주철불좌상, 일본인들은 신라금관과 허리띠, 중국어권 관광객들은 경복궁 모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국인 관광객들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신라금관과 허리띠,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순으로 좋아했고 3위는 백제금동용봉봉래산향로(국보 287호)로 조사됐다.

또 박물관 기념품을 구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외국인 평균 46%가 구입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선호하는 기념품으로는 책자 및 출판물류를 꼽았다.

문화 단신

문화재 모니터요원 모집

문화재청은 오는 2000년을 시작으로 문화재 전반에 관한 민간 모니터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모니터 요원을 모집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2000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할 제1기 모니터 요원 지원신청을 오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받은 뒤 도별로 5명 내외씩 모두 80명을 선발키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ocp.go.kr)를 참조하면 된다.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

강릉시는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오죽헌 시립박물관 역사문화관에서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강산 관련 사진, 그림 등 350여점이 출품돼 민족의 명산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태와 작품 하나 하나에 심혈을 기울인 우리 조상들의 장인 정신을 체험할 수 있다. (0391)40-4499

문경 문화유산도록 발간

경북 문경시는 최근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을 소개한 도록을 발간했다.

4×6배판 120쪽 분량의 컬러판으로 제작된 이 도록에는 도립공원 문경새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가운데 명품에 속하는 300여점이 수록돼 있다.

이밖에 문경시 지정문화재 40여점도 수록돼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봉축

지장보살님 점안 및 지장산림 대법회

"도솔천 내원궁의 지장보살님께서 고불산 성곡사에 장엄하게 나투셨습니다."

고불산 성곡사의 지장전은 중앙에 27m크기의 지장보살상과 주 보살상의 좌대와 뒷켠에 병풍처럼 2m 크기의 지장보살상 500분을 모셔 도솔천 내원궁의 장엄을 재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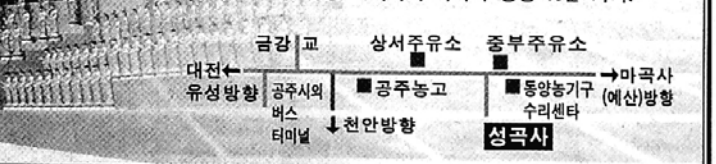
"지장보살의 위대한 정신을 믿고 따르고 예배공경하는 자는 인천(人天)의 복보(福報)를 받고, 태어날 때마다 제왕(帝王)이 된다."

「지장보살본원경 상권 염부중생업감품」

무료 예약 버스 운행

※행사 당일(10월 10일) 「조계사」 정문앞에서 오전 06:00~07:30분까지 서울-성곡사행 왕복버스가 출발합니다.
행사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은 예약을 하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곡사 교통안내
● 공주시내 : 마곡사, 유구행 버스를 이용, 방문리 하차.
● 버 스 : 시내에서 성곡사까지 15분소요
● 천 안 I.C : 공주방향 도로 이용해 공주시내 진입, 금강교 전에서 마곡사 방향 10분 거리.
● 유 성 I.C : 공주방향 도로 이용해 공주시내 진입, 금강교 지나쳐 마곡사 방향 10분 거리.



일 시 : 불기 2543년 10월 10일(일) 음력 9월 2일 오전 10시
장 소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산 2번지 천불대참회도량 고불산 성곡사 지장전

문의처
천불대참회 도량 고불산 성곡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산 2번지
전화:(0416) 853-3355 / 전송:(0416) 853-2928

정암사(성곡사 서울포교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2동 241-49호
전화:(02) 683-3993/전송:(02) 2619-4619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길 고산스님 지음

올바른 삶과 수행자의 길은…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이 새 천년을 앞두고 그동안 수행과정에서 겪은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길〉(문경새재 刊)를 내놓았다.

이 책은 고승의 작별에 대한 선문답을 비롯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 젊은날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똥장군의 가르침으로부터 수행자와 창녀 이야기를 비롯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경전에 대한 스님의 해석 등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다. 고산스님의 첫번째 수필집인 이 책에는 경전의 어려움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었을 뿐 아니라 스님의 질박한 삶이 잘 드러나 있다. 값 7천5백원

화제의 책

헤르만헤세의 인도기행 이인웅·백인옥 역

동양정신 소개한 아시아 여행기



방랑과 사색의 작가 헤르만 헤세가 동아시아를 여행하고 쓴 〈헤르만 헤세의 인도기행〉(푸른숲 刊)이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저자가 1911년 9월부터 3개월간 실론을 거쳐 말레이반도, 수마트라를 둘러본 여행의 궤적을 담고 있다. 이인웅·백인옥씨가 번역한 이 책은 지리적 여행기인 '헤세의 인도여행'과 정신적 여행기인 '여행후의 기록들'로 구성. 1부는 동남아시아의 경제와 문화가 유럽식민통치에 우린, 착취, 말살되는 모습을 체험한 저자의 자성과 비관의 소리를 담고 있다. 2부는 부처님의 설법, 힌두교 등 지혜와 사상에 대한 견해를 실었다. 값 1만5천원.

화제의 책

부처님, 제발 용서하십시오 함재수 지음

인간의 40가지 죄 참회수상집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업장과 과거·현재·미래 삼세에 지을 수 있는 마흔 가지 죄 이야기를 적은 참회수상집이 나왔다. 함재수씨가 쓴 〈부처님 제발 용서하십시오〉(관음 刊)는 이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업을 스스로 뉘우치고 부처님 회상(會上)에 나가 참회하라고 강조한다. 모두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하늘이 슬퍼할 열가지 죄, 저주받아야 할 열가지 죄, 용서받지 못할 열가지 죄, 개도 용서 못할 열가지 죄 등 인간이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마흔 가지의 죄목과 형벌을 조목조목 설파하고 있다. 값 9천원.

새로나온 책



▲유물로 읽는 우리 역사(이덕일·이희근 지음)= 모든 유물들은 저마다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다. 유물이라는 화두를 통해 우리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고려불화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에서는 고려불화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고, '무신정권이 한국불교의 일대 전환점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에서는 현대 한국불교의 원류가 된 송광사와 조계종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고대, 고려, 조선, 현대 등 시대별로 모두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유물에 담겨 있는 비밀 푸는 열쇠인 셈이다. 세종서적 刊, 값 1만원.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좋은 벗들 엮음)=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식량난민의 실태 보고서. 이 책은 '식량난민의 현황과 실태' '국경을 넘는 북한사람들의 절망과 희망' 등 모두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중국 동북부지역 2천4백79곳 마을 현지 조사에 기초한 보고서이다. 2부는 현지 활동가들이 만난 거리의 아이들 즉 '꽃제비들의 노래'를 싣고 있다. 또 부록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동북 3성 조사지역의 탈북유민 실태분석도 수록했다.

(사)좋은 벗들이 지난 96년 11월부터 99년 4월까지 5개월동안 872명의 북한 식량난민을 만나 그들이 증언한 인권 침해사례를 적고 있다. 값 8천원.



▲내몸에 흐르는 기를 찾아서(전수길 지음)= 대체 의학에 대한 연구 보고서이자 기 치료 입문서. 이 책은 배꼽링 기구를 통해 몸안의 기를 증폭시키는 좀더 발전된 대체 의학에 대한 연구보고서이자 기와 치료를 쉽게 이해하는 입문서라는 독특한 성격으로 쓰여졌다. 모두 8부로 구성된 이 책은 몸안에 내기를 증폭시키는 획기적인 기 치료방법과 배꼽링 요법의 사례 등이 실려 있다. 입문편에서는 생활의 기를, 2부는 16기맥을, 3부는 배꼽링 요법의 구조와 원리를, 4·5부는 기로 이해하는 육장육부와 그 진단법이, 6·7부는 배꼽링 요법을 이용한 치료 등을 적고 있다. 명상 刊, 값 1만2천원.



짧은 이야기 긴 깨달음

진현종씨, 대장경속 동물이야기등 두권 펴내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동물과 깨달음 이야기를 주제별로 엮은 두 권의 신간이 동시에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진현종씨가 펴낸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동물이야기〉와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보리이야기〉(혜음 刊)가 바로 화제의 책.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동물이야기〉는 동물을 소재로 하는 우화들을 찾아내 현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코끼리, 사자, 원숭이, 사슴 등 여러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고 있지 못했던 세상의 지혜와 슬기를 재미있게 깨우쳐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눈을 통해서 인간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보리이야기〉는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통해 깨달음의 실마리, 즉 보리의 단서를 제공해 주는 짧은 이야기들을 골라 실었다. 또 이 책의 말미에는 인용된 설화들에 대한 주요 경전에 대한 해설이 풀어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팔만대장경에 관심이 있거나 팔만대장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들은 동물에 얽힌 재미있는 우화를 통해 생활에서 등떨어지지 않은 삶의 지혜를 부처님의 목소리를 통해 느낄 수 있게 한다. 값 각권 7천8백원.

법정스님 '무소유' 25년동안 80만부 판매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나무 한그루 베어 내어 아깝지 않은 책이다." 김수환 추기경과 윤구병 변산공동체 대표는 법정스님의 수필집 〈무소유〉(범우사 刊)를 이렇게 평했다.

독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책으로 단연 〈무소유〉를 빼놓을 수 없다. 76년 4월 처음 출간된 후 지금까지 이 책을 소유한 독자는 약 80만명. 문고본으로 초반 16쇄, 2판 63쇄를 찍을 정도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한번씩 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특히 이 책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돈'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 더 잘 팔리는 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윤형두 범우사 대표는 "꾸준히 판매되고 있지만 경제가 어렵거나 금전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대두될 때 독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며 "빈부의 격차가 없어지고 부처님께서 염원하는 정토사회가 이뤄질 때 이 책은 사문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고본〈무소유〉(값 2천원)가 최근 4×6배 변형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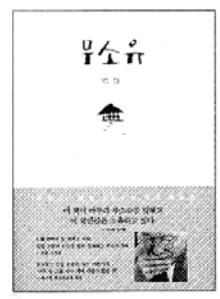
개정판이 나오게 된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법정스님의 남다른 애정이 큰 몫을 했다. 기존 문고본은 한자와 사어(死語), 편집 등이 요즘 신세대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정스님은 강원도 산골에서 내려와 6개월동안 성북동 길상사에 머물면서 어렵고 잘 쓰이지 않는 한문과 구문을 쉬운 한글로 직접 풀어 썼다. 손바닥만한 문고본에 글만 다닥다닥 실은 기존 판과 달리, 각 편이 끝날 때마다 여백을 두고 이철수의 판화를 표지 삽화로 실었다.

개정판이 나오게 된 또다른 이유는 기존 문고본이 법보시용으로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책의 모양새를 좀더 화려하게 해 법보시용으로 품위있게 했다. 그러나 기본 내용은 '복원 불국사' '무소유' 등 모두 35편으로 문고본 그대로 실어 법정스님의 청빈한 무소유의 삶에 대한 진한 감동은 변함없이 느낄 수 있다.

〈무소유〉는 하룻밤에 다 읽는 책은 아니다. 하루에 한 편, 아니면 이틀에 한편씩 읽도록 꾸며졌다. 특히 문고본이 계속 연결된 편집이었다면 개정판은 한편의 끝에 여백을 주어 한편을 읽고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꾸며졌다.

개정판을 손에 쥔 김상기씨는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홀가분하게 살라는 순수하고 철저한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고 싶어 구입했다"고 흐뭇해 했다.

한편 도서출판 범우사는 〈무소유〉 초판본 소장자에게 개정판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 값 6천원.



청소년 읽기쉽게 개정판 나와

"사회 혼란할때 더 잘 팔리는 책"



◇무소유의 의미를 감동깊게 노래한 법정스님의 대표작 〈무소유〉가 새롭게 출간됐다.

'불교학 개론' 입문교리서로 재출간

황성기 박사 추모 20년 불교의 이론과 사상 및 실천의 학문적 입문서로 꾸준한 호응을 받았던 故 황성기 박사의 〈불교학개론〉이 추모 20주년을 맞아 35년만에 재출간됐다.

이 책은 초심자들을 위해 복잡한 이론들을 피하고 줄거리만을 간추려 불교교리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저자의 노트를 정리하여 대학교재를 목적으로 64년 펴낸 것이다.

대중적 신행지침서를 위해 다시 펴낸 이 책은 원문을 그대로 실었고, 산스크리트어 오·탈자 및 한자 교정과 편집만 새롭게 했다. 불·법·승 3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붓다의 생애, 원시불교의 교리, 연기론, 실상론, 불교교단의 제문제, 한국불교의 현황, 한국불교 재건론 등이 수록돼 있다. 값 1만2천원.





■동국대 정각원 '불교수행의 길' 시리즈 1·2권

'좌선으로의 초대' '염불수행' 출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성본스님)에서 '불교수행의 길' 시리즈 일환으로 〈좌선으로의 초대〉와 〈염불수행〉을 내놓았다.

첫번째 권인 〈좌선으로의 초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성찰을 강조하는 내용을 시작으로 좌선, 좌선작법, 일상생활에서의 선의 실천 등 좌선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싣고 있다. 또 〈염불수행〉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실천하고 있는 합장과 참회, 염불수행의 요지를 제시하여 올바른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엮었다.

정각원은 10월 중순경 〈참선수행〉을 출간하며, 매년 불교수행에 대한 내용의 시리즈 관련서를 펴낼 계획이다.

저자 성본스님은 "불법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법의 근본정신을 토대로 한 실천수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값 각권 1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2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3	풍경	원 성	이 레
4	나는 아직도 스님이…	최 인 호	여 백
5	달타이라마 예수를 말하다	류 시 화	나무심는사람
6	초보자를 위한 화두참선 수행기	조 정 연	불 광
7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 장	우 리
8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정 찬 주	해들누리
9	참선요지	대 성	여시아문
10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구입문의:(02)737-0695

"독립군을 모집합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독립국인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한민족의 역사가 밝혀지는 날이
바로 우리가 진정 외세에서 독립하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세계 열강들의 음모와 역사 왜곡
그 가운데 조국에게 진실을 알려 주려다 억울하게 복역중인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은 이 시대의 외로운 독립군일 것입니다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에서 감춰진 역사의 진실을 파내어
진정한 독립 대한민국을 위한 독립 운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동참하십시오!

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닌 얼린 정보를 조국을 위해 공개한 죄로 미 연방 교도소에 복역중인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 사건('99.9.12. KBS1 TV 일요스페셜 「한미 관계의 그늘 - 로버트 김 그는 스파이인가」) 방영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쓰여진 책
『동해물과 백두산이』

국가 기밀 누설죄를 뒤집어쓴 로버트 김 사건
미 국가 기관이 첩보 위성망을 구축해
전세계를 도청한 '에셜런 계획' 등
세계적인 사건과 한국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소설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만나 보십시오
지금, 국제적 사건의 음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이 책의 판매 수익 중 일부는 로버트 김의 구명 운동을 위한 「군자금」으로 쓰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차세대 소설가 김형균 장편 소설 (전2권/각권 7,500원)

명상

"관음도량 바닷가에 조성 해조음 들으며 능엄선 수행"

조용헌교수, 종교학회 불교분과 월례회서 발표

"낙산사 홍련암 법당에 뚫어진 구멍은 해조음을 들으며 깨달음을 얻는 '능엄선(楞嚴禪)'을 하기 위해 뚫어 놓은 것이다."

11일 열린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위원장 해주) 월례발표회에서 조용헌 교수(원광대)는 "홍련암을 비롯허 보문사 보리암 등 관음도량이 모두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것은 〈능엄경〉에서 제시한 4가지 소리 가운데 해조음(海潮音)의 청취가 그 주요한 이유"라며 "홍련암 법당의 구멍을 통해 보이는 관음굴에서 관음을 친견하려는 신앙적 용도이면서 동시에 해조음을 청취하기 위한 수행적 용도에서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소리에 의식을 집중하는 선법인 능업선은 〈능엄경〉의 이근원통(耳根圓通) 수행법으로 귀로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법이다. 〈법화경〉에는 묘음(妙音), 관세음(觀世音), 범음(梵音), 해조음(海潮音)이 세간음(世間音)보다 수승하다고 되어 있다. 〈능엄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리에 집중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4가지 소리는 관음도량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단서로 특히 주목해야 하는 소리는 '해조음' 즉 파도소리이다.


◇조용헌 교수

조 교수는 홍련암 법당의 구멍이 해조음을 듣기 위한 용도에서 조성됐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 보타도 불긍거관음원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불긍거관음원의 원래 위치가 100m 가량의 U자형 동굴인 조음동(潮音洞)의 중간 반환점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음동의 파도가 들어가는 입구는 관음보살이 나타났다는 '현신처(現身處)', 파도가 나오는 출구는 관음보살의 방광(放光)이 있었다는 '광명지(光明池)'라는 암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 법당에 앉아 있으면 바닷물의 입출음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절묘한 구조이기에 홍련암과 마찬가지로 해조음을 수행법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겐지호타 교수팀이 발표한 '파도에서 발생하는 초음파가 인체의 뇌파에 미치는 생리학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해조음은 가청 영역에서 들을 수 없는 초음파를 만들어 내고 이 초음파는 인체의 뇌에 영향을 미쳐 알파파를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알파파는 사람이 편히 쉬거나 명상에 몰입할 때 나타나는 뇌파라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다. 조교수는 이 연구결과를 해조음이 삼매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과학적인 증거로 들었다.

'동아시아에 보이는 원효저술의 영향'을 발표한 후루시 교수(배제대)는 중국과 한국에서 인용되는 원효저술의 인용빈도를 조사함과 동시에 그들 인용의 배경을 살펴보며 한중일 삼국에서의 원효의 영향을 진단했다. 중국에서는 법장스님, 이통현 장자 등 12명이 15부(部)에서 현존하는 〈대승기신론소〉, 현존하지 않는 〈능가경소〉〈능가경종요〉〈능가경요〉 등의 원효저술을 인용했고, 한국은 경흥스님을 시초로 15명이 25종의 저술에서 원효저술을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관음도량으로 유명한 홍련암은 법당 마루에 구멍을 뚫어 해조음을 들으며 수행하도록 지어졌다.

"선지식 결사 고구려서 시작 日 나라 민간결사에 영향"

도이교수, 한국고대사학회서 주장

고구려에서 시작된 '선지식(善知識)' 결사운동이 백제에서는 '지식(智識)' 결사로 활성화됐고 이 지식 결사운동은 일본 카와치 지방으로 전래돼 8세기 나라시대에 '지식(知識)'이라는 민간불교결사로 융성한 활동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고대사학회(회장 주보돈)가 18일 개최한 제51회 정기발표회에서 '삼국시대의 불교결사와 나라시대의 지식'을 발표한 도이 쿠니히코 교수(릿쿄대)는 "중국 북위 용문석굴 조상명에 '선지식'이란 명칭이 보이는데 이는 〈법화경〉의 내용으로 결사적인 의미는 인정할 수 없다"며 "결사로서의 선지식이라는 호칭은 고구려에서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단순한 명칭의 변화나 북위불교의 연장이 아닌 불교 교의의 창조적 재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고구려 신묘명금동삼존불광배에 새겨져 있는 '선지식'이라는 글은 조상자 집단이 자칭한 호칭으로 도이 교수는 이를 고구려에 있어서의 불교의 창조적 재해석이라고 추측했다. '선지식'의 조상사례로 백제 말기 조상된 계유명아미타삼존사면석상(癸酉銘阿彌陀三尊四面石像)에는 50인의 조상주집단이 '지식(智識)'이라고 자칭하고 있다. 고구려의 '선지식'이 백제지역에도 전파되어 단일 친족을 넘어 50인이라는 큰 규모의 지식이 결성된 것을 드러낸다. 사면석상과 같은 해 조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삼존천불비상(三尊千佛碑像)에는 조상주가 지식이 아닌 향도(香徒)로 돼 있는 것이 특이한데 이는 신라로의 귀속의식과 관련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이 교수는 신라에서 '선지식'이 결사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미 조상(造像)·사경(寫經)·조탑(造塔) 등의 활동을 벌이던 향도와 점찰법회(占察法會) 등의 결사활동이 있었고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지식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

日 인도학불교학회 50회세미나 세계 학자 250여명 참석

불교와 윤리·불전전산화 '집중논의'

9일 10일 양일간 일본 경도 용곡대에서는 인도학불교학회의 제50회 학술대회가 250여명의 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10개 부회로 나눠 열렸다.

1년에 한번 열리는 인도학불교학회의 학술대회는 일본 불교학계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로 특히 이번에는 정토 선 유식불교 등이 가장 인기를 끌었고 특별부회로 '불교와 윤리'에 대한 고찰이 시도됐다.

전세계적으로 4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학불교학회는 동경대 인도철학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적인 규모의 불교학회로 인정받고 있다. 매년 일본에서 열리는 학회에는 전세계에서 250여명의 학자가 10개 부서로 나눠 참가하며 시류에 맞는 불교사회적 문제를 집중토론하는 테마토론의 시간도 마련돼 환경, 인간복제, 불전전산화 등도 꾸준히 논의돼 왔다.

이번 50회 발표회의 한국 참가자는 △'의상의 법계연기관'-도업스님(동국대 교수) △'원효의 화쟁원리-화엄일심에 관해'-해주스님(동국대 교수) △'태고 보우의 선사상과 대혜선의 관계성'-혜원스님(동국대 교수) △'청량 진관의 법화경관'-혜남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사무량선에 대하여'-김형준 강사(동국대) △'밀교승 혜초의 재고찰'-이정수 등과 일본에서 연구하는 △'준장로의 행장에 대해서'-김지견 박사 △'의적의 정토사상에 있어서 신토관에 대해서'-종림스님(동대) △'균여 화엄학에 있어서 법화경관'-김천학(동경대) △'백제 미륵사연기에서 본 가람구조와 사상에 대해서'-이홍범(입정대) △'법화경 불심관의 구조에 대해서'-김영생(대정대) △'티벳 몽골 불교의 고려 전래에 대해서'-서일범(진각대학) 등이다.

강지연 기자

"사명대사 사상 유불회통"

한국불교硏 학술발표회 '사명당의 의의'

사명대사의 사상, 내면적인 갈등, 건봉사와의 관계 등을 조망한 '한국불교사에서의 사명당의 의의' 학술발표회가 17일 동국대에서 개최됐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이 주관하고 건봉사(주지 해장)가 주최한 이번 학술발표회에서 '사명대사 유정의 정토사상'을 발표한 정병조 교수(동국대)는 당시 불교계 풍토에서 사명당은 자성미타에 대한 견해와 타력적 정토신앙을 조화시킨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노자 교수(경희대)는 '삼국·통일신라·고려의 승병사를 통해 본 사명대사 의거의 의의와 인간적·종교적 비극'을,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건봉사와 사명당'을 발표했다.

"불경은 고차원의 문학작품"

사재동 교수 '한국불교문학의 연구…' 발표

충청불교문인협회와 중앙인문연구원이 주최한 한국불교문학 전국학술회의가 '한국불교문학의 실상과 문학사적 위상'을 주제로 11일 충남대에서 개최됐다.

학술회의에서 '한국불교문학의 연구현황과 전망'을 발표한 사재동 교수(충남대)는 "인도에서는 불경을 범어문학으로 취급하고 중국에서는 한·역불경을 번역문학으로 간주 고찰하며 일본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보편화되어 불교문학을 넓게 관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불경을 가장 고차원의 값진 문학작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불교시, 불전·승전·효행·강창문학, 불교희곡 등이 발표됐다.

러시아 불교연합

'로터스 달마센터' 등 18개단체 결성

비삭축제등 불교행사·유물등 소개

90년대 이후 불교계와 기독교계의 포교 각축장이 되어 온 러시아에서 불교의 교세는 어느 정도일까. 98년 4월 결성된 '러시아불교연합' 사이트를 방문하면 러시아에서의 현 불교 교세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러시아불교연합은 개별적인 활동에 치중해 왔던 러시아 내 불교단체들의 역량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현재 러시아에서 일고 있는 각 종교간 포교 열풍 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로터스 달마 센터' 등 18개 주요 불교단체들이 모여 결성했다. 또 국제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사이트도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러시아불교사 △불교유물·유적 △불교단체 △뉴스레터 등의 메뉴를 개설해 놓고, 이 곳의 불교세를 알리는 갖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불교협회에서 개괄해 놓은 '러시아불교사'에 따르면 러시아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몽골이나 중국 또는 티벳을 통해 18세기 이전부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근래까지 영향은 미미했다는 것.

반면 학문적인 견지에서 러시아의 업적은 세계불교학계에서 결코 낮게 평가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베토링크, 로드, 슈미트, 프란츠 등 수많은 불교학자를 배출해 이른바 '러시아 불교학파'를 형성할 정도라는 것.

또 러시아불교연합 사이트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젊은이들이 불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으면서 불교의 교세는 더욱 커져갔으며, 현재 전체 인구의 0.1%에 해당하는 40여만명이 불교도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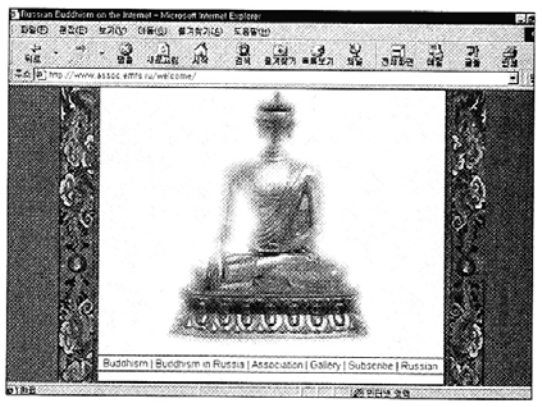
'불교유물·유적'에서는 러시아 부리야트, 칼마크스, 투비니안스 지역 불교사원을 소개하고 있다. 몽골과 인접한 이 지역은 18세기부터 불교문화의 요충지. 그러나 볼세비키혁명 이후 이 지역의 사원들은 파괴되고, 스님과 불자들이 박해를 받았다. 29년에는 사원이 폐쇄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37년에는 부리야트에 남아 있는 마지막 사원까지 폐쇄되는 등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이 메뉴에서는 부리야트에 있는 대표적인 사찰 돗세트 사원, 러시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비삭축제'의 전경등 32장의 유물·유적 그래픽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각 사진들은 가져오기를 할 수 있다.

'불교단체'에는 러시아불교연합에 가입된 단체가 색인되어 있다. 여기에는 '닷산 룬츠세초 이네이 불교사원' '로터스 달마센터' '티벳불교 연구소' '모스크바 불교센터' '사카이 페테르부르그 불교회' 등 18개 불교단체의 간략한 소개와 홈페이지·전자우편 주소가 수록됐다. 대부분 티벳불교계 단체들로 구성된 러시아불교연합 소속 단체 가운데 한국의 연등국제불교 원명스님이 91년 타슈켄트에 설립한 정각사와 숭산스님이 모스크바에 개원한 관음선종 지부 등이 눈에 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assoc.emts.ru/welcome/





부처님 친견 · 정토왕생 안내

관무량수경 (中)

경전 속의 禪 사상 35

글쓴이

강동균
〈동아대 철학과 교수〉

극락 염원하며 아미타불에 귀의
觀은 실천의 뜻 '염불→보살행→견불'

중국에서는 4-5세기에 '관(觀)'이란 용어가 매우 많이 쓰였다. 그것은 '관불(觀佛)'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전들이 연달아 번역되었기 때문이였다.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관보현보살행법경(觀普賢菩薩行法經)〉·〈관허공장보살경(觀虛空藏菩薩經)〉·〈관미륵보살도솔천경(觀彌勒菩薩兜率天經)〉·〈관약왕약상이보살경(觀藥王藥上二菩薩經)〉 등이 그것이다.

앞에서 '관(觀)'이라고 하는 말에는 '관견(觀見)'과 '관지(觀知)'의 두 가지 뜻이 있음을 말했다. '관견'이란, 극락 정토의 아름답고도 불가사의한 장엄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을 말하며, '관지'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는 절대 신심을 말한다. '관불(觀佛)'에도 역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의미를 설명하기로 한다. '관불(觀佛)'은 '염불(念佛)'과 '견불(見佛)'과 '신불(信佛)'의 뜻이 있다.

도작(道綽)이 저술한 〈안락집(安樂集)〉에서는 '관불(觀佛)'과 '염불(念佛)'이 함께 언급되고 있지만,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말하자면 '관불'은 바로 '염불'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이다. '관(觀)'은 '염(念)'이라는 말이다.

한편 〈관무량수경〉에서는, '관불'의 결과로서 부처를 친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관불(觀佛)'은 '견불(見佛)'로 이어진다는 말이다. 이 부분은 신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는 말이다.

세친(世親)이 지어서 담란(曇鸞)이 주석을 달았던 〈정토론(淨土論)〉과 〈논주(論註)〉에서는 정토의 아름다움과 모든 중생이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신앙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면서, '관불(觀佛)'은 '신불(信佛)'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라고 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다.

왜 '관불'이 '염불'이며, '견불'이며, '신불'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불교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며 음미해야만 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여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모든 중생이 여래의 덕상(德相)을 구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중생이 모르기 때문에 법을 설하여 가르침을 펴게 되는 필연적인 여래의 불가사의묘용(不可思議妙用)에 대한 요청이 불가피하다. 일체중생이 모두 여래의 덕상(德相)을 지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 그대로의 상태로 곧 '성불'하는 것은 아니다.

〈유마경(維摩經)〉을 비롯한 많은 대승경전에서 '사바즉정토(娑婆卽淨土)'·'생사즉열반(生死卽涅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여(眞如)의 세계는 중생을 떠나서 있을 수 없으며, 중생은 곧 각자(覺者=佛陀)인 것이다. 동시에 중생은 중생인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근거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교법(敎法)에 있는 것이지 중생의 지해(知解)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여래의 금구성언(金口聖言)에 대한 '믿음'이 먼저이며, 성불에 대한 '지해(知解)'는 모두 '교법(敎法)에 의거해서 성립되는 분별지(分別智)'이기 때문에 모두 '기사(棄捨)'하여야 하며 오직 여래의 무한한 자비에 포용(包容)되는 것만이 곧 성불의 길인 것이다.

설법에 의해서 모든 중생이 구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체중생의 요청이며, 그 요청을 무시해서 붓다가 '보리수 밑에서 도를 이루는 것(樹下成道)'만으로 끝나 버린다면 그것은 소승의 깨달음에 지나지 않는 독각(獨覺,Pratyeka-buddha)인 것이다.

붓다가 소승의 범주를 벗어나서 녹야원으로 나아가게 된 전기가 '발보리심(發菩提心)'이며 설법으로까지 이끈 힘이 '본원(本願)'이며 '보살행(菩薩行)'인 것이다. 이 '발보리심'→'보살행'으로 연결되는 방정식이 바로 불교의 시원(始源)이며, 대승불교(大乘佛敎)의 기점(起點)이 되는 것이다.

우리 불자(佛子)들이 '관(觀)'해야 할 부처님은 바로 이런 부처님이라야 하고, 중생의 '관불(觀佛)'은 곧 '염불(念佛)'이라야 하고, 견불(見佛)'이라야 하고, '신불(信佛)'이라야 하는 것이다.

과학산책

카시미르 효과



지난 호에 우리는 고전역학에서와는 달리 양자역학에서의 진공은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입자와 그 반입자의 자발적 창조와 소멸 등의 활동에 진공에너지가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데 우리는 이 같은 양자장(입자의 창조와 소멸이 일어나는 장)의 변화를 요동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배웠다. 진공은 아무것도 없고 활동이 없는 그 무엇이 아니고 모든 가능성이 가득하고 매우 활동적인 그 무엇이다. 이러한 다소 믿기 어려운 사실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가? 물리학은 이론이 실험에 의해 뒷받침 받을 때에만 그 이론을 공인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양자 진공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적 증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도 간접적인 방법은 있다. 이 같은 양자 요동이 존재한다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두 개의 입자 사이의 전자기장은 맥스웰의 방정식에 의한 고전적 장 해석으로는 정확하게 계산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측정되는 전자기장은 양자 요동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장의 평균인데 각 장들은 주어진 요동이 발생할 확률에 따라 가중치가 매겨진다. 대부분의 현실적인 경우에는 이 양자 요동의 효과는 상당히 작다.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거시적인 두 물체 사이의 전자기장

양자진공의 실험적 증명
두 금속판 마주보게 놓으면 밀도차이로 서로 끌어당겨

마주 보도록 가까이 놓으면 대단히 작지만 금속판은 서로를 끌어당길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이 끌어당김의 정도를 계산하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진공 중에 있는 수많은 에너지의 파장 중에 두 금속판 사이의 거리에 맞는 파장들은 그 판 사이에 존재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지 못하게 된다. 이는 마치 손가락을 띄어 구멍을 열거나 손가락을 대어 구멍을 닫거나 하여 관의 길이를 조절하여 높이가 다른 소리를 내는 피리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손가락을 특정 구멍에 갖다대어 특정 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피리의 구멍에 따라 정해진 관의 길이로 인해 특정 파만 피리 내부에서 진동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두 금속판 사이의 특정 거리는 진공 중에 있는 특정 파만을 관 사이에 담게 한다. 이렇게 되면 판사이에 있는 에너지는 판 밖의 에너지 보다 밀도가 적아지기 때문에 판 사이의 거리가 좁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즉 진공상태에서 판 사이와 판 바깥의 에너지의 밀도 차이로 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대학에 있던 라모레아욱스(Lamoreaux)는 카시미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정교한 실험을 했다. 라모레아욱스는 도금된 수정 표면을 사용하여 실험을 했는데 이 판에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의 힘이 발생했다. 이 숫자는 지구 중력장 속에서 한 개의 적혈구의 무게에 해당한다. 실험은 카시미르의 예견과 5%내의 오차를 보였다.

그러나 카시미르 효과를 양자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실험에 쓰인 금속판을 형성하는 원자의 움직임에 의해 형성된 반델발스(van der Waals) 힘에 의한 효과로 계산하여 위에서 언급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

어떤 이론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두 이론 다 옳은 것인가? 아니면 장님이 코끼리의 일부분만을 만졌으면서도 코끼리의 전체모습을 단정하는 것처럼 성급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실험적 한계, 인식의 한계를 고려하여 고정되게 보는 습성을 늘 경계해야 한다.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16

말(馬)의 웃음 ①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참을성'은 물질주의를 숭상하는 현대사회에서 별로 대단찮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에는 온갖 인스턴트 제품이 범람하는 바람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거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그 즉시로 그것을 손에 넣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을성이 매우 약해져서 혹시라도 구하는 것을 곧바로 못 구하는 경우가 생기면 단박에 심란해져서 "세상 살맛없어" 라고 투덜대거나 성을 내곤합니다.

하도 이런 불평소리를 많이 듣다보니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불평거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구나 싶을 지경이다. 그렇지만 가령 파업 때문에, 또는 사람들이 신속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해서 우리의 성에 차지 않을 때 어쩌겠습니까, 기다리며 참아내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좌선하고 있는 중에 우리의 몸 속에서 고통스런 느낌이 일어나거나, 자신이 얼마나 참을성 없게 그 고통을 면해보려 버둥대고 있는지 한 번 관찰해 보아야 한다. 열이 나거나 병이 들었을 때도 그 몸의 불편이나 고통을 얼마나 속상해하고, 조급하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 쓰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이렇듯 버둥대고 속상해 한다면 정신적 발전을 기약해 볼 틈이 없다. 그러니 이런 때야말로 참을성이라는 덕목을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행길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빗나가게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깨달음에 속성과정 있나
'인스턴트 禪' 수행 빗나가기 쉬워
인내가 삶의 일부될때 정신 성숙

이를테면 '인스턴트 선(禪)을 공부할까보다' '이렇게 기약없이 불교에 매달려봐야 괴롭기만 할 뿐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정말이지 지금 당장 빨리 깨쳐버리고 싶단 말이야' '이처럼 지긋지긋한 일들을 하면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순 없는 일 아닌가' '시간만 허비하면서 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나' '어디 시원하게 속성과정을 밟든가 기막히게 효과적인 알약이나 기계장치를 써서라도 금방 깨닫게 되는 길은 없을까?' 등.

미국에서 엘.에스.디(LSD) 환각제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약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속성법이라고 떠들어댔지요. "이 약 한 알만 삼켜보십시오. 그러면 뭐든지 훤하게 알게 될 테니까요! 구태여 번거롭게 승려가 되어 절에서 눌러앉아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한 알만 복용하면 단박에 깨달을 테니까요. 약사나 마약 취급자만 찾으면 됩니다. 달리 애쓰고 있을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몇 번 엘.에스.디를 먹고 환각상태를 맛본 연후에야 사람들은 깨달은 것 같던 기분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은 전보다도 더 못한 상태, 참을성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참을성'이 우리의 삶 일부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태국에서는 특히 동북부에 있는 숲 속 사원에 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성을 기를 수 있는 현장을 엿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곳 생활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참고 견뎌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는 온갖 불쾌한 육체적 경험부터 견뎌내야 한다.

오종욱기자

안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시방세계

인터넷 전자신문 현대불교 http://news.buddhapia.com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관음보살님 왜 호미드셨나요"

경남진영 봉화산 정토원 '호미든 불상' 새로 모신다

40년전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 31명 불교사회운동·농촌계몽발원 조성

호미 갈라지고 몸체 얼룩져 다시 세워 10월 30일 점안식갖고 10만불자 정토결사



◇1969년 봉안된 호미든 관음성상. 현재는 108참회계단 입구에 서 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휘돌아가는 3개시 13개 읍면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경남 진영군 한림면 본산리 봉화산. 시계가 탁트인 정상에 세계유일의 호미든 관음성상이 우뚝 서 있다. 단 3.5m. 보살상 6.5m, 총 10m 높이로 자애로운 미소를 띤 관세음보살이 한손엔 호미를, 한손엔 버드나무가지가 들어있는 감로수병을 들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봉화산 부처님을 향해 합장인사하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관례가 되고 있는 이 관음성상은 40년만인 지난 14일 새로 조성되어 모셔졌다.

40년전인 1959년 4월 5일, 6·25 전쟁후 암울했던 사회체제와 비구·대처싸움으로 불교분규가 극에 달했던 당시, 선진규(봉화산 정토원 원장) 김지견(前 정신문화연구원교수) 이봉구(사업가) 이종복(前 정광고 교장)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김인덕(동국대교수) 박완일(前 전국신도회장) 박동기(前 동국대교수) 김두성(정광고교장)씨는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을 주축으로 20대 초반의 젊은 불자 31명은 불교혁신을 부르짖으며 호미든 관세음보살님을 산 정상에 모셨다.

왜 호미를 들었을까?

당시 사회는 전쟁의 휴유증으로 국민 대다수가 굶주렸다. 동란후 남북의 냉전이 심각하던 때라 통일의 가능성은 엷어지고 있었다. 부정부패가 극심했고 우리민족의 삶의 터였던 농촌의 농민들은 남부여대해 도시로 도시로 몰려드는 등 사회가 어수선했다. 정치·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서가 극도로 불안해진 국민들을 위해 봉상은 5천년 역사 생존도구의 상징인 호미를 든 것이다. 젊은 불자들이 농촌계몽운동을 하며 모신 '호미든 관음개발성상'에는 심신, 사회, 사상, 경제 개발이라는 4대 정신사업이 담겨있다. 호미는 잡초를 뽑고 씨앗을 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희망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민족정신의 개조와 개혁의 의미를 상징한다.

선진규원장은 "1959년 4월 5일 가진 봉불식에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인파인 지역주민 5천여명이 참여해 실천사업으로 민둥산이었던 봉화산일대에 소나무 5만그루를 심는 등 희망의 식수를 하여 전국적인 화제가 됐어요"라고 회고한다.

40년동안 봉화산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나라의 변화는 눈부셨다. 4.19를 비롯해 격변하는 역사를 관음성상은 묵묵히 지켜보았다.

봉화산 정토원은 교계최초로 1983년 청소년수련원(원장 선진규)을 건립했으며 1991년 건평 3백35평 3층규모의 현대식 수련원을 완공하여 지역청소년들의 요람지로 매년 1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한문서당이 개설돼 매년 6백여명이 이수하며 전통문화를 배우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해 명사초청 교양강좌등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쳐지고 있다.

경제개발의 서원도 성취를 했다. 보리고개를 걱정하던 한국인들은 90년대 들어 생활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이웃 불교국가와 굶주린 북한동포도 돕고 최근에는 IMF도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다.

1959년 당시 어려웠던 경제상황의 탓으로 인조석으로 만든 관음상은 어느덧 40년을 지내는 동안 호미는 갈라졌고 몸체는 구석구석 얼룩이 지고 과불이 되어가 불상은 봉화산 정상에서 내려와 108 참회계단 입구에 세워졌고 14일 새로 제작된 불상이 모셔진 것이다.

때마침 불교계에는 도시와 농촌이 손을 맞잡고 상생(相生)의 정토를 가꿔나가자는 '인드라망 생명공동체'가 11일 창립, 현대사회의 생명위기 환경위기상황을 부처님의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웃과 나누는 대승적 실천신행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호미든 관음성상 봉안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물질문명에 경도된 타락한 정신, 탐욕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몰아버리고 인성, 화합, 자비를 심고 남북통일을 이루어내며, 나아가 정신문화운동이 열매맺기를 발원하며 21세기를 향해 관세음보살님은 다시한번 힘차게 호미를 잡은 것이다.

정토원

소나무 5만그루 식수 청소년 수련원 개원 지역주민 교양강좌 21세기 준비 정진도량

축광물질을 넣어 만든 봉상의 백호에는 남북통일속성취 기원 정토결사 전법도량 불교중흥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새로 조성된 호미든 관음상의 점안식과 이를 축하하는 부대행사가 오는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열린다.

30일 오전 11시에는 점안식을, 오후 2시에는 1만여명의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봉불식을 봉행한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전국신도회 10만불자 정토결사정진대회도 갖는다. 정진대회에서는 정토운동결사 대토론회를 가진뒤 전국순회법회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31일 11시에는 지역불자들과 함께 정진대회를 회향하고 오후 2시부터는 제 11회 청소년 축제가 열린다. 참가청소년들은 기원문을 작성하여 호미든 관음성상에 봉안하게 된다.

한손에는 자비의 상징인 버드나무가지가 꽂힌 감로수병을, 한손에는 심신·사회개혁의 상징인 호미를 든 관음보살님은 우리들에게 다시한번 정신문화개혁을 하도록 요구하며 새롭게 서 있다. 한국불교의 변혁을 촉구하며….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진리추구 통일기원 경제발전 등의 염원을 담은 호미든 관음보살상이 봉화산 정상에 다시 봉안됐다. 3.5m의 단위에 우뚝선 6.5m의 관음성상은 한손엔 호미, 한손엔 버드나무가지가 꽂힌 감로수병을 들고 중생계를 바라보고 있다.



◇봉화산 정토원 법당은 무량수무량광 아미타 정토도량이다.



◇봉화산 한문서당에서 안성교육의 일환으로 참선수련을 지도받고 있는 청소년들.



◇토우에서 볼수있는 회화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특징인 이천소고리 마애삼존불중 본존불.

마애불을 찾아서

이천 소고리 마애삼존불

회화적이고 과장된 표현 '특징' 고려중기 제작…향토유적 지정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소재한 이 삼존불은 남서쪽을 향한 편편한 자연석 면에 돋을새김으로 조각되었다. 이 석불은 신라시대의 토우나 미개종족의 신상에서 볼 수 있는 회화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특징이다. 바위면 상단에는 원호의 배수구가 마련되어 있고 하부에는 본존에만 연화좌대가 있으나 지금은 매몰되어 있는 상태다. 중앙의 본존(303cm)은 굵은 선으로 두광이 있고 머리에는 관모형의 소발이 있으나 보관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다. 얼굴은 긴 편으로 이목구비가 도식화되어 있고 목에는 삼도가 있으며 가슴에 대칭형 사선을 그어 법의의 의문을 나타냈다. 양손 손가락을 벌려 손바닥을 내향(內向)해서 가슴에 대었고 하단에는 결가부좌한 오른쪽 발바닥만이 외향하고 있다. 키 69cm의 좌협시보살 역시 굵은 선의 두광이 있고 머리는 땐머리인듯 하며 양손을 가슴에 마주 모으고 있다. 키 93cm의 우협시보살은 머리에 높직한 관모와 삼도가 있으며 양손을 가슴앞에서 합장하고 무릎 가운데 발바닥이 표시되어 있다. 조성연대는 고려중기 이후로 추정되며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됐다. 글·사진=불자포교사진연합회 제공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99.9%)카드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해탈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엔씨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위에 새겨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24366호) 했다. 천만불자 특별 보시 보급품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는 알맥에 달마도의 대가 매헌 윤종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벗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적, 이름 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세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정신 달마도를 고급 포구백자(27cm×32cm)화판 백자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매헌 윤종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순금판 상반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 1만원, 3개(set) : 2만원에 판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원: 한국 지.엔.씨 (24시간, 공휴일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

■봉화산 정토원 선진규원장

"통일-불교혁신 염원 담았어요"



"40년전 호미든 불상이 당시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발원위에 세워졌다면 이번에도 남북통일과 불교발전, 민족화합등 이 시대의 염원을 담고 봉안됐습니다." 관세음보살은 32응신과 천수천안을 가지고 있는데 호미든 모습은 시방세계에 구현하는 모습중 첫 시도일 뿐이라고 말하는 선진규 봉화산 정토원 원장(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40년간 불교청년운동과 농촌활성화를 통해 불교의 잠재력을 키워온 인물.

선원장은 "불교도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행방식등을 응용해야지요"라며 포용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선진규원장은 지역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생활불교운동을 펼쳤다. 부인 김기업(66·전 보건복지부 가정보건국장)씨와 인근 신용리에서 야간학교를 하던 선진규원장은 봉화산에 부지를 확보하고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오늘의 청소년 수련원인 정토원을 완성했다.

■'호미든 불상' 다시 제작한 박일헌씨

"40년만에 다시 인연 감개무량"



"젊은시절에 첫 조성하고 40년만에 다시 조성하는 인연을 만나니 감개무량합니다"

호미든 불상의 불모 박일헌(예원인테리어 대표)씨는 어느덧 머리카락이 희끗거리는 62세가 됐다. 불상을 처음 조성할 당시 나이 21세, 홍익대 조소과에 다니던 학생이었다. 유래가 없는 호미든 관음성상을 처음 제작하기 위해 석고로 조형물을 깎는 등 신경을 많이썼다는 박씨는 공간구성에 애로가 많았지만 새로운 이미지의 불상조성이라 제작하는 즐거움도 컸다고 말한다.

이번에 또다시 호미든 불상을 조성하기 위해 정토원에 4개월간 기거하며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사상까지도 담을려고 노력했다는 박씨는 "전통을 살리면서 시대정신을 담은 불교미술품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인조석을 재료로 해 40년만에 파불(破佛)된 것이 안타까웠다는 박씨는 이번 관음성상은 유리섬유와 FRP(강화플래스틱)를 바탕으로 독창적으로 개발한 혼합재료로 만들었다며 몇백년이 지나도 거뜬할 것이라고 말한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⑩

得到大休大歇之地 如云頓悟雖同佛
득도대휴대헐지지 여운돈오수동불
多生習氣深 風停波尙湧 理現念猶侵
다생습기심 풍정파상용 이현념유침

이것은 '단박 깨치면 부처와 같지만 여러 생의 습기가 깊구나. 바람은 그쳤으나 물결은 아직 출렁이고, 이치는 나타났으나 망념은 엄습한다' 하는 말과 같다.

又圭禪師云 往往利根之輩 不費多力
우고선사운 왕왕이근지배 불비다력
投發此事 便生容易之心 更不修治
투발차사 변생용이지심 갱불수치
日久月深 依前流浪 未免輪廻
일구월심 의전유랑 미면윤회
則豈可以一期所悟 便撥置後修耶
즉기가이일기소오 변발치후수야
故悟後 長須照察 妄念忽起 都不隨之
고오후 장수조찰 망념홀기 도불수지
損之又損 以至無爲 方始究境
손지우손 이지무위 방시구경
天下善知識 悟後牧牛行是也
천하선지식 오후목우행시야

故云雖備修萬行 唯以無念爲宗
고운수비수만행 유이무념위종
圭峰總判先悟後修之義云 頓悟此性
규봉총판선오후수지의운 돈오차성
元無煩惱 無漏智性 本自具足
원무번뇌 무루지성 본자구족
與佛無殊 依此而修者 是名最上乘禪
여불무수 의차이수자 시명최상승선
亦名如來淸淨禪也 若能念念修習
역명여래청정선야 약능염염수습
自然漸得百千三昧 達磨門下
자연점득백천삼매 달마문하
展轉相傳者 是此禪也
전전상전자 시차선야
則頓悟漸修之義 如車二輪 闕一不可
즉돈오점수지의 여거이륜 궐일불가

그러므로 '온갖 행을 다 닦으나 오직 무념으로 근본을 삼는다.' 하였다. 규봉스님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뜻을 총괄하여 말하기를 '이 성품은 원래 번뇌가 없고 완전한 지혜와 성품이 본래 갖추어져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단박 깨닫고, 이 깨침에 의해 수행하면 이것을 일러 최상승선(最上乘禪), 또는 여래청정선이라 한다. 만약 생각 생각에 닦고 익히면 저절로 차츰 차츰 백천삼매를 얻을 것이니, 달마 문하에서 서로 전하여 내려온 것이 바로 이런 선(禪)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이치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없으면 안된다.

雖有後修 己先頓悟妄念本空
수유후수 기선돈오망념본공
心性本淨 於惡斷 斷而無斷 於善修
심성본정 어악단 단이무단 어선수
修而無修 此乃眞修眞斷矣
수이무수 차내진수진단의

또 대혜 종고(宗杲)선사도 '가끔 영리한 무리들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이런 이치를 알고는 아주 쉽다는 생각을 내어 다시는 닦지 않는다. 그대로 세월이 가면 그전처럼 유랑하게 되어 윤회를 면치 못하게 된다' 하였다. 그러니 어찌 한번 깨쳤다 하여 뒤에 닦는 일을 버릴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깨친 뒤에도 늘 비추고 살펴서 망념이 홀연히 일어나거든 따르지 말고, 덜고 또 덜어서 무위에 이르러야 비로소 구경(究境)이니,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뒤에 소먹이는 행이 바로 이 때문이다. 비록 뒤에 닦는다고는 하지만 이미 망념이 본래 공하고 심성은 본래 청정한 것임을 먼저 깨쳤기 때문에 악을 끊되, 끊어도 끊음이 없고, 선을 닦되, 닦아도 닦음이 없어야 이것이 참다운 닦음이고 참다운 끊음이 되는 것이다.

或者 不知善惡性空 堅坐不動
혹자 부지선악성공 견좌부동
捺伏身心 如石壓草 以爲修心
날복신심 여격압초 이위수심
是大惑矣 故云聲聞 心心斷惑 能斷
시대혹의 고운성문 심심단혹 능단
之心是賊
지심시적

혹 어떤 사람은 선과 악의 성품이 빈 것임을 알지 못하고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조복받기를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 하지만 그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적이다.' 하였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 하지만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적이다

큰스님 수행한담

"내가 한번 참으면

경우스님 〈충주 신흥사 조실〉



· 1930년 충남 예산 生
· 46년 영월 법흥사 해송스님 은사로 출가
· 65년 신흥사 운송스님 계사로 사미계수지
· 75년 대흥사 법우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 81~98년 대한법화종 종회의장, 충북교구종무원장 등 역임
· 94년 종사법계 품수
· 98년 해동종 종정
· 99년 충주사암련회장
현재 충주 신흥사에 주석

인욕자 혜안통투(忍欲者 慧眼通透). 욕망을 참는 사람은 지혜의 눈이 크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인욕은 모든 수행과 실천에 근본이 되기 때문에 잘 실천하거나 남을 위해 설해주면 무량무변의 복락을 얻게 됩니다.

내가 수행의 길로 들어섰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승려에 대한 멸시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여건도 스님들이 존중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찰의 경제도 넉넉치 못해 대중들을 위한 교화활동이 미진했기 때문에 스님들의 위상이 그다지 높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탁발을 하러 나가면 잘 알 수 있었지요. 열가구 정도 방문해야 겨우 한 가구에서 시주를 받을 뿐 대부분 문전박대 받기 일쑤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입산해 바로 탁발을 위해 거리로 나선 나는 누구보다 참기 어려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수행자의 길을 걷기에 앞서 이 모멸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큰 관건이었습니다.

나는 16살 때 강원도 사자산 법흥사에 주석하고 계시는 해송스님을 은사로 입산했습니다. 해송스님은 엄격하신 분이셨습니다. 3개월동안 스님을 시봉했는데 스님은 탁발나갈 때마다 나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인들에게 업신여기고 괄봄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험난한 수행생활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스님은 내가 느끼는 모멸감의 원천이 내가 '나'라고 하는 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그때부터 나는 '아상(我相)'에 집착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상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상을 버려야 겠다는 결심은 확고한데 실행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지금도 아상을 끊기 위해 밤낮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중생계의 마음 작용이 아닌가 의심도 해 보지만 중생계의 벽을 허물고 깨달음의 세계로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법흥사 행자생활은 그 자체가 고행이었어요. 그중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배고픔을 참고 정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양거리가 넉넉치 않아 죽으로 연명할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게다가 호랑이 같은 은사스님의 불호령은 무엇보다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다 한 게송이라도 틀리면 온갖 질타와 회초리가 사정없이 날아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외는 놈이 무슨 중이 되겠다고 여기까지 왔느냐'며 당장 절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그러한 스님이 안 계셨으면 누구도 행자생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율이 엄격하시고 승려의 도리에 대해 철저하신 분이셨지요. 스님의 투철한 선지와 수행관을 배우려고 수좌들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인 배고픔까지 참아가며 엄격한 지도를 감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출가수행자들에게 있어 정신적 사표가 되는 큰스님에게 직접 지도받으며 수행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나는 수행을 참는 것 즉 '인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음으로써 상대편에게 이익을 줌은 물론 해탈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지요. 참기 위해서는 항주좌와 모든 순간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염불하며 일하며 밥하며
늘 어디서든 인욕수행 하세요
아상 깨뜨리는 길 열려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간혹 마음이 혼란할 때는 부처님을 찾아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지요. 그렇다고 경전에 묶여서는 안됩니다.

부처님을 찾는 것은 고정화된 가치에서 벗어나 어리석음과 미망을 깨뜨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참회와 발원을 하는 순간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평화를 얻을 수 있고, 평화를 얻으면 밝은 지혜의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이같은 참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아무리 험난한 고행의 수렁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겨 보리를 증득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부처님을 찾는 까닭은 선지(禪旨)를 발견하고 실천하여 불법의 큰 뜻을 깨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참선, 묵언, 염불, 간경 등 여러 가지 수행방편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욕수행을 주로 합니다.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정진하고 있는 순간에는 수행이 잘 되는데, 일단 세속에 나와 이것저것 보고, 듣고, 냄새 맡으면 문제는 달라지더군요. 삼독심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나는 선방에서의 수행보다 대중속에서의 수행을 더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대중속의 모든 탐욕과 유혹에서 흔들림 없는 수행자가 돼야 진정한 수행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선방수행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결과 순간순간 대상을 향해 날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마음을 살피고 안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혹도 이겨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상계는 무섭습니다. 〈법화경〉에 '실상계를 무시하지 말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라 그러나 있는 자체가 영구불변하다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변해버린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지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선을 한다는 것은 육신을 붙들여 매야 하지만, 인욕수

신 개 발 품


김시연스님

시·연·쑥·뜸·기

난치병에서 피부미용까지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았습니다.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뜰 수 있습니다.
한의사 대체의학 연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복통치료장면


▼어깨결림 치료장면


○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의학상 외과수술외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전부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 독일의 헤리 베르르 수미트 박사는 쑥뜸법은 동양 의학에서는 과거의 유물일지 모르나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의학이며 장래성 있는 의학이다.
○ 일본의 원지명태량 의학박사는 쑥뜸의 새로운 연구는 의학 최종목적인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양면을 동시에 해결케 해준다고 하였다.

· 각종질병 쑥뜸의 효능 ·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견비통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당뇨병	요통
전립선	조루증	냉증
피부병	생리통	위장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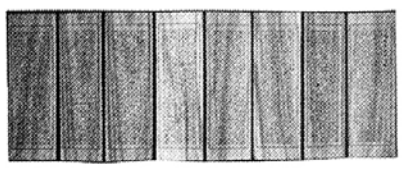
♣몸 어느 한곳이라도 좋지 않은 분은 本社 제품 꼭한번 사용하세요.
♣「시연 쑥뜸기」는 아픈 곳이 곧 치료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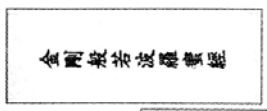
만병의 원인은
피가 탁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인데 쑥뜸을 뜨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하여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되어 병이 치유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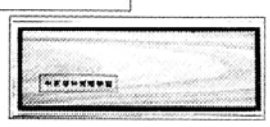
■판매원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 ■제조원 : 도훈건강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38
053-628-9145 / H.P 011-808-8880
입금계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가격 : 200,000원(1set)
압축쑥 1개월분(50,000원), 쑥뜸기일체, 안내책자(12,000원)포함

향나무 금강반야바라밀경 병풍


전 면


◀고금 오동나무 BOX

금강경 병풍▶


★최고급 먹싹신쇄(붙변)
◆차례나 성묘(직접 지니고) 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전 공부할 때 경상위에 놓으면 다른 사물에 방해되지 않게 정진할 수 있습니다.
◆사찰(방문객 및 귀빈등)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불자님들은 각 가정에 한점씩 소장하세요.
■규격 : 8폭, 크기 : 가로 102cm × 세로 38.7cm
▶가격: ₩50,000 (고급 오동나무 Box 포함)

향나무 특징

향나무는 예로부터 잡귀를 막고 깨끗이 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나무를 몸에 지님으로 행운을 가져온다는 옛부터 전해내려온 덕담도 있습니다.

향나무 명함

수제품으로 천연의 나무질이 그대로 나타나고 은은한 자연향이 발산되며 찢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습니다. 귀하의 연락처를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며, 결코 값싼 명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석선물로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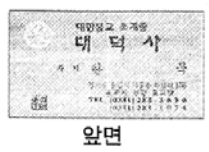
향나무 명함


달마

佛자

법회

※ 뒷면 원하시는 글 · 그림을 넣어드립니다.
※ 스님 천분을 모시고싶습니다.
※ 존경하시는 분에게 선물이나 홍보용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 예

앞면

뒷면

스님 신도님에게 한장씩 보시하시면 오래토록 간직합니다.

전화주시면 샘플을 보내드립니다.
☎0331-286-2371

실용신안등록 No. 17386
▶가격: 30,000원(2통 100매)
50,000원(4통 200매)

주문처: 마하몰 02)732-1522, FAX 02)737-0697 / 향목명함 0331)286-2371, 011)262-4371

큰스님 수행한담

이웃이 편안해져요”



◇1977년 11월 6일 충주중원불교삼보회(現 충주사암연합회)가 충주여고 강당에서 불교강연회를 개최했다. 서있는 스님들 가운데 왼쪽에서 6번째가 경우스님.

“참회를 많이하면 할수록 苦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겨요”

행은 육신을 붙들어 매지 않아도 됩니다. 염불하면서, 일하면서, 밥하면서, 화장실에서 늘 어디에 있든 인욕수행은 가능하지요.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면서 그 마음자리를 확연히 보았을 때 그 수행자는 완전히 보살도의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다른 스님들은 여러가지로 말씀하십니다만 나는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연구해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수행에 가장 기초적인 덕목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당신의 마음을 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다고, 수행을 오래했다고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수행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을 벗어나면 중생계의 오욕으로 말미암아 삼독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독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겠지요. 그것은 참는 것 즉 인욕이지요. 참는 이 길만 잘 닦는다면 다른 수행은 저절로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중들에게 좋은 일은 하루에 한번씩 하라고 당부합니다. 좋은 일을 찾는 다면 얼마든지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주고, 옷없는 사람에게 옷주는 것은 남에게 주는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작은 좋은 일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만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대중적인 일, 마음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참는 일 즉 인욕입니다. 식구가 다섯일 때 내가 화를 내면 다섯이 모두 불안해 마음을 떨지요. 또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요즈음 다세대 주택이 많은데 한집에서 우당탕 퉁탕거리면 ‘저집은 왜 그럴까’하고 이웃사람들을 걱정에 빠뜨리고 공포에 떨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이상 더 남을 괴롭히는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참는다는 것이 왜 좋은 일이냐하면 나 하나 참으면 식구가 다 편하고, 이웃이 다 편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기본덕목은 ‘마음을 비우는 것’
“상대방 편하게 해주는 것이 자비실천”

옛조사들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이같은 인욕수행이 근간이 됐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속세에 나와도 흔들림 없고 당당했던 것입니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듯이 수행자의 눈을 보면 수행의 척도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행자들은 ‘눈푸른 납자’가 되기 위해 정진에 또 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노스님들은 ‘옛 스님들이야말로 진정 스님다웠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전통적인 험난한 수행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온몸에서 수행자의 진한 향기가 풍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런 수행을 한 스님들은 어른 스님을 모시는 법도에서도 남다릅니다. 옛 스님들은 스승을 무서울 정도로 존경하고 받들었습니다. 나는 원로다운 원로가 없고 원로를 존중하지 않는 지금의 승가현실을 바라보면서 가끔 옛스님들이 가르침을 주시던 때를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아버님도 스님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스승에 대한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사실 나는 법흥사로 출가했지만 군제대 후 아버님인 운송스님을 은사로 재출가를 했습니다.

운송스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괜찮다. 그러나 정신만은 잃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불성을 찾으라는 뜻이었지요. 육신을 버린다 하더라도 정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혼탁해져서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주관을 살리라는 뜻도 되고, 이것이 부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된다고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팔만 사천의 법문을 아래 위로 쭉 훑어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부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팔만대장경 글자 한 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이득을 줘서 흡족하게 해 줄 수 있을까, 이같은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을 올바로 믿는 불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 까지는 ‘나’라고 하는 아상을 버려야 됩니다.

조사스님들은 ‘마음을 버려라. 모든 것을 비워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때로는 순간 순간 나도 모르게 삼독심이 발동돼 큰 소리를 낼 때도 있고, 상대편의 마음을 자극하는 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작은 경계에 따른 마음조절 하나 제대로 못하고 툭하면 화내고 분별하고 상을 짓는 예가 허다합니다. 욕심 채우려고 수행에 매달려 있는 믿음의 견고함은 바위 같을 지 모르나 겨꾸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정진을 아니함만 못한 법이지요. 그래서 나라는 집착과 환상을 버리기 위해 눈을 뜨고 있건, 감고 있건 항상 본래의 마음을 보기 위해 허물벗는 수행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수행법은 두터운 업장의 허물을 하나씩 벗어내 참나를 깨달아가는 소멸작업이 아닐까요. 나를 괴롭히고 즐겁게 하는 것을 잘 다스릴 때 자신의 내면속에 가려져 있는 참부처를 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결국 ‘일념’을 바로 지키고 비추어 자신의 내면속에 깃들어 있는 참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일념으로 염불하고 일념으로 절하고 일념으로 참선하는 것이 나중에는 생활속에 젖어 들어 자고 먹고 일하는 속세에서도 지속된다면 그는 분명 부처님을 향해 곧장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불어나 인과를 초래케 되고 얽매임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업이 저 밖의 허공이나 세상이나 시간 가운데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없애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업을 항상 소멸하려고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동안 수행을 하다보니 자연히 수행을 직접하고 있거나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 얘기를 들었지만 그 기준은 늘 불교경전이나 조사들의 수행법을 답습하고 있읍니다. 수행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안의 마음을 찾아, 구름너머 허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정리=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박 건 태 〈前 풍농실업 대표〉

대구 구도회와 인연 신행생활 열심
사찰 참배하며 불교문화·역사정리

유년시절부터 산이 좋아 무턱대고 산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 때에는 절집이나 불교유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단지 산이 좋았을 뿐이다.

언제나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간혹 절집에 들어가면 왠지 마음이 편했다. 그렇지만 부처님에 대한 신심은 높지 않았고 산도 알지 못했다.

십여 년 전쯤 불교를 조금 알고 나서부터는 산과 절집에 대한 관념이 변했다. 산과 절을 찾으면서 느끼는 생각과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2천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 땅의 불교정신과 역사를 절 집 순례에서 느끼는 생각과 어울려 글로 남기고 싶은 충동이 문득문득 일어났다. 또 그 글 속에 나를 용해하여 새로운 마음가짐과 불교정신으로 삶의 지표를 삼고 싶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다시 전국의 절들을 하나씩 참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정작 내 나름의 감흥과 글감이 그렇게 쉽게 마음에 잘 잡혀 주질 않았다. 또 나의 부족함과 모순이 나를 꾸짖고 괴롭히기 까지 했다. 타고난 글재주도 문학적 수학을 받아 본 적도, 남다른 깊은 철학적 사유의 경험도 없는 나로선 글을 쓴다는 게 무척이나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절집에서, 길위에서 산속에서…, 만나는 물물과 사연은 그 때마다 나에게 작은 소재를 안겨주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활력을 불어 넣은 것은 그동안 신행생활을 했던 작은 경험과 수행의 방편으로 원력을 세워 사찰순례에 나섰던 것이 큰 뒷받침이 됐다.

불교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된 곳은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였다. 이 신행단체를 통해 신행활동을 시작했고, 급기야 대구구도회장이란 소임까지 맡아 대구지역 불교발전과 포교를 위해 일선에 나서기도 했다. 대구구도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체험한 각종 신행생활은 나에게 큰 변화를 줬다. 참선은 불안하고 답답했던 생활에 안정을 가져다 줬고, 교리공부는 신행생활의 밑거름이 됐다. 특히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수련회와 답사를 다니면서 만난 큰스님들과 강사들이 들려준 감로수는 불자의 길을 가는 확실한 나침판 역할을 했다. 이 모든것들이 축적돼 때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도 한다. 나는 우리나라 곳곳에 자리한 불교문화를 한걸음 한걸음 체험하여 그 정취와 소중한 정신을 진솔하게 불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순례한 사찰들을 회보지에 간간히 실어 조심스럽게 회원들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다. 역사나 문학, 불교학 등을 전공해 본적도 없는 문외한이 단지 재가 불자라는 위치만으로 회보에 글을 쓴다는 것이 몹시 외람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참나를 찾아 내 스스로 나를 다듬고 싶은 마음에서 글을 썼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분명 불교적 정신이 사회의 도덕과 규범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리라는 확신을 믿는다. 초심자나 일반인들이 내가 쓴 글들을 통해 불교정신 함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언젠가 어떤 거사가 써 준 ‘상락아정(常樂我淨)의 글귀가 거실 벽에서 나를 길들인다. 그러나 나는 열반의 사덕(四德)에 앞서 상(常)에서 무상(無常)을, 락(樂)에서 고(苦)를, 아(我)에서 무아(無我)를, 정(淨)에서 염(染)을 생각하며 산다. 인생을 쉽게만 여겼던 나는 이제서야 인생이 장난이 아님을 느낀다. 꿈이 크면 위대할지니, 인생은 벽돌을 쌓듯 차근차근 꿈을 키워 가는 것이 아닐까. 비록 그 꿈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꿈을 실현하려는 노력과 그 꿈에 조금씩 다가가는 작은 마음의 충족이 삶의 보람이고 가치일 것이다.

’99 단기 출가 선(禪) 수련회 안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에서는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출가 선(禪)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장 소: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
⊙대 상: 일반인, 직장인
⊙내 용: 108배, 발우공양,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불자 기본 예법, 참선 실참실수, 윤좌모임
⊙수련일자: 10월 2일~3일(토, 오후2시 입재/일, 오후 6시 00분 회향) 11월 6일 ~ 7일
⊙수련회비: 3만원
⊙접수방법:
-직접 방문시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팩스 이용시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직업, 수련회 경험유무, 수련회 동참소견을 적어서 팩스로 전송

※수련회비는 〈외환은행〉 301-22-00206-0 예금주 〈길상사〉로 보내고 신청서와 입금표를 같이 보냅니다.

·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수련기간 중 보살행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오전이나 오후 등 봉사자의 활용 시간대에 맞춰서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수련회 사전준비, 공양간 찬상정리, 사무실보조, 뒷정리 등 자유롭게 동참하며 강의와 참선시간에는 같이 정진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길상사 수련원
136-020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전화 : 3672-5945, 5946
팩스 : 3672-5947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

법주사 승가대학 학인 모집

법주사 승가대학 '99학년도 후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 모집학과: 사미율의반(신입생) 00명
치문반(편입생) 00명
사집과(편입생) 00명
▣ 자 격: · 본종 승려로서 해당학과에 적격인 스님
· 사미율의반 : 사미계 수지자
· 치문반 : 사미율의 수료자
· 사집과 : 사미과 수료자(서장 이상 수료자)
▣ 제출서류: 지원서(본사비치) 1부
신상명세서(본사비치) 1부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명서 1부
은사스님 추천서 1부
수료증(편입생) 1부
건강진단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사진 3×4(오조착용) 5매
▣ 전형방법: 서류 접수후 면접
▣ 전형일시: 2543년 9월 22일 ~ 10월 30일까지(모집기간)
▣ 전형장소: 강원 큰방
▣ 준 비 물: 대가사, 오조가사, 장삼, 발우, 기타 학업에 필요한 것
▣ 문 의: 376-860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법주사승가대학 ☎ 0433-543-6783, 4858 / 종무소 ☎ 0433-543-3615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승가대학
주지 혜 광 · 학장 혜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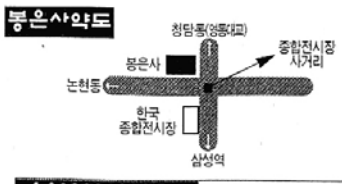
선재마을 의료봉사 (불교의료봉사단)

진료소 안내

병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진료 봉사하오니 널리 이용하여 주십시오.

♣장 소: 강남구 봉은사 경내 주차장 뒤 진료소 건물
♣시 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한방은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과 목: 양한방 전과목 및 치과
♣대 상: 실업자,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지역주민
♣연락처: 02-573-7405~6 강경구

봉은사약도



보시하십시오.
▶후원금 계좌(매달 작은 돈을 모아주시면 의료 봉사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은행 172-01-0001-606 양재수(선재의료)
▶후원자 모집 - 강경구에게 연락

선재마을 의료회

살아있는 통불교 박물관



◇15동의 건물이 빼곡히 자리잡고 있는 옥천사는 조선시대 통불교적인 특징을 건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찰이다. 토족들의 무단침입을 막기위해 방어적으로 지은 옥천사 지방루의 폐쇄적인 모습. 조선조 불교의 수도원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해 마당도 작다.

가람의 장면들 12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고성 옥천사

한국사찰 전각 한곳에 모은 듯
법화·정토·영산·민간신앙 혼재
'자급자족' 수도생활에 맞게 설계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북광리, 연화산의 연꽃잎 같은 산자락에 아늑하게 둘러싸인 거대한 사찰이 있다. 신라 때, 의상과의 화엄십찰로 창건되었다는 옥천사다. 그러나 화엄십찰의 하나라는 옥천사의 후예라는 주장은 여기 말고도 청도 용천사 등 많은 사찰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고성 옥천사의 창건 역사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 점의 건축적 중요성은 그 방대한 규모에 있다. 중심을 이루는 대웅전 말고도 그 뒤로 명부전, 팔상전, 나한전, 조사당, 산신각, 칠성각 등 한국 사찰에 있는 거의 모든 불전들이 망라돼 있다. 또한, 적묵당, 탐진당, 취향전 등 자그 남아있는 승방들도 대단하지만, 과거 전성기 때는 12방사가 있어서 수백명의 승려들이 거처하던 대규모 사찰이었다. 현재도 15동의 건물들이 좁은 절 터에 빼곡히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의 사찰은 전국적으로 흔치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 밖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유명한 진주성 사움의 배후기지였고, 여느 사찰이나 마찬가지로 전쟁 통에 모두 소실되어 그 이전의 건축적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들은 모두 7번째 중창인 1644년 이후의 것들이다. 흔히 조선후기는 불교의 쇠락기로 여기기 쉽고, 따라서 이 시기의 불교건축은 거의 지어지지 않았거나, 보잘것 없다고 평가하기 쉽다. 그러나 현존 불교건축의 95% 이상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의 것으로, 정식 역사의 기록과는 달리, 조선후기는 불교건축의 또 다른 융성기였다. 물론 불교시대인 고려조와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교계에서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많은 가람과 불전들을 재건했었다. 고성 옥천사는 그 대표적 사례다.

흔히 조선후기의 불교는 종파도 교단도 없고, 계통적인 법맥도 찾기 어려운 통불교적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조계종이니 화엄종이니 하는 종파는 물론, 교종과 선종의 차이도 없을만큼 모든 교리와 신앙들이 혼합된 양상이었다. 그만큼 불교를 둘러싼 사회적 여건들이 극한적으로 어려웠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찰 내에는 대중적인 모든 신앙들이 종합적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만 몇 안되는 인근 신도들의 신앙적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었다.

이러한 통불교적 양상을 옥천사만큼 건축적으로 보여주는 곳도 드물다. 여기에는 법화신앙을 비롯해서, 정토신앙, 영산신앙, 민간신앙들이 혼재되었고, 심지어는 우물의 용신신앙까지 습합한 옥천각도 세워졌다. 이러한 여러 신앙들은 나름대로 체계를 가졌다. 약간 학술적인 이론이지만, 부처급을 신앙하는 상단신앙, 보살급의 중단신앙, 그리고 민간 차원의 잡신들을 위한 하단신앙으로 나뉜다.

상단, 중단, 하단의 신앙을 위해 세워진 전각들 또한 공간적 위계를 갖는다. 상단의 대웅전이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중단신앙인 명부전, 팔상전, 나한전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더 멀리에는 하단신앙 전각들인 칠성각, 산신각, 독성각, 옥천각들이 더욱 작은 규모로 감싸고 있다. 옥천사는 살아있는 통불교 신앙의 건축적 박물관이다.

조선 후기에 불교의 융성이 어느 정도 용인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조선사회의 지배사상은 유교였고, 불교는 아녀자나 서민들의 종교일 뿐이었다. 또한 스님들은 도성에 출입조차 금지된 불가촉민의 신분이었다. 더욱 불교계를 괴롭힌 것은 지방 관청과 토착 양반들의 수탈이었다. 사원 소속의 농토에서 나오는 산물에 대해 과중한 세금을 물어야했음은 물론이고, 산성이나 도로 공사에 승려들이 빈번히 차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투리나 한지 생산을 떠맡아, 산중 승려들은 과중한 노역에 시달리다 못해, 관청에 탄원을 하는 한편, 도망가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토족 양반들은 무단으로 사찰 경내에 들어와 술과 안주를 요구했고, 스님들을 괴롭혔다. 심지어 말을 타고 대웅전 앞까지 들어와 행패를 부렸고, 이 시기 가람들 앞에는 누각을 세워 양반들의 침입을 막았을 정도였다. 이러한 수탈 속에서 사찰이 살아남는 방법은 조직화된 수도생활 뿐이었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면서, 가급적 외부의 침입에서 안전하도록 건축들을 방어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 옥천사 7칸 짜리 지방루의 지극히 폐쇄적인 모습이나, 입구를 적묵당 부엌으로 왜소하게 만든 이유도 그렇고,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도 그렇다.

건물들의 수량과 규모에 비해서 마당의 크기가 작은 이유도, 외부의 신도들은 많지 않고 오로지 경내의 스님들만 기거하는 산중 수도원의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옥천사는 통불교의 박물관일 뿐 아니라, 조선조 불교의 수도원적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현대불교 99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상호 뚜렷한 고려불상

문수사 석불여래좌상

■ 한국석불문화연구회 답사



◇문수사 석불여래좌상은 원만한 상호와 당당한 동체가 특징이다.

벼가 알알이 익어가는 김제평야의 황금물녘은 돌부처 찾기 답사단(단장 이근후·이화여대 외래교수)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준다.

드넓은 평야지대 한가운데 위치한 김제시로 들어가 물어물어 찾아가니 당우가 오밀조밀 배치된 문수사(주지 운공)가 있다. 주지스님의 안내로 대웅전 뒷편으로 돌아가니 암벽앞 관석에 양각된 좌상이 있다. 이 사찰에서 가장 오래된듯한 여래좌상은 잘 다듬어진 화강암에 조각됐는데 앙련좌위에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앙련좌위 선정인 자세
안정감있고 어깨 당당
관악산 마애불상 닮아

소발의 머리위에는 반구형의 육계가 있고 상호는 원만하며 양미간, 코, 입도 정제돼 있다. 이마에는 백호의 흔적이 있으며 양쪽 귀는 짧은 편이나 목에는 삼도가 돌려져 인자하면서도 근엄하다.

양쪽팔에 걸친 의문이 길게 흘러 양쪽 무릎을 덮고 있으며 양손을 겹친 선정인을 보이고 있는 수인은 후대에 깎인 흔적이 보인다.

앙련좌는 5판의 큼직한 잎으로 돼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소형의 연꽃봉우리를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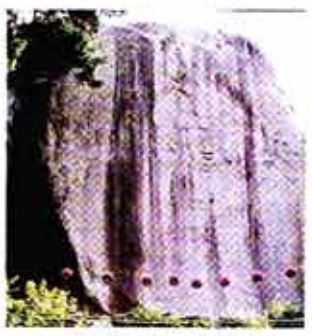
높이 148cm의 석불인데 원만한 상호와 당당한 어깨, 균정한 동체, 안정감있는 무릎, 장식적인 앙련좌등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불문화연구회 신재구회원은 "부처님의 상호가 관악산 마애불과 유난하게 비슷하다"며 "선이 2cm정도로 선명한 것으로 보아 후대에 손을 본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리=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불사의 전당
▶천수천안 관음보살
부처님조상 전문 만듦
(주)천산 불교조각원
서울사무소: (02)738-8447~8
대전사무소: (042)483-8466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상

고증: 정영호 박사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상

균형미 뛰어난 조선불상



서울 노원구 천보산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좌상〈본지 236호 14면〉은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 조성된 불상답지 않게 조형미와 균형미가 뛰어나다.

특히 신라시대 황금보관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표현된 듯한 보관에 아미타여래의 화불을 모시고 있는 마애여래좌상은 높이와 굵기의 비례가 적정하다. 또 테두리에 마름모 모양의 사슬장식이 드리워져 세련미가 엿보인다.

상호는 약하게 부조돼 눈이 유난히 가늘고 길게 표현됐으며 입술은 아주 얇고 작은 것이 특징이다. 연화대좌위로 흐르는 하늘 하늘한 천의 자락이 유연하며 왼손의 두꺼운 굴찌는 보살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秘)"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옥판 팔각형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가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이다 걸어놓았던 동판을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꼭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 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세계는 더불어 사는 공생 공용 공체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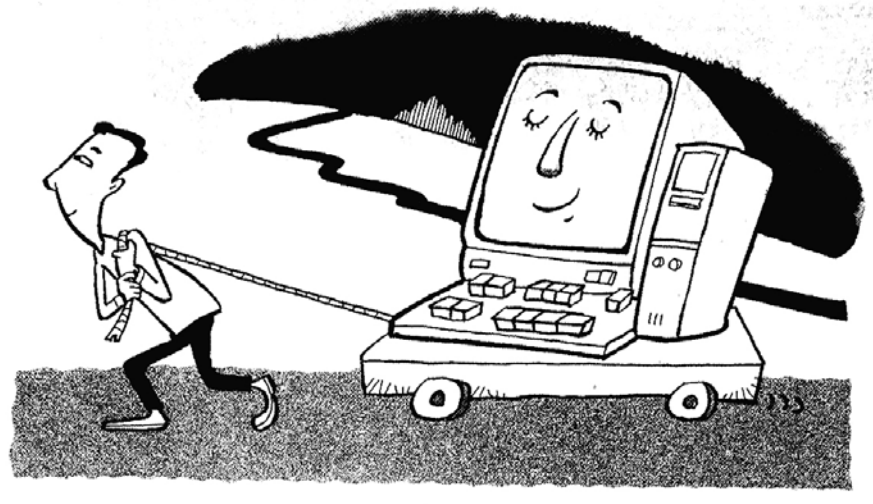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뿌리 알아야 꽃 피고 열매 맺어 공양
"너만이 할수 있어" 주처에 믿고 놓는게 '觀'

"발자취 짊어지고 온사람 없듯이 함이없이 했기에 내가 한것 없어 모두가 空 합니다"

여기 여러분과 같이 한마음이 돼서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佛)이라는 자체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의 근본을 말합니다. 또 교(敎)라는 자체는 바로 지금 현재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교라는 것은 바로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축생이나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끌어가는 불성 말입니다. 우리는 불성이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모두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죠. '나'라고 하면 전세계 모두가 한 생명이며 한 모습이며, 즉 공생이며 공심이며 공체며 공용이며 공식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계를 공기주머니에 비유하겠습니다. 모두가 한 공기주머니인 것입니다. 그 공기주머니 속에서 어느 종교 어느 종교를 따지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모습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종교의 이름은 다르지만 근본이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지 둘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자기 모습을 이끌어가는 정신은 빼놓고 자기 모습이 바로 자기인 양 살고 있으니까 이리저리 걸림이 많고 사는 게 복잡하고 고민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이끌어가는 자기 정신계, 즉 불가에서는 자불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나 가톨릭교는 자기 자신의 안으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이름과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 찾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길이 나타나질 않고 정신계로는 도저히 문을 열래야 열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를 끌고 다니는 나의 선장 주인공, 그것이 나무로 비유한다면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뿌리는 싹을 돕고 싹은 뿌리를 믿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뿌리는 어디로 갔는지 싹이 딴 데를 보고 믿으니 자기 자성의 완성은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불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 진실한 불교냐. 우리 생활이 그대로 불교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거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한 지구 안에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불교며 참선이며 여여한 것입니다. 마음을 낸다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의 자의지만 마음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걸 썼다 저걸 썼다 어떤걸 내가 썼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에 '애,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네' 하고 자식 노릇을 해줘야 됩니다. 또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 노릇을 해줘야 하겠죠. '여보!' 하고 부르면 남편 노릇을 해줘야하고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자동적으로 모든 생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즉 내가 아버지가 됐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들 노릇을 할 때 내가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노릇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렇게 자동적으로 많이 했어도 함이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들어올 때 틀림없이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발자취를 짊어지고 오신 분 있으신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들이 하고도 한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 하나가 잘못됐으면 그 과거를 오히려 붙잡고 간다 이겁니다.

어제께 한 일도 오늘 걱정을 해야 하고 그걸 붙들고 쩔쩔 매죠. 1초 전도 과거고 1초 후도 미래거든요. 그럼 현재만 있느냐? 현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도 공했다 이 얘깁니다.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공했으니까 모두 여러분이 하면서도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듣기를 듣습니까 보는 걸 봅니까, 듣는 것을 하나만 듣고 마는 겁니까, 똑같은 걸 듣습니까. 이걸 듣고 또 딴 걸 들어야 하고 또 딴 걸 봐야 하고 딴 걸 해야 하고 딴 사람 만나야 하고 이건 일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용을 해야하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공용입니다. 공용!

공용인 까닭은 왜냐? 내 오장육부에도 생명체가 천차만별로 들어있으니까요. 이 몸 속에 생명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서 의식이 자기 마음을 건드린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 모든 의식들이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주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간의 한 모습이 한 세계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크다면 요만하게 좁쌀만하게 하나 만들어서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것은 수효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헤아릴 수가 없이 수효가 많은 데다가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이 또 이름이 주어져 있죠. 이 지구 하나의 세계가 벌어져있듯이 몸 속에도 위다 장이다 척수다 척추다 방광이다 장이다 하는 그 이름들이 수효가 없습니다. 다 따지자면 그 수효를 어떻게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 하나면 그 의식이 다 거기에 포함돼서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공용이다 이 소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을 관할 때 아파서 관하면 의사가 돼 주고 또 집안이 안돼서 관하면 관세음이 돼 줍니다. 이 소리는 뭐냐 하면 해결사가 돼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자기 용도에 맞게 관하면 보디가드가 돼 주죠. 이거는 천차만별로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대로 현실로서 행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의문이 들죠. 모든 주처는 여러분이 전부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주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형성시켰고 자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주처는 자기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주처는 뿌리와 같고 자기 모습은 싹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싹은 뿌리를 믿고 뿌리는 싹을 돕고 이래야 푸르르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불교라는 것이 이름만 '불교 불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불교라는 단어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 까닭이 바로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다 이 소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나 다른 어느 혹성이 만약에 부딪치게 됐다 이런다면 어떻게 해야만 해결을 하겠습니까. 이 불교란 너무도 심오하고 너무도 광대무변한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내가 그 혹성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 혹성이 된다면 그것을 멀리 해서 부딪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치가 있죠.

그거와 같이 오늘이 며칠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져서 지금 며칠 며칠 하지만 포괄적으로 본다면 오늘 내일이 없죠. '어디 무엇이 이렇게 있다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면 그건 벌써 100년 200년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 이것이 꼭 어디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이렇게 한다. 저거는 저렇게 한다. 이때가 되면 이렇게 죽는다. 이때가 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것도 그건 난설이에요. 왜냐? 예언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예언이라는 것이 없는 까닭이 뭐냐하면 만약에 이 컵이 지구라 한다면 얼른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있다가도 1초 후면 벌써 이렇게 딴 데로 옮겨져 있어요. 모든 물질이 다 그렇게 변화가 오는 겁니다. 사람도 늙고 물질도 변하죠. 모든 것이 변화무쌍한 겁니다.

그러니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행동을 했어도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함이 없이 했을 뿐이니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편안하게 사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죽는다 산다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성돼서 이 세상에 나왔죠. 죽어 가는 것도 이 세상에서 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살아 온 것이 없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현실의 고(苦)는 나를 정화시키는 보살의 손길



인생은 '고'가 아니다. 생사가 있다고 하나 생사를 여의는 불생불멸의 열반이 있으니 고가 아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슬픔이 있다고 하나 만나고 헤어짐의 근본이 텅 비어 고요하니 고가 아니다.

삶에 있어서의 온갖 고통과 번뇌도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그것을 견디거나 극복해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나의 가족, 벗, 이웃들이 덜어 주고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자기 짐일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곧 고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지적하셨다. 하지만 동시에 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직접 성취해 보여 주셨다. 부처님께서 성취하여 보여 주신 삶은 고가 아니라 완전 자유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사실 고가 아니다. 다만 고라고 느끼며 속박되어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인생의 목표는 그 고로부터 벗어나 부처를 이루어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고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그 고의 참된 원인을 살피려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한 가지 고에서 벗어난다 해도 또 다른 고가 닥쳐오는 것을 면할 길이 없다. 나라는 존재는 따지고 보면 쉴 새 없이 고락을 만들어 내는 생산 공장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생산해 낸 것은 내가 수집해 들여야 한다.

고의 경계들이 다가오는 원인을 모른다면 만방으로 끄달리게 된다. 그러나 그 원인들을 안다면 수억겁의 업고로부터 단숨에 벗어날 수도 있다. 평생을 고에 시달리느냐, 벗어나느냐는 한생각의 차이로 판가름난다.

내가 인연 따라 태어난 것부터가 인과의 산물이니 그대로 고이다. 이전에 살던 업이 쌓이고 뭉쳐 오늘의 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업보라고 괴로워한다면 한없이 괴롭겠지만 그 모든 것을 수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돌린다면 오직 참 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돌리는 것은 모처럼 나온 새싹에 물을 주는 격이고, 그냥 업보라 해서 괴로워함은 물을 주지 않고 말라 죽게 만드는 격이다. 그래서 모르면 지옥고이고 알면 극락인 것이다.

과거에 입력된 것이 현실의 과보로 다시 나오기에 살다 보니까 고초가 따르고 서로 쫓기고 쫓는 고통이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발이 되기도 한다. 그것이 산 교훈이요 산 진리이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지금 내게 닥치는 고의 경계들은 사실 언제인가 내가 법계로 살다가, 새로 살다가, 짐승으로 살다가, 혹은 인간으로 살면서 지었던 모든 행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고의 경계가 다가왔다 해서 이를 피하려거나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일깨워 수행하게 하고 다지는 것이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라. 그런 마음이라면 고는 이미 고가 아니니, 절로 놓고 돌아가는데 고집멸도는 어디 있겠는가.

현실의 고통이란 알고 보면 순간 순간 자기를 밝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요 밑거름이다. 본래로 밝아 있음을 모르는 나를 일깨워 성숙시키고 종내는 해탈로 이끌려는 수련의 과정인 셈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사성제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우리의 삶이 고라고 하지만 동시에 제도의 과정이니 고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삶을 고라 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싶은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흙탕 물에 빠져 본 사람은 자기가 해보았으니까 다시 빠지지 않고 남도 건질 수 있지만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때를 알 수도 없거니와 남을 건져 주지도 못한다. 고 속에서 굴러 본 사람이라야 굴러 보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감응할 수 있는 것이다.

고라는 것도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 닥치는 것이니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첫째는 인간으로 형성시킨 게 고마운 것이요, 둘째는 그렇게 분별해서 모든 것을 알게 만들어 주니 고마운 것이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딪힘도 오는 것이지 자기가 나지 않는다면 무슨 부딪힘이 있겠으며 무슨 상대가 있겠는가. 그러기에 고다, 업보다 하기 이전에 참 나에다 일체 경계를 맡겨 놓고 관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람 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 되기 더더욱 어렵다고 한다.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할 일이다. 모든 것을 '내 주인공이 나를 성숙되게 등글게 이끌어 주는 과정이로구나' 하고 믿고 놓아라. 그때는 고에서 그냥 타파해 버렸기에 집도, 멸도, 도도 없다. 고라는 것을 잘 요리해서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맛이 되고 감사할 일이다.

현실의 자기 모습을 보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래의 자기 꼴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자기를 돌아보라 하는 것이니 현실의 고나 인과 등은 그대로 수련 과정인 셈이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치면 오히려 나쁜 공기와 먼지 그리고 불결한 것들을 다 청소시켜 주니, 현실의 고는 오히려 자기를 정화시켜 주는 부처요 보살이다.

협찬 : 주인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이름 형상 믿으니 밖으로 찾게 됩니다

☞ 15면에서 계속

기 때문에 죽어 갈 것도 없는 거죠.

사람이 알아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아서 심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생각 할 때에 오장육부의 이 의식들이 다 응해줘야 돼요. 응해줘서 그 의식들이 다 보살로 화한단 말입니다. 모습이 거기 있으면서도 그 보살로 화해서 왕래 없이 왕래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참 모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사시는지는 몰라도 자기를 이끌고 다니는 선장, 즉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운전수를 자기라고 그러지 어떻게 차를 자기라고 그러겠습니까. 차는 자기 모습이고 그 모습을 이끌고 가는 것은 운전수가 하는데요.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나 가톨릭교나 불교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바깥에서 온통 들이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없다는 얘기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라는 건 없다. 관하라. 그러면 어떻게 관하느냐. '너가 형성시켰으니까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놓는 거죠. 거기다 믿고 그냥 놓는 거죠. 그렇게 놓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불가에서는 오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타심통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숙명통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내 누진에 딸린 수하예요. 누진에 딸린 수하 곧 심부름꾼이란 말입니다. 그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누진으로 나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누진이라는 건 뭐냐. 바로 지금 현재에 컴퓨터 같은 거예요. 입력되는 컴퓨터 있죠. 여러분이 컴퓨터를 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거죠. 자동적인 컴퓨터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력이 되면 온 우주 전체에 다 그게 퍼지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다 음파를 통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거짓말을 한 것은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알기 때문에 전체가 알게 된다 이 소리죠. 이게 우스운 말 같지만 너무나 현명하고 너무나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죽어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뒹굴고 그러는 거 보면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사람이 눈도 똑같고 귀도 입도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한생각이 틀린다고 그래서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되 이 육안으로 보는 거는 지금 물질세계만 보는 거니 심안으로 봐라. 심안으로 본다면 정말 심안으로 또 듣는다 이런 거죠. 그래 심안으로 들을 줄 안다면 공부가 돼서 심안으로 보게 되고 그런다면 바로 법안으로도 보게 되고 혜안으로도 보게 되고 불안으로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전체를 보게 되는 것이 내 몸안에서 벗어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자유스럽다는 얘기죠. 내 모습은 여기 두고도 내 모습 아닌 모습들이 수 만이 돼서 이 허공에 곽찰래면 찰 수도 있는 사실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나는 내가 한 게 없느니라. 내가 한 것도 없고 앞으로 할 것도 없고 또 했다고 할 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또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죽어갈 것도 없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건 왜냐? 쉽게 말해서 일체 중생이 다 자기 모습 아닌 게 없기 때문이예요. 자기 생명 아닌 게 없고 자기 모습 아닌 게 없고 자기 아픔 아닌 게 없고 자기 자식 아닌 게 없고 자기 부모 아닌 게 없이 전부 그렇게 다 인연을 지으셨어요.

그 인연을 지으신 걸로 하여금 말을 하자면 만약에 개구리가 '날 좀 살려줘야 할 텐데….' 하고 내면으로 통한다면 진화가 되죠. 내면으로 통하지 않는다면 거죽으로는 아무리 쪼아대도 그건 안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구리가 뵀을 때 나라고 하겠느냐. 사람이 될 때 나라고 하겠느냐 부처가 될 때 나라고 하겠느냐? 어떤 게 뵀을 때 나라고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한 모금 마시되 이 물을 내가 먹었다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 몸속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들어있어서 이 물을 제가끔 나누어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혼자 이 물을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물 한 모금 마셨을 때에 '아, 내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모습은 이 생명들의 집이에요. 그런 까닭에 그 집을 가지고 사는 생명들이 같이 더불어 먹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말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모습이 내가 산다고 말을 못하느니라. 내가 했다고 말을 못하느니라. 내가 살았다 죽었다 말도 못하느니라. 모두가 공했느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모두 한 분 한 분 실천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해보신다면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극락은 내 마음 속에 극락이 있어야만 진정한 극락이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인 컴퓨터에 대해 아까 얘기하다 말았군요.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차원이 정해지죠. 그러면서 거기에 입력이 되면 입력이 된 대로 그대로 다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팔자 운명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보는 걸 잘못 보고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또는 말을 잘못하게 되죠.

그래서 입력이 되면 입력이 되는 대로 그냥 작은 거나 큰 거나 전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입력이 됐으면 된 대로 그 날은 싸움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타의에서 들어오든지 또는 생각도 안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일이 벌어지든지 이런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삶을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만날 울고 때에 따라서는 말도 못하고 묵묵히 하늘을 쳐다봐야 하구요. 이런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죠. 왜 사람이 그렇게만 살아야 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내 아님이 없느니라.' 하셨던 것은 미생물도 걸어가다가 앞다리가 짧아서 앞으로 고꾸라지게 생기고 잡혀먹게 되면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나는 다리가 짧으니까 이 앞다리를 조금 길게 해야만이 내가 잡혀먹히질 않겠구나. 막 뛰어도 넘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라 이 얘기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진화를 할 때에 그렇게 안되죠. 그러니 뭐 모두 입력이 된 대로 나오니까 거짓도 없고 우연도 없고 모두가 사실이죠. 그냥 사실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실천으로 해봐라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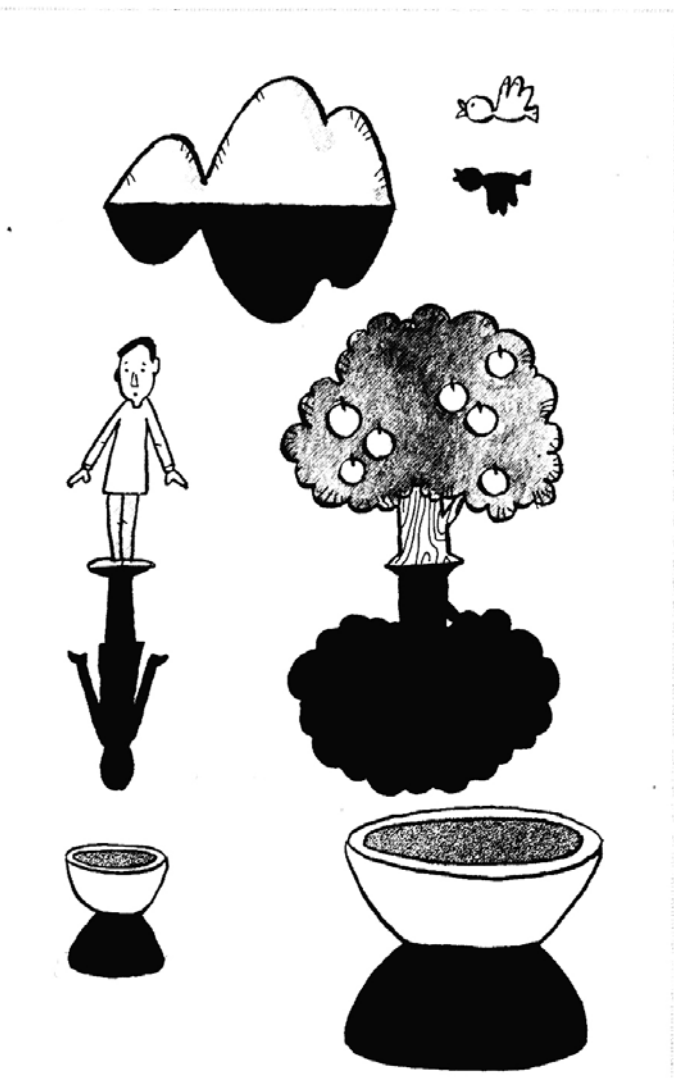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가 벌여놓은일 거두는 도리 알아야
마음이 오락가락하면 살림도 오락가락

내가 왜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안해드리면 이 다음에 더 나은 말도 할 수가 없죠. 더 큰 말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인생이란 한 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내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이 나를 발견해서 공부하기에 힘써야죠. 오만하고 잘나서야 요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살던 것은 다 내버리고 내 몸까지도 내버리고 가요.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그 자기가 마음에 지니고 살아왔던 그 누적된 보배를 가지고 다시 그 보배와 더불어 같이 이 세상에 다시 형성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를 벗어나서 에너지가 있는 참 좋은 세상에서 사세요. 물론 여기도 에너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대로 밖에는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지 않다면 부족지 않는 대로 살 것이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살 것이고 그보다 더 부족하다면 더 부족한 대로 살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누구나가 다 자식들을 기르고 부모를 모시고 살지만 모두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참 벌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걸 본받지 뭘 본받겠습니까. 꼭 본은 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먹으니까 아주 진저리가 나서 나는 절대 안먹어.' 이러죠. 그러나 역시 또 마찬가지로 자십디다. 술 마시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예요. 이게 마음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니까 이 살림도 오락가락 하고 생활도 오락가락 하고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죠.

부부지간도 이게 그냥인 것 같지만 끼리끼리 차원대로 만나는 겁니다. 자식도 그렇구요. 왜 시장에 가면 금방엔 금이 놓여있고 넝마전엔 넝마가 모여 있죠. 따로따로 전부 끼리끼리 모여 있죠. 사람도 끼리끼리 있고 물건도 끼리끼리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모두 인연이 돼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부부가 살면서 서로 '너가 잘못했다.' 이러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사과끼리 만났다면 똑같은 사과끼리인데 어떻게 똑같은 사과가 사과더러 너 잘못 했다고 나무라겠느냐는 이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는 거죠. 모든 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자기 탓이지 상대방의 탓은 없어요. 상대방의 탓도 없거니와 상대방이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구요. 아무리 친절해도 대신 똥 눠주고 잠자주고 밥 먹어주고 아파주고 죽어주는 사람 봤습니까. 대신 그렇게 해주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모두 여자나 남자나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자기 뿌리를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자기 주인공의 뿌리를 자기가 알아야 그 뿌리를 믿고 그 뿌리에서 도와주게끔 마음을 내서 즉 말하자면 푸르른 잎새를 해가지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그 열매가 그 나무에서 제대로 익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아도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고 먹고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죠. 가난한 사람이 뭐를 못 주지 부자가 왜 못줍니까.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인 것입니다. 스스로 부자가 될 수밖엔 없죠. 그렇게 마음을 쓰면 돌이 아니라 까닭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자체를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디다. 그런데 그 영혼이 진짜 자기가 아니에요. 영혼의 근본이 자기죠. 즉 여러분의 중심의 집을 지으려면 대들보가 올라가고 기둥이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본 그 자체가 돌이 아닌 까닭에 자식과 부모가 이렇게 마주치면 영은 아무리 수십 개를 갖다 넣는다 하더라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통하는 거죠. 그대로 통해서 가다보면 마음이 변해서 화목하게 되죠.

이런 예가 있었죠.. 하도 아들이 나가서 안들어오고 그러니까 만날 어머니가 울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스님, 제가 여기 다닌지 3년이 되는데요 지금 2년만에 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하니깐 "항상 아들과 제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한테 항상 관했더니 몇 달 안돼서 나쁜 친구들을 다 버리고 딴 데 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니까 돈도 없고 해서 산이라고 돼 있죠. 푸른 산이라구요. 그리고 그것이 조화구요.

그리고 사람은 못났든 잘났든 주님을 찾든지 성모마리아를 찾든지 그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자기 자신 안으로 찾으세요. 안으로, 안으로 믿고 안으로 찾으세요. 우리가 불교다 가톨릭교다 기독교다 하고 나누지만 이름이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종교는 만들어놓은 이름이지 우리의 근본은 아니죠.

여러분은 제각기 주처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길을 걸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변소엘 갈 때도 항상 내가 있는 곳에 부처는 있는 거니까요. 변소엘 가서도 '주인공' 해도 좋고 '주님' 해도 좋아요. 이건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니까요.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오늘 하루 종일 다녀도 사고가 없이 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오늘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모두가 잘되게끔 하는 것은 너밖엔 없어.' 이렇게…. 그리고 자식들이 나가서 안들어오거나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속을 썩일 때도 자식의 몸뚱이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욕을 하면서 '나가지 말고 있으라.' 고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붙드세요. 마음은 마음으로서 해결이 되는 거지 모습이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하시라고 그런 겁니다. 관해서 입력이 됐다 돈 벌어가지고 오느라고 그렇게 있었답니다."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참 제가 고생도 많이 시켜드렸죠. 이제 좀 쉬세요." 이러더랍니다. 장독을 닦고 있는데 난데없이 들어오더니만 그 어머니를 붙들어 앉히구선 그거를 자기가 대신 씻어서 다 엎어놓고는 주머니를 부시럭 부시럭 하더니 돈을 꺼내서 어머니를 주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백분지 일도 안되지만 저의 마음이 이렇게 어머니를 그립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불쌍히 생각하면서 집에 왔노라고 하더랍니다. 그 날부터 그렇게 착한 아들이 돼서 아주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하고 본보기가 됐더랍니다.

그럼과 같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이혼하려고 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사람 사람이 한 철 만나서 끼리끼리 만나서 사는데 네 탓 내 탓하고 미워하고 이뻐하고 이렇게 한다면 요 다음에 또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니까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사람이 모두 인과응보라는 자체를 모른다면 사람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사람이 살아나가는데는 우연히도 없고 팔자운명도 없죠. 결국 자기가 벌여놓은 일을 자기가 거두는 거죠. 여러분도 이 도리를 좀 배우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안하던 사람은 그것도 습이 돼서 습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습도 거기 놓아야 되죠. 이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모습이 내 정신계의 참자기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습니까. 상대성으로 인해서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자체의 길을 만들려면 바로 자기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자신 안으로
찾으세요
불교 · 기독교 · 가톨릭교
나누지만 이름은
종교가 아니예요
진리는 둘아닌 하나죠

큰스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

문 교포신문의 황성범 기자입니다. 오늘 큰스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닌 하나다, 생명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다 라고 하신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사람들이 흔히 가치관 상실의 세기말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세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참으로 뜻 깊은 날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물론이고 30년 연륜을 쌓아오면서 그동안 3만 5천 명으로 늘어난 재독한인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각각 다른 의미로 매우 뜻 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하나다 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어떤 윤곽 안에 갇힌 채 살아온 우리 유럽 사람들에게 오늘 큰스님께서 해탈의 문을 열어주신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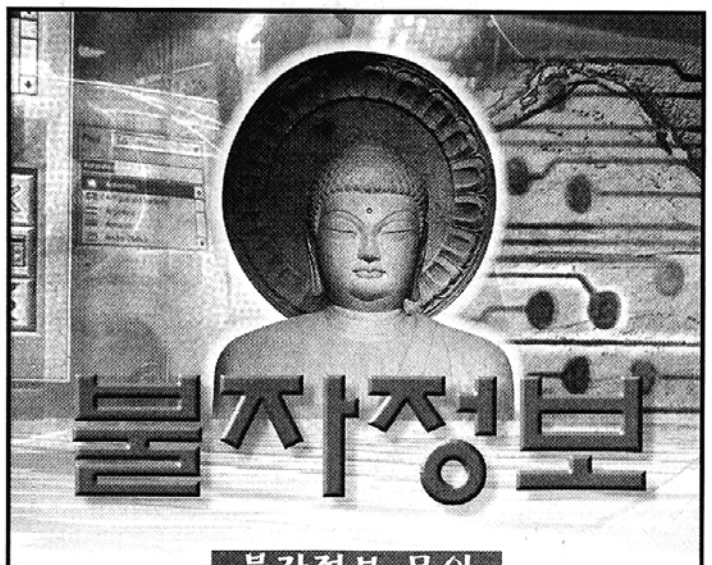
그러나 그런 가르침을 받아도 저희들 마음 속에서는 쉽게 삶의 일부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마음 속에는 정말 지워지지 않는 그런 두터운 때가 끼여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오늘 큰스님의 큰 가르침이 저희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발원합니다.

스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고국으로 떠나시더라도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님의 마음과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라면 멀리 떠나신다 하더라도 저희들 마음 속에는 늘 스님의 마음이 있고 또 스님의 마음 속에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로 있겠지요. 가시더라도 하나된 마음으로 저희 독일 땅에 살고 있는 재독 한인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님께서 늘 마음 속에 저희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먼길을 마다 않고 와주신 큰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될 수 있으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도리를 꼭 알아서 요 다음에는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난 정말이지 살기 좋게 됐다.' 고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되길 바랍니다.

※위 법문은 1999년 7월 31일 독일대법회때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대흥도원
기공 선도법 수련
(진중공, 단전호흡, 활도술)
수양, 수도 및 수련자
※ 숙식가 ※
0446)877-9051
경기 이천 흥북 감곡
장 호 원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갑상선 · 간질 당뇨완치
한국불교태고종 **서산사**
주지 한진성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전화 0667)761-5799
H.P 011)696-4848
팩스 0667)762-2204

강좌

남녀 철학원생 모집
◆인생의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사주에 있다.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다.
오복은 이것을 잘 분석하는
진정한 도인을 만남에 있다.
구달마포교원
02)999-4804/02)999-5551 **달마**
02)921-4804/02)928-5551 **스님**
051)418-4804

정/성/활/인/방
손끝의 활·인·술
· 십분활인 · 신체의 쌕은 탁기를 없애 고밝은 정기를 들여보내는 천연 활인법
정성활인술을 받으시면…
▶몸이 시원하고 가벼워진다
▶얼굴색이 달라진다
▶입맛이 바뀌어진다
▶눈의 생기가 돋는다.
02)518-2453

과학기술을 이용한 견성공부 수련테프 판매!!
①. 학습 집중력기인 릴렉스이즈를 이용하여 관법으로 쉽게 견성할 수 있음
②. 견성: 볼래야 볼 수 없는 성품이 볼래야 볼 수 없는 성품을 보고 그것이 나임을 깨닫는다.
③. 八苦해탈/습관/세균/감정/잡념/불안/만성난치로부터 자유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
http://min soo zen.pe.kr 017)609-9068

명리철학 배우실 분
◆단기간에 간명요령 터득, 책임지도
◆해득하기 쉽게 지도
◆초보자 환영
◆여가시간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18~20시) 주 3회 2시간씩(월·수·금)
◆교육기간 : 3개월
◆수강료 : 월 20만원
◆자세한 내용 방문하여 상담할 것
02)323-6748
16)288-6838

전통불교의식 학인 모집
◆ 습의과정 ◆
도량석·쇳송·상단예불·각단예불·불공시식
대령관욕·신중작법·지장청·관음시식
다비의식·특별의식등
◆ 기본반 · 중급반 · 통신반 ◆
◆ 지방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3개월
전통불교의식연구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77-1(봉은사옆)
☎ 02)511-0108

철학관 수강생 모집
02)
962-9871
자비원

구인

수맥파 (나쁜기운) 차단
1. 수맥찾기 강좌(신비의 추 L-로드)
2. 건강과 행운의 목걸이 종일 온몸이 나른 하신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 등
3. 수맥 차단제 판매
4. 활동 공간의 기 균형
02)734-2118/011)239-6817
대붕 氣 살림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11)
219-4366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50~60대 부부) 분은 연락바랍니다.
■공양주보살은 급료를 드림
■수세식 화장실 겸비
대덕사
02)3159-8886
02)3158-6977

법당보살님(처사) 구합니다.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중화사
0414)742-2057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개장

새천년 불교문화의 새장
견지불교사
불교용품 전문백화점(차, 다기, 도자기)
상운중심 1층에 OPEN
●언제 : 9월 10일 (금) 음 8.1 오후 3시
●위치 : 상운중심(조계사 입구)
※OPEN 기념품 및 10만원이상 구매고객 사은품, 이벤트 행사
견지불교사 · 상운중심점 - 불교용품의 모든 것
TEL 02)739-3032/739-3035 FAX 02)733-5755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기타

건강에의 신비! 준천玉山家 옥
고혈압 당뇨, 간경화, 폐암, 관절염, 두통, 정력부족 기타 성인병환자들이 이 옥을 활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건강상태에 따라 옥제품과 사용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대일광업 서울중앙판매소 玉山家 (02)777-0105

개 원 식

영인스님은 경주 신라 포교원 개원식을 앞두고 삼존불 조성 및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경주 0561)773-3703

전통범패 불교의식 모집
(기초반 · 중급반)
■강의내용:
예불, 아침쇳송, 저녁쇳송
상단축원, 중단작법태공,
도량석, 도량계, 복청계,
천수바라 태징 찍는 법,
북치는 법, 관음의식, 현자계
※개인지도 가능
0351)865-4893

天書 인연불자 보급
마음 다스리는 글 · 사업번창 이루고 고민 다스리는 글 · 화두 불 수 있는 글 · 불법 이루는 글

미륵보살님 홍강 만등불사
1등 - ₩5,000

※ 홍광 사진 보급 ※
미덕사 0441)852-8990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항상 피곤하신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간염, 당뇨병, 고혈압, 체질개선
정력증강, 손발냉증, 변비, 요통등...
■가격: 분말 230g 39,000원
환 250g 45,000원
동양물산(주)
02)832-0742 / 011)381-8157

납골당 분양
◆대리석 5층 석탑
◆수색에서 10분거리
◆관리비 없음
◆분양대금 1실당 250만원
◆초하루, 18일 지장기도 드림
대 덕 사
02)3159-8886
02)3158-6977

간 병 인
교육받은 전문간병인
항상 대기!!
불심깊은 불자간병인 TEL:02)363-7884
FAX:02)364-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탈종공고

탈종공고
보국불교염불종 총무원장 귀하
◇사찰명 : **대흥사**
◇주 지 : 장도암 스님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동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9.

탈종공고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귀하
◇사찰명: **고원사**
◇주 지: 석정현
◇창건주: **최태해 최수해**
◇소재지: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9.

탈종공고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귀하
◇사찰명: **보현암**
◇주 지: 원봉스님
◇소재지: 대전시 대덕구 장동 산 115-12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9.

탈종공고
(재)선학원 총무원장 귀하
◇주 소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읍 가야리 283번지
◇사찰명 : **왕천선원**
◇선원장 : **이상열**
상기 사찰은 귀재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9.

사찰안내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근교**
◆부지 : 약 1000평(대지 약 740평, 임야 250평)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미륵불, 해수관음상, 주차장
◆위치 : **경남 밀양시 산내면**
◆부지 : 300평 정남향
◆법당 및 요사 : 30평 /◆가액 : 8천만원
◆특징 : 입주 즉시 법회 가능하고 비구니스님 적합
◆스님직통 : (0527)391-7264
해동불사 이처사 합장
02)389-7880/ 019)390-6110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
◆대지 : 80평 외 추가사용 30평
◆건물 : 법당(단청) 30평/ 요사 : 35평
◆가액 : 3억 3천만원
◆특징 : 서울 도심에 위치한 포교도량으로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 연락 바랍니다.
미륵불, 석탑, 산신각구비
多寶佛事 02)3545-056
019)234-5506

사찰 안내
◆위치 : 부산시내 인가에서 100m산중, 바다가 한눈에 보임
◆부지 : 399평, 현 임법당
◆가격 : 2억 5천
051)248-9390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
◇법당 : 30평
◇요사 : 150평
◇부지 : 130평
◇가액 : 4억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양도 · 운영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원 안내
◆위 치 : 인천
◇부 지 : 180평
◇임법당 : 30평
◇가 액 : 1억 5천만원
◇강능고찰터 1천평(4천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723-4082/733-0108
광진불사

포교원 안내
◆위치 : 대전 중구 선화동
삼성생명빌딩(도청옆) 대림관광호텔 옆
◆대지 : 50평 3층 법당
◆시설 : 최고시설 완비
◆가격 : 시설비 3천만원
전세 3천만원(절충가능)
월세 가능
042)253-1016

사찰 안내
◆위치: **장호원 경기 이천**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만원(스님앙수시 대폭 절충가)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

사찰 안내
◆서울 경기지역 사찰 암자터
◆매입 운영하실분이나 양도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사찰 토목공사 불사상담
◆성실책임 비밀보장합니다.
011) 890-5779

포교원 안내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 321-47(89번 버스 종점옆)
◆평수 : 40평
◆삼존불, 영가단, 삼성각, 신중단, 방3, 세면장, 주방
◆가액 : 보증금 1,500 월7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8)385-1234

사찰(급) 안내
◆위치 : 천안시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용궁, 칠성각(각각 반목조 단청)
◆요사채 : 2동(석재 미륵입상, 탑, 대종, 명부시왕 10분 등
◆부지 : 1천 3백평(1년 쌀 한가마 도지)
◆건물 : 사찰등록, 개인소유 등기필
◆가액 : 1억
※ 아늑하며 식수 최고의 맛 ※
0417)566-5892/02)838-2929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합천
(댐부근 경관좋은도량)
◆부지 : 1100평 ◆법당:33평
◆요사 : 40평 ◆기타 19평
◆특징 : 신속비위틈에서 나오는 일급 생수 무한량 중공사면 당시소유된 공사금에 3억6천만원 급한사정으로 답사후 최저가격절충 시설비 일체 무상기증
0599)933-8599

포교원 안내
◆위치 : 미아삼거리
(길음전철역에서 3분거리)
◆평수 : 50평
◆가격 : 전세 7천만원
※ 시설비 무료 (A급시설 완비)
탱화, 부처님 등 일체 조성 완비
0366)432-4347
02)941-3195

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대전시
◆평수 : 40평
◆방 2개, 주방1,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칠성,산신탱화
◆가격 : 전세2300만원 시설비
◆즉시법회가능
019)211-853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 · 산신탱화
◆ 시설 완벽
◆ 가격 : 보증금 5백만, 월30만 (시설비 천 3백만원)
053)942-0700

토굴 안내
◆위치 : 광양시 진월면 부근
◆대지 : 137평(건평40평)
◆가액 : 3천 5백
◆천연안반수, 방3, 주방, 큰창고 (법당가능)
◆조용한시골 (바닷가 차편 10분거리)
0667)772-6968

포교당 안내
◆위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평수: 35평(포교 최적지)
◆가액: 5천만원(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 ※
02)307-2616
011)416-2782

사찰(급) 안내
◆위치 : 서울 노원구
◆대지 65평, 임법당, 건평 100평 (위층 법당, 아래층 요사채)
◆가격: 3억 5천만원
◆특징: 주차시설 완비, 전철역에서 2분거리, 주위에 아파트 5천세대 10월 입주-포교당으로 손색이 없음.
02)3391-4845/02)3391-4848
011)752-4842

사찰 안내
서울 · 부산지역
사찰구합니다.
서울 · 부산 시내 또는 근교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전화상담시 보안유지합니다.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근교(강남서 40분)
◆대지 500평(임대)
◆법당 18평, 요사 30평
◆산세좋음
◆가액: 답사후 절충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경기도 여주군내
◆부지 :1400평
◆법당 : 25평(주상포, 단청 완료)
◆요사채 : 2동 8평
◆산세 좋음
◆가액 : 4억 3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임법당 안내
◆위치 : 대전 중구 대사동
◆법당 : 15평, 방 총8칸
◆가격 : 답사후 결정
042)255-5063
011)9766-5563

토굴 안내
◆위치 : 함양군 덕유산
◆규모 : 대지 25평, 황토집, 5~6평 1채
임법당 및 요사채 30평
◆경관수려, 식수가 좋으며 종교부지 허가 받음.
◆가격 : 5천만원
0597)962-3528/011)842-3525
※현재 스님 거주중

사찰 운영하실 분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인구 밀집지역 ◆ 대 지 : 85평
◆ 건 물 : 법당17평, 주지실, 상담실, 거실, 방3개, 주방, 욕실(건평45평)
◆ 가 격 : 일억 팔천만원 (매매가)
◆ 특 징 : ●건축한지 3년 됐으며 사찰로 등기 되어 있어 어떠한 종교 행사도 할 수 있음. ● 건물 전면에는 주택 단지, 뒷면에는 야산에 산책로 조성되어 있음 (2K) ●전철역에서 택시 기본 요금거리 위치 (지하철4호선)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탱화 모셔져 있으며 법당 조성되어 있음. ● 단독주택이나 구조는 사찰용도로 건축하였음(현재 운영중) ●융자(오천만원) 할 수 있음
0345)419-3224 / 011)417-1008 스님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남산에 장애인 전용 산책로

생활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남산공원내 북측순환도로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산책로를 조성한다. 코스는 회현동(소파길)~예장동~국립극장 3.5Km 구간에 폭 8m로 오는 11월까지 조성된다. 이 구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등 각종 각종 편의시설 및 장비가 갖춰진다.

내년 우체국서 달러 바꾼다

통신 내년부터 가까운 우체국에서도 달러를 바꾸고 해외송금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전국의 우체국과 국내의 외환은행 영업점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업무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지방도시나 산간오지 섬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우체국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으로 농수산물 정보

쇼핑몰 농수산물 정보를 인터넷으로 한눈에 보면서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통합쇼핑몰(www.acim.or.kr)이 16일부터 가동됐다. 통합쇼핑몰은 초기화면에 들어가 품목명에 사고 싶은 농수산물을 입력하면 구체적인 브랜드명과 특징(환경·유기농산물·품질인증 등), 생산자·가격·매장 등 표준화된 항목을 보여주는 리스트가 나타난다.

'99 서울 오페라페스티벌

공연 오페라의 향연 '99서울오페라페스티벌' 가을 축제가 25일부터 10월10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무대에 오른다. 이번 축제에서 관객들을 찾아갈 작품은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 푸치니의 '나비부인'과 '라보엠' 등 3편. 공연문의는 02-580-1300

식초 넣어 세탁후 여름옷 보관

상식 여름옷은 보관하기 전 세탁할 때 식초를 약간 넣어 빨면 곰팡이도 방지되고 옷색깔도 선명해진다. 흰색 면옷은 표백제를 넣고 10분정도 삶은 뒤 헹궈 자연광에 말려야 오래 보관할 수 있다. 헹굴 때 쌀뜨물을 사용해도 표백효과가 있다.

걸을수록 심장질환 예방

건강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뉴잉글랜드 저널 오부 메디신 최근호는 40~65세의 여성 7만2천명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매주 3시간정도 30Km 빠른 속도로 걷거나 주당 90분간 운동을 하면 30~40%의 심장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

당명 바꾼다고 정치 잘하나

한국정당사 창당-합당-분당 되풀이
국민회의 신당창당에 비판적 여론

민주주의를 정당 창당과 합당의 횟수로만 따진다면, 한국은 아마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에 속할 것이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때 등록해 입후보자를 낸 정당은 220여개, 입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까지 합하면 300여개를 훨씬 넘는다. 우리의 짧은 정치사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다. 그러나 당선자를 낸 정당은 80여개에 불과하고, 2회이상 국회에 진출한 정당은 10여개에 불과하다. 이는 선거직전 급조되었다가 선거패배와 더불어 소멸되거나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노선을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의해, 또는 지도자의 행보에 따라 이합집산하여 다른 정당으로 흡수되거나 신당을 통합·창당하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회의가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말이 많다.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정명훈씨와 같은 음악인을 창당발기인으로 포함시켜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신당 창당이 이합집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최근 성인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당이 전국정당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견해에는 19.9%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을뿐 54.1%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은 이같은 우려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사(史)는 한마디로 '1인 지배의 역사'나 마찬가지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당을 만들거나 합치거나 깨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이었다. 85년 구신민당 중진과 민추협이 공동으로 만든 신한민주당에서 김대중·김영삼이 이끄는 통일민주당이 새로 만들어지고, 두 사람의 분열에 따라 통일민주당에서 빠져나온 김대중 현대통령과 그의 추종세력이 평화민주당을 창당한 것은 우리 정당사가 '오너정당체제'였음을 입증한다. 김대통령은 통일민주당에서 평민당으로 분당해 나온 뒤 신민주연합당(91년4월), 민주당(91년9월), 국민회의(95년)를 만들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통일민주당과 민정당, 그리고 김종필씨가 이끄는 신민주공화당과 3당합당을 통해 민자당을 만들었으며 이후 신한국당으로 정당 간판을 바꾸었다. 또 김종필 국무총리는 신민주공화당에서 민자당으로, 다시 민자당에서 분당해 자민련을 창당했다. 한마디로 이념과 정강정책은 '오너정당체제'에서는 쓰레기에 불과하며, 국민을 뒷전에 둔 채 '자신들만의 게임'을 즐겨온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가장 오랜 수명을 누렸던 정당은 박정희 전대통령의 민주공화당(17년5개월)이다. 그러나 이는 박전대통령의 독재에 편승했던 것일뿐이며, 대부분의 정당은 길게는 7년을 넘지 못했다. 심지어 이인제씨가 이끌던 국민신당은 창당 10개월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했다. 또 한국민주당→민주국민당→민주당→민중당→신민당→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민주당 등으로 이어져 온 야당의 변천사만 따져 보더라도 얼마나 심한 굴곡이 있었던가를 알 수 있다. 영국의 보수당이나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같이 1세기를 넘어 건재한 정당은 이런 처지의 우리에게는 꿈같은 얘기다. 일본의 경우는 자민당 신진당 사회당 등을 주축으로 정당정치를 펴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이념이나 정강정책이 분명히 서로 다른 정당끼리 이런 차이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후진국일수록 이념과 정강정책이 무시된 정객들의 이합집산이나 당명개폐가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에서 인물을 공천하는 상향식 공천제도 등을 통해 보스중심의 정당생리를 고치고, 권력의 분점과 균형을 이루는 법·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윤리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민주화는 결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한다는 점이다. 철저한 감시가 뒤따르고 엄중한 심판을 가해야만 우리는 '새로운 정당사'를 다시 쓸 수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이질, 학교급식후 100배 증가

위생감시 소홀…올들어 환자 1220명

전국 초·중·고교에서 집단급식이 실시되면서 법정 1종 전염병인 이질의 감염률이 50~10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97년 11명, 96년 9명, 95년 23명이었던 이질 감염자가 학교급식이 처음 실시된 작년엔 905명으로 폭증했으며, 올해들어서는 9월 현재까지만 122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초 대구의 3개 고등학교에서, 6월에는 부산과 충남 노산의 초등학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지난 1일에는 경남 마산고에서 300여명이 이질에 감염되는 전염병 발생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집단감염 사건이 일어났다. 또 8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생 67명이, 9일에는 충북에서 61명의 초등학생이 발병했으며, 14일에는 강릉대학생 250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등 그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세에 대해 방역당국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보건원측은 "학교 급식에 따른 집단 감염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라며 "과거에는 이질환자가 발생해도 한두명씩이었는데 지금처럼 동시다발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상 일반식품이 각 시도의 위생과에 의해 감독받는 것과는 달리 학교급식의 위생상태는 외부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셈이다. 서둘러 학교급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저울·계량기 속임수판매 '조심'

경찰청 8월한달 단속 748명 적발

'무게가 더 나가는 불량저울 사용하기' '저울에 달면서 슬쩍 손에 힘주기' '계량기가 헛돌게 해 기름용량 속이기' '양을 덜 넣어 포장판매하기'

정육점·횟집·건어물상·과일가게·야채가게·주유소 등의 저울질을 검사한 결과 드러난 여러 형태의 속임수들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한달간의 단속으로 748명을 적발하고 이중 13명을 구속했다.

어떤 횟집은 접시저울의 스프링을 탄성이 좋은 것으로 갈아끼워 무게가 1Kg에 200g씩 더 나가도록 했는가 하면 한 수산물가게 주인은 도미, 우럭 등을 플체로 떠 저울에 올려놓으면서 은근히 힘을 가해 실제보다 200~300g이 더 나가도록 했다. 또 한 갈비집은 1Kg에 30g을, 어떤 정육점은 40g이 더 나가는 전자저울을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으며, 참기름집과 건어물상, 반찬가게 등의 접시저울도 상당수가 100g 안팎이 덜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 하면 난방용 보일러에 기름을 공급하는 석유도매업체들도 유조차 전자밸브 등을 조작, 계량기가 헛돌게 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상당수의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은 실제보다 중량이 덜 나가게 포장해 시민들을 속였다.

〈분별업보경〉에 "말(斗)과 저울로 남을 속인다든가, 마음은 악하면서 말만 착한 체하여 언행이 성실치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다. 양심불량 상인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이다.

시론

달은 차는데…



이우상
〈소설가〉

"한가위 보름달 남과북 함께 바라볼 날은…"

달은 즈믄 강을 차별없이 비추는데 강물에 그려지는 달빛은 저마다 다르다. 흥분과 환희로 보름달을 가슴에 담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한숨과 탄식을 내뱉으며 둥근달의 넉넉함을 원망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큼만 되어라. 그 한가위가 바로 내일모레이다. 새신발 한 켤레, 진솔 한 벌 얻을 수 있었던 감격스런 명절이 다가온다. 그러나 올해는 저마다 내코가 석자라고 죽는 소리들이다.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의 포격을 받은 뒤끝이니 그 소리가 엄살은 아니다.

의미를 확대하자면 올 한가위는 금세기에 마지막으로 맞는 명절이다. 그런 거창한 의미가 무색하게 우리는 여전히 분단이란 족쇄에서 자유롭지 못한 축제를 치뤄야 한다. 북쪽에 있는 우리의 반쪽은 훨씬 더 가혹하게 초라한 차례상을 차려야 할 것이다. 그들의 삶은 인간의 존엄성이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진 처참함 바로 그것이다. 굶어 죽는 일이 비일비재한, 지구촌의 참상이 압축된 현장이다. 그것을 모른체하며 자비행을 외치는 입술이 부끄럽지 않을까.

그들의 삶은 바로 엊그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멀리갈 것도 없이 60년대, 그 시절엔 왜그리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은 없었던지. 군것질이니 간식이니 하는 말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절이었지. 장날이면 뻥튀기 장수의 곁에 오글오글 몰려앉아 철망자루의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부스러기를 서로 주워먹으려고 눈을 반들거렸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찬물 한바가지 들이키는 것으로 나른한 하오의 허기를 달래야했다. 채반에 담아 부엌 시렁에 매달아둔 삶은 보리쌀을 한움큼 퍼먹는데는 머리통이 얼얼하도록 두들겨맞을 용기가 필요했다. 미군 부대 근처에 살았던 아이들은 철조망 바깥에 설치된 쓰레기장을 뒤져 뭔가를 건져먹은 기억도 있다. 배고픔이 일상의 한 부분이었지만 어른들의 호령은 늘 매서웠다. 굶어죽어도 남의 것은 홈치지마라, 골아죽어도 빌어먹지는 말아라라고 하면서. 그런 세월의 굴을 지나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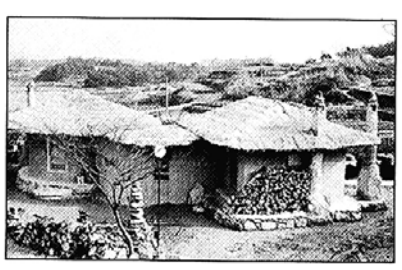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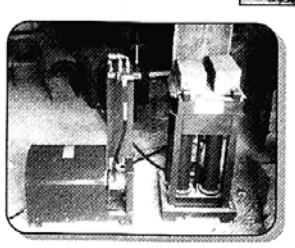
지난 여름, 북경과 연변 일대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난리의 뒤끝처럼 남루함이 자욱하고 대륙 전체가 온통 공사판이었다. 그런 와중에 공안원의 눈을 피해 이국의 골목길을 숨어 다니는 탈북 소년들, 이른바 꽃제비들을 만났다. 풍요의 땅, 구원의 땅이 중국인 줄 알고 목숨을 휴지조각처럼 등짝에 매달고 두만강을 건너 국경을 넘어온 아이들이다. 눈알을 반들거리며 두려움에 떠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내게 다가와 적극적으로 구걸하지도 못하는 그들의 염치에 되레 화가 났다.

핵과 미사일을 볼모로 미국을 상대로 끈질긴 협상을 벌이는 당찬 싸움꾼, 불바다와 수백배의 보복을 외치는 목청큰 소리꾼, 피골 상접한 아이들에게 미래를 맡겨야 하는 난감한 아비. 30만명이 넘는 탈북 식량 난민을 배출한 어미, 인신 매매가 무슨 말인지 모른 체 처녀들이 팔려가는 나라. 그것이 북한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조짐이 보인다. 미사일 발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북한에 대한 투 및 교역에 대한 제재를 풀겠다는 미국측의 목소리도 들린다. 회담의 주체가 누구니 하는 소득없는 논쟁은 접어두자. 무모한 소모전을 하염없이 치루며 나날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동포들의 몰골에 관심을 가지자. 새로운 세기에 맞을 한가위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 되길 기대한다. 이산가족들의 골깊은 슬픔이 눈녹듯이 녹고 우리가 조금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눠주며 풍성한 차례상을 차릴 날을 기다린다. 보름달의 풍요한 얼굴이 남과 북이 마주앉아 덕담을 나누는 이들의얼굴과 닮은 모습이길 기대한다. 서걱거리는 호전성과 분노에 찬 발언, 그것은 쫓기고 몰려 홀로된 자의 슬픔을 표출하는 다른 얼굴일 것이다.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94-8859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54-738-5000

수미정사에서 배우는 ···
무료기초교리·천수경강좌
저희 사찰은 재가불자의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찰로 위 강의를 무료로 개설하였으니 많은 불자들의 참여바랍니다.
다음
●개강 : 2개월 과정, 주 1회 150분 강의
- 기초교리반(10월 5일 오후 2시) 사찰의 하루/사원의 구조/예불문/불타의 생애/사찰탐방
- 천수경반(10월 8일 오후 2시) 천수경을 통한 불교 수행의 요체/불교한문
●강의 : 심준보 법사(동대 박사 수료)
●기타 : 교재 프린트물 나눠 드림. 매 수업 선체조 30분 지도, 시청각 자료 활용을 통한 재미있는 강의, 순환 강의이므로 개강후에도 수시 접수 가능
백화도량 수미정사 부설 재가불자교육원
동대문구 용두2동 118-87(동대문 구청 300M)
전화 02-929-0929 FAX. 02-929-1058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능력있는 교사, 성장하는 어린이 법회를 위한
불교 어린이 교사 양성과정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처럼 교육의 성패는 우수교사 확보에 좌우된다. 보다 우수한 인재를 어린이법회 교사로 유치하는 일은 법회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 본 양성 과정은 교사를 희망하는 초임교사나 정체된 자신을 극복하고 뜨거운 원력과 비전을 찾는 교사를 위해 제시되는 어린이법회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1999년 10월 1일(금) ~ 12월 27일(월)
교육시간

	요 일	시 간
주간반	월·수·금	오후 2시 ~ 4시
야간반	월·수·금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교육장소 본원 교육관(조계사 앞)
교과과정 및 교과목

교과과정	교 과 과 목
불교학과정	불교학개론, 불교교리발달사, 경전개설
교육학과정	교육학개론, 아동심리학(발달, 학습, 종교, 상담심리)
불교교육학과정	불교아동학, 불교교사론, 설법지도안 작성법, 불교학교 교육행정, 불교시청각교육의 이론과 실제, 찬불가 학습의 이론과 실제, 동화구연법
실기지도	레크리에이션(주의집중법, 게임송, 실내외게임, 폭댄스 캠프진행법, 레크댄스, 찬불가 및 율동의 지도원리
수련회 및 법회 참관	수련회 계획 및 운영, 참선지도, 신앙증장, 훈련, 초발의식 등 수련회의 모든 프로그램 수업, 우수 어린이 법회 참관
의 식	예불의식, 천수경독송의식 및 제반 법회 의식
특별법회 및 특강	2부법회, 반환동, 생일잔치, 기념법회 등의 실제, 우수단체의 운영사례를 초청강의

입학자격 : 1)어린이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 2)불교 유치원 교사 및 사찰 어린이법회 교사 재교육 및 신임교사
입학정원 및 접수마감 : 1)정원: 30명(선착순 제한 접수) 2) 마감: 9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수 업 료 : 300,000원(2회 분할 가능)
원서 접수 및 문의 : 불교교육연구원(725-7527)
교사가 변화되어야 법회가 산다!
2000년 3월, 신학기를 위해 미리미리 교사교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불교교육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아미타춤 구품연지회 이색포교

회원 9명 모두 조계종 여성포교사

불교 香功에 한국전통무용 접목

사찰·군·교도소 법회 찾아 춤공양

"이 도량을 불법가피 충만하도록 수호하시는 불보살님께 연꽃 헌화 하옵니다. 섭수하여 주옵소서, 나무관세음보살…"

3일 영등포교도소 불교법당에는 1백여명의 재소자들이 아름다운 불교춤에 흠뻑 빠져들었다. 춤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고, 감동으로 신심을 일으키며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아미타춤 구품연지회(회장 오영희) 회원들이 영등포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 춤헌공 무대를 펼쳤기 때문이다.

긴 호흡과 수인(手印)으로 한동작 한동작을 펼쳐보이며 선정에 잠긴 듯 고요하고 오묘한 감동을 전하는 불교춤을 바라보던 재소자들과 그들을 위해 춤을 추던 아미타구품연지회 회원들 모두가 마음의 교감을 통해 불자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다.

교계 최초로 경전음악 춤 포교를 시도한 아미타춤 구품연지회는 회장 오영희씨를 비롯 9명의 회원 모두가 조계종 포교사로 활동중인 50~60대의 여성불자들이다. 지난해 건봉사에서 열린 전국염불만일회에서 처음으로 관음무를 선보인 이후, 올해 4월 아미타춤 구품연지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돌입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춤으로 표현하는 포교방법이 예상외로 좋은 호응을 얻었고, 또 교계에 이같은 포교활동을 하는 단체도 없어 내친김에 보다 적극적인 신행활동으로 해보자는 생각에 의기투합해 시작한 것이다. 정식 창단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관음무와 법륜상전 아미타춤 등을 정토사 설산스님에게 선보여 인정을 받기도 했으며, 그동안 각종 사찰법회와 군부대 불상점안식, 장애인초청법회 등 신행현장에서 대중에게 춤헌공을 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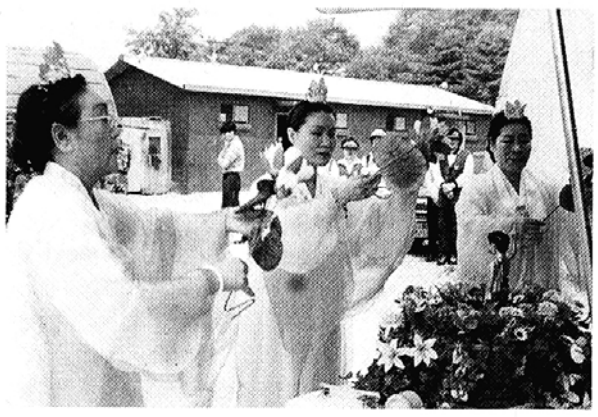
부처님 가르침을 춤으로 표현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보성 대원사에서 철야기도를 하며, 현장스님으로부터 향공(香功)을 직접 배우기도 했다. 향공은 티벳밀교의 개산조인 연화생대사가 말세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베풀어 놓은 기공해법이다. 또 한국전통무용의 기반을 다지기위해 국수호씨의 전통무용공연을 직접 보러다니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하기도 했으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안국동 금연해금 빌딩 지하 1층 연습실에서 꾸준히 무용연습을 하고 있다.

이날 영등포교도소에서 선보인 춤은 김수철 작곡 팔만대장경의 '구천으로 가는 길' '천상의 문에서'를 배경음악으로 우리 전통춤사위와 불교의 향공(香功)기법 가운데 하나인 법륜상전(法輪上典: 법륜을 굴리는 모습을 손으로 표현)으로 작법한 것이다. 중생이 지극한 초발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수행정진하여 무명과 고통에서 벗어나 불법을 널리 베풀고, 스스로 보살도를 이룬다는 것을 춤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회장 오영희씨는 "전문무용가가 아니어서 미숙한 부분도 많지만 춤속에 부처님 말씀이 담겨있고, 우리의 역사와 불교의 수행기법이 어우러져 있다"면서 "신행활동에서 우러나온 깊은 신심과 경전공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교춤을 연구 개발해 새로운 포교장르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군포교현장에서 아름다운 동작과 수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춤으로 표현하는 아미타춤 구품연지회.



명사들의 건강비결 ⑰



한 갑 진 〈한진흥업주식회사 회장〉

폐결핵·장수술·다리골절로 고생
돈독한 신행 건강 되찾은 비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매일 운동을 하며 채식 위주로 소식을 한다. 과욕을 부리지 않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한진흥업주식회사 한갑진 회장(76)은 철저히 건강을 챙겨왔다. 얼핏 보기에는 건강에 너무 매달리는듯한 느낌을 줄 정도다. 하지만 한회장에겐 그저 일상일 따름이다. 그리고 이런 일상을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비결은 따로 있다. 바로 깊은 신앙생활이다. 그래서인지 나이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려진 걸음걸이를 빼고는 70이 넘은 고령이라고는 생각치 못할 정도의 건강한 모습이다. 특히 큰 체구에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얼굴과 미소가 매우 인상적이다.

한회장이 70이 넘은 인생을 7살 아이의 얼굴로 살 수 있게 된데는 이유가 있다. 서른살에 폐결핵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데다 쉰한살 때는 장수술을 했고 예순살때는 다리골절상을 입어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그러나 이런 병고를 이겨내기 위해 한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에 더욱 매달렸다. 어떤 병이든 정신력이 뒷받침돼야만 제대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돈독한 신행생활이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한회장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1시간여동안 남산에 올라 운동을 한 후 아침식사 전 예불을 올린다. 삼귀의를 시작으로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경전을 독경한 뒤 축원을 올린다. 30여분간의 예불동안 한회장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정신을 가다듬는다. 물론 잡자리에 들기전 저녁예불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하루는 편안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벌써 40년째니 '평상심'을 유지하며 자신을 다스릴 수도 있게 됐다. 물론 때로는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욕심을 내지 않고 무리한 일은 피한다. 일을 즐기고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낀다. 이러니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회장은 누가 건강비결을 물으면 "부처님 법을 따르고 실천하는 과정이 바로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답한다.

돈독한 신앙생활을 통한 철저한 자기관리, 이것이 한회장의 건강비결이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철저한 자기수행이 불교 교육"

김종서 박사, 토요여성강좌서 강의

조계종포교원 산하 가칭 불교여성개발원 설립을 위한 토요여성강좌가 11일 오후 2시 30분 포교원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21세기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불교교육'을 주제로 강연한 김종서박사(서울대 명예교수)는 "철저한 자기수행과 개발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교육방법이 바로 불교적 교육"이라면서 "미래 사회의 불교여성의 중심추가 되기위해 불교여성개발원은 연구, 교육, 봉사를 과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좌에는 20대~60대 여성불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방송사 한가위 특집 '풍성'

BBS 역사기행 '민족의 뿌리…' 눈길
K-1TV 국악한마당 · EBS-TV 어린이 명창 방영



민족 최대의 명절인 팔월 한가위. 풍성한 차례상만큼 각 방송사의 특집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우선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23일부터 3일간 대담, 음악, 한가위 물가와 교통편, 다큐멘터리 등 다채로운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불교방송의 이번 특집 프로종 눈길을 끄는 것은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오후5시5분~오후6시), 고구려 역사의 근원지였던 졸본성에서부터 발해 불교문화의 중심지인 중국의 돈화까지 숨겨져 있는 민족의 역사를 찾아 순례하는 역사기행 다큐멘터리다.

또 혜거스님(금강선원 원장)과 본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출연해 불교식 차례 의식과 명절의식의 불교화에 대해 설명하는 '생활속의 불교 이야기'(오전10시5분~오전10시50분)와 우리 가락과 민요를 한가위 전통 풍습과 함께 소개하는 '괄도소리 한마당'(저녁 7시10분~저녁7시55분) 등은 흥겨운 명절 분위기를 돋구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집에는 이외에도 △'희망과 기쁨으로'(오전7시5분~오전8시) △특별대담 '원로에게 듣는다'(오전8시10분~오전9시) △'우리의 명절 한가위 황청원입니다'(오전11시5분~낮12시55분) △훈훈한 정을 나눕시다(저녁6시15분~저녁7시) △추석, 어제와 오늘(저녁8시5분~저녁9시) 등이 방송된다.

KBS-1TV는 25일 아침10시부터 60분간 안숙선, 김성녀, 박동진 등 국내 유수의 국악인들이 총출동해 명절에 맞는 우리 가락을 선사하는 '추석특집 국악 한마당'을 마련한다.

또 EBS-TV는 미래의 명인, 명창을 꿈꾸는 어린이들의 국악 기량을 한 것 뽐낼 '제4회 어린이·명인 명창전'(사진)을 24일 오전10시부터 60분간 추석특집으로 꾸민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청소년 단신

전래놀이 한마당 개최
'대불어' 내달 봉은사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서울 경기지구(회장 원혜스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오후 4시 제 4회 선재 어린이 전래놀이 한마당을 봉은사에서 개최한다.

모둠놀이와 개별놀이, 대동제 등으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어린이불자에게 올바른 놀이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바른 놀이문화를 통해 잃어버린 우리 전통놀이를 보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경기지역 초등학생과 지도자 1,200여명이 참석, 어린이포교방안의 새로운 모색과 상호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다.(02)433-1506

어린이법회교사 양성과정

불교교육연구원(원장 황학현)은 제5회 어린이법회 교사 양성 과정을 개설한다.

어린이법회를 지도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주야간반으로 나눠 불교학, 교육학, 불교교육학, 실기지도, 수련회 및 법회 참관, 의식 등을 지도한다.(02)725-7527

청교련 문화재보호 활동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12일 서울 종묘 및 탑골공원(사진)에서 '99청소년자원봉사한마당 활동을 전개 했다.

이날 행사에서 청소년들은 우리 문화재를 내손으로 보호한다는 자세로 종묘, 종묘공원, 정전앞, 탑골공원 등의 잡초제거 및 공원내 휴지줍기, 껌떼기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서울시의 후원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중고생 100여명이 참가했다.

BBS 명예통신원 위촉
스님·재가불자등 34명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1일 각종단 및 신행단체의 소식을 청취자들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스님 및 재가 불자 등 34명을 선정해 'BBS 불교방송 명예통신원'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선정된 통신원들은 앞으로 교계 행사는 물론 방송에 직접 출연해 각종 법회와 효행 및 신행 등 미담사례를 소개한다.

방송단신

불교만화 철인사천왕
SBS-TV 17·24일 재방

올해 2월 국도극장을 비롯해 전국 개봉관에서 인기리에 상영됐던 불교 애니메이션 '철인사천왕'이 17·24일 양일간 안방극장 시청자에게 선보인다. 일본 만화영화의 범람에 맞서 SBS-TV가 재방영키로 한 것. 국내 최초로 디지털 3D 컴퓨터그래픽 기술을 응용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 영화는 삼장법사에 의해 갇혔던 여덟 요괴가 지구를 파괴하려 하나 철인사천왕이 이들을 물리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성 명 서

이땅에 불교가 전래된지 어언 1600여년, 온갖 홍망성쇠를 당하여도 통도사만은 굳건히 이 자리를 지키고 한국불교의 지주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일제 불교 36년 불교정신 말살정책에서도 비구승들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해방이후 이승만 정권의 올바른 판단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은 탄생하였다.

그러길 어언 50여년상, 어느때는 총무원장 자리를 서로 양보하고 사양하면서 도의 근본을 위주로 삼아 왔다.

세속의 변화에 승가도 급속한 변화가 뒤따라서 총무원장 3선을 강행하려고 하였다. 그때가 1998년 우리는 월하종정 큰스님을 모시고 3선은 절대 불가함을 외치며 승려대회에서 삼선 저지를 하였다.

그러나 종권욕에 탐착한 그들은 70여명의 스님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온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7000여명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총무원 청사를 초토화 시켰다. 당시 지키든 스님들을 모두 범법자요 깡패 투성이로 몰아 부치면서 함께 수행정진하던 도반 사형사제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였다. 최고의 원인 제공자는 지금도 의기양양해 하면서 불이익은 전연 당하지도 아니하고 온갖 정부행사 또는 종교행사에 대부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중에 온 통도사가 종정스님을 중심으로 반대투쟁을 하는 동안 기회주의자들은 수수방관만하고 기회만을 엿보았다. 공권력에 청사를 강점한 집단들은 통도사에 온갖 음해와 분란을 조장하고 영축총림을 해재하고 해남사, 문수사, 관룡사를 직영사찰로 힘으로 몰아 부쳤다. 통도사 방장 월하큰스님은 울산지법에 부당함을 재소하여 1999년 8월 25일자로 이유있다 인정되었다.(99카합 931)

이러한 혼란을 틈탄 일부스님들은 2일후 오고산 총무원측으로 빌붙어 주지직 무대리를 임명받아 불량 폭력배와 위장승려들을 동원하여 온사이며 방장큰스님을 힘으로 몰아 부치려다 쫓겨났다. 세속에는 부모를 고발하는 패륜아도 있다는 소식은 들어도 신성한 종교단체에서 자기를 평생을 돌봐주고 보살펴주던 은사를 주지직을 위하여 법원에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까지한, 하늘도 울고 땅도 울어야할 통탄할 지경에 이르렀다. 과연 주지직을 위하여 이렇게 패륜적인 행동을 하여야 하는가, 은사의 후광으로 평생을 어려움 모르게 잘살아 오던자들이 혼란하다 하여 틈을 비집고 아귀다툼식의 기회주의자여서야 되겠나. 또한 주지직을 받기 위하여 온갖 감언이설로 본말사 주지들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정당한양 신문에 지지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통도사 전대중의 뜻이 아니었으며, 종무소도 모르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방장 월하큰스님은 어떻게 하든 화합이 목적이라는 굳은 신념하에 화합의 서명날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방장큰스님의 절대적인 뜻을 따르겠다는 140여명 재적승과 본말사 주지스님들의 서명날인을 받았다.

오늘까지는 이념과 생각차이로 발걸음을 달리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문중이며 은사상좌 사이며 사형사제 지간이 아니겠는가. 우리서로 내일을 위한 오늘의 한생각을 돌이켜 더 이상 반목하지 맙시다. 그것이 곧 통도사를 위하는 일이며, 화합의 길이 아니겠는가.

통도사 대중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방장이신 월하 큰스님을 모시고 수행과 정진을 목적으로 한다.
1. 통도사는 한 문중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화합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1. 방장이신 월하큰스님의 인정없는 주지는 절대 불허한다
1. 분란을 조장하는 몇몇 스님들은 더 이상 분란을 조장하여서는 안된다.

1999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전계대화상 현산스님, 종회의원 정각스님, 웅촌 관음사 향과, 자비원장 진철,
석남사 주지 영운스님, 대원, 상후,
내원사 주지 혜등스님, 지의, 진성, 현도, 송일, 상오, 도응, 하담, 혜준, 우진, 성훈
노전암 능인, 성준, 인행, 성기, 혜성
표충사 - 신허, 무봉사 - 도문, 석골사 - 선운, 흥제사 - 법마
용궁사 - 정우, 오목암 - 영현, 서원사 - 지원, 백락선원 - 성현(강원도),
서원사 - 성민, 구룡사 - 정우, 각광, 성화, 성전, 홍재
서래사 - 자명, 남산사 - 지용, 혜용, 청룡암 - 종현,
봉국사 - 각성, 각현(대전), 천경사 - 수원, 문서포교원 - 지인, 법경,
지산사 - 지용, 지봉, 연화사 - 도웅(경기도 성남시)
보림사 - 허운(안양시 동안구), 반야정사 - 서원(서울 강서구),
도성암 - 만천, 극락암 - 정호, 덕운,
오복암 - 혜원, 보문사 - 신행, 산재(밀양), 금강암 - 선주,
청련사 - 원진, 서운암 - 성파, 동진, 법화암- 법운, 비로암 - 원명,
금수암 - 여산, 소림사 - 허주, 보문암 - 덕봉, 보타암 - 재근,성수,
취운암 - 상우, 백련암 - 정행, 칠성암 - 진성, 사명암 - 동원,
안양암 - 무애, 서축암 - 용성, 청송암 - 중래,법천, 원광사 - 지일,
보현사 - 지합, 축서암 - 수안, 반야정사 - 영하, 목대우(서울 공항동),
덕천사 - 원천, 법천사 - 현대, 태안사 - 문성, 익성암 - 석전,
정법사 - 지태, 계원사 - 대하, 문수사 - 도각, 동축사 - 용문,
미타암 - 혜오, 용은, 법수원 - 석산
백련암 - 자고, 백양사 - 지은, 시연, 창녕포교당 - 야산,
양산포교당 - 혜철, 용화사 - 우민, 석불사 - 진성, 수도암 - 중선,
우량암 - 관우, 통도사 - 상경, 법상, 원정, 각운, 정석, 관문, 무상, 성오,
원상, 부현, 혜원, 현초, 현장, 지수, 대주, 보문, 해운, 성열, 정일, 영노,
각문, 명오, 원각, 정현, 덕우, 초한, 종석, 양진, 법기, 자하, 지봉, 오심,
지안, 거산, 동하, 명일 (이상 무순)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추석 선물 상품 특판전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몰.부다피아>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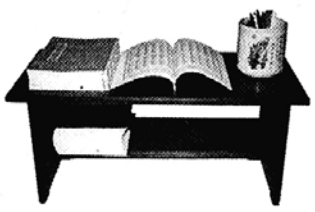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마하몰에서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소중한 분에게 마음을 전할수 있는
한가위선물 기획 특판전을 마련했습니다.

빠른 서비스, 고급화된 매장, 깜짝퀴즈의 상품,
현상공덕향 마하몰 경품 대잔치 등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마하몰은 생활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것입니다.

(마하(摩訶)는 범어 maha의 음역으로서 일반적으로 크다는 뜻과
많다, 초월한다, 신묘하다는 뜻으로 경전의 이름이나 불교용어의
앞에 붙어서 그 의미를 확대 해주는, 불자들에게 친숙한 불교용어 입니다.)

경 상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경의 길잡 · 스님 요사채 · 공적돈의 경건함기 · 자녀들의 학습

- 크기 :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 재질 : 느릅나무 완전원목
- 가격 : ₩85,000

옥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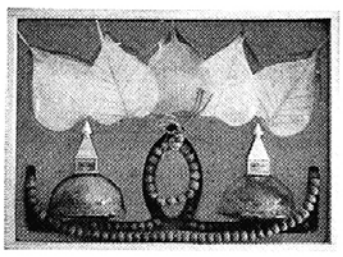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동의보감 신침(神枕) 비방 한방 베개란?
東醫寶鑑 神枕法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황제에게만 비밀 전승되어 온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생약을 잣나무 함에 넣은 베개로서 "1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면 체내에 모든 병이 개선되어 몸에서 향기가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이목(耳目)이 청명해진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당신에게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당신에게 · 뭡은 수업을 하더라도 최고의 꾀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만성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당신에게 · 베개 높이는 수영과 직결 - 최적의 높이를 찾으시는 당신에게 · 피곤하거나, 결리는 신체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줄 안마사가 필요하신분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분 코골이는 코고는 본인에게 더 위험합니다.

- 가격 : ₩30,000(1개), ₩56,000(2개 한세트)

석가모니불 탄생관련 성품



성품내용: 성염(오색엽), 성토, 성수,성주 <민중서 참부>

본 성품을 소장하거나 늘 가까이 하면 삼재팔난 소멸, 소원성취, 무병장수무사안전 입시필승, 순산, 항마, 좌유 한다하니, 이 성품을 소장하는 불자 모두가 석가모니부처님의 자비로운 탄생축복을 골고루 나눠받아 늘 행복한 삶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봉성품은 네팔 룸비니 동산을 복원하기전 있었던 아소카 탑 및 상수 마야왕비, 살트리를 얹은 피플트리로 만든 탄생관련 성품입니다. 사원에 있었던 것으로 만들어 1000세트 한정판매 합니다.

- 가격: ₩148,000원

패각 불상 (貝殼佛像)

신상품



담수 진주를 양식하는 방법으로 3-7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물 속에 진연상태로 양식한 천연진주입니다. 연좌대는 다른 응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소불 안치 등) 원하는 상(像)에 맞추어제작해 드립니다.

패각상 :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비로자나불

규격 : 25cm X 30cm(가로 X 높이)

- 가격:₩100,000

반야심경지통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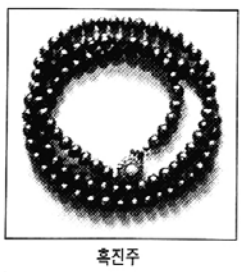


돌가루를 사용하여 반야심경을 양각으로 만든 지통. 붓글씨 한지종이 모음통. 실내장식용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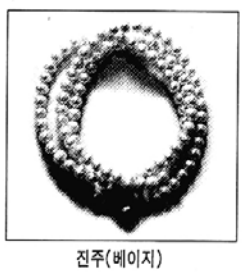
규 격 높이 32cm, 지름 25cm (지통 대)
높이 26cm, 지름 20cm (지통 소)
재 질 대리석 석분(돌가루)

- 가격:지통(소) ₩140,000
  지통(대) ₩220,000

108 진주목걸이



흑진주



진주(베이지)

천연 담소진주를 이용하여 만든 목걸이

- 가격
  16,000원(베이지 3mm)
  30,000원(베이지 5mm)
  40,000원(베이지 8mm)
  50,000원(흑진주 8mm)

달마순금액자

신상품



상반신



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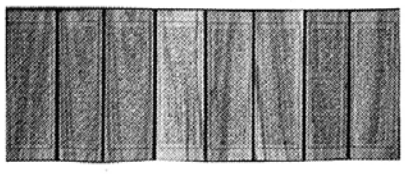
달마도의 대가 해원 윤종우 선생의 그림을 순금카드(99.9%) 위에서 느껴보세요 개인소지 벽걸이용, 선물용으로 최상의 제품입니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액자 크기 : 27cm X 32cm
순금판크기 : 10cm X 15cm
실용신안등록 No 24066 호

- 가격:₩120,000

향나무 금강경 병풍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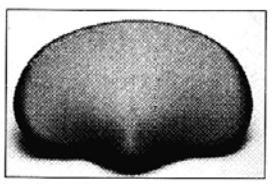


- 규격 : 8폭,
- 크기 : 가로 102cm × 세로 38.7cm

▶가격: ₩50,000
(고급 오동나무 Box 포함)

최고급 먹박인쇄(볼펜)
- ◆차례나 성묘(직접 지니고) 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전 공부할 때 경상위에 놓으면 다른 사물에 방해되지 않게 정진할 수 있습니다.
- ◆사찰방문 및 귀빈께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불자님들은 각 가정에 한점씩 소장하세요

참선 명상방석



국내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 · 명상 · 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지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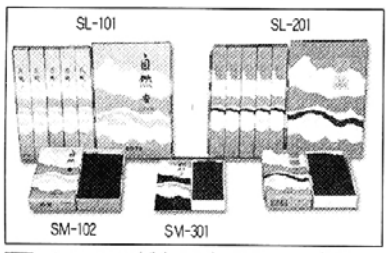
제품의 특징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진다.

크기가 작아 휴대 · 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 · 방석 위에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사용처는 사찰, 신행단체, 선방, 심신 수련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제품

- 크기 39×43(cm) - 가격 : ₩27,000

머리가 맑아지는 순수 장연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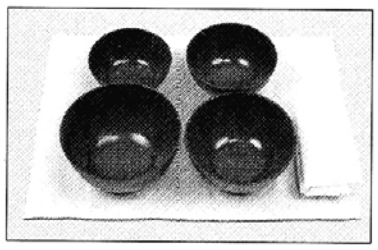
참나무 숯탄가루

본제품(향)은 국내최고 양질의 참소생탄과 세계적인 최고급 천연 향료만을 사용, 오랜 전통의 비법으로 만들어진 향제품으로, 특무연향등을 개발 청정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본제품을 사용하는 지역은 전위가 높아지고 동시에 자기(磁氣)도 강해지며 전자장이 높은 최경지역으로 된다는 과학적 근거도 학계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 규격 : (가로×세로×높이)
  · SL-101 26.5×16.5×5cm
  · SL-201 26.5×16.5×3cm
  · SM-102 15.5×8.5×3cm
  · SM-301 15 × 15×2.5cm

가격 · SL-101 ₩10,000(개당 ₩2,000) · SM-201 ₩12,000(개당 ₩2,400)
· SL-102 ₩4,200 · SM-301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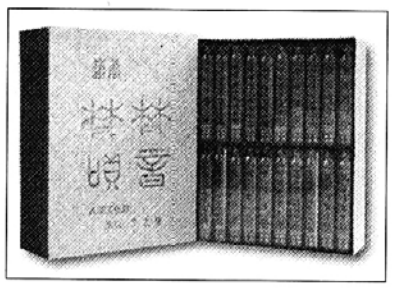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발우



발우는 스님들이 항상 지녀야 할 도구의 하나로 빕그릇을 말한다. 원어는 빤다라(鉢多羅-patra)인데 재료나 색깔, 양은 규정된 법에 따라야 하므로 '양에 맞는 그릇(應量器)'이라 해석한다.
〈율장〉에서 본래 규정은 나무로 만든 발우를 사용하지 못하게하였고 칠발(漆鉢)이나 와발(瓦鉢)을 사용하게 하였다. 본 제품은 해인사 율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盂)이다.

- 가격
  - 와발우(4합) - 가 격: 60,000원 무게 : 2.7Kg
  - 와발우(2합) - 가 격: 30,000원 무게 : 1 Kg
    (2합은 채가 불자를위한 발우 입니다)

문구암 스님 범음 · 범패집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테이프 1질

· 불공의식, 삼십이운, 영산작법, 관욕의식 등 분야별로 녹음되어습니다

Ⅰ불공의식 2삼십이운 3신장청 · 손중권공 4상단청 5. 상단권공 · 거목 6.대령 · 관욕의식 7.대령 · 관욕의식Ⅱ 8.대령 · 관욕의식Ⅲ 9.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영산작법Ⅰ 11.영산작법Ⅱ 12.영산작법Ⅲ 13.영산작법Ⅳ · 지장청사Ⅰ 14.지장청사Ⅱ · 지장권공Ⅰ 15.지장권공Ⅱ 16.전시식 17.배송 18.운신게 19.법사이운 · 영전점안 20종성 · 천수작법 · 요잡

- 가격 : ₩60,000

옥돌 액자



아름다운 옥돌로 만든 액자로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사진 등 각종 기념이 될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선물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추석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몸에 좋은 옥에 사진을 넣어 보내 드리면 훌륭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색상 : 베이지, 분홍, 녹색

- 가격
  대 - 17.8 X 22.5 cm (가로x세로) : 15,000원
  중 - 3.7 X 18 cm (가로x세로) : 10,000원
  소 - 7 X 9 cm (가로x세로) : 3,000원

바위속에 숨은 부처



바위속에 숨은 부처. 대자대비 바위속에 숨은 영겁의 미소를 영상으로 보며 더위를 식힌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믿음의 대상인 부처님상을 많이 조성하였고, 이름있고 성스러운 산, 특히, 경주 남산은 불보살이 머물러 있는 신령스런 영산으로 믿어 수 없이 많은 마애불과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형문화재 등 빼어난 유물들이 불국정토 화엄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선인의 혼이 서린 성역임을 실감케 한다.

〈제작〉 대정프로덕션
문화관광부 등록 제1호/구성,감독-황기태
상영시간 : 바위속에 숨은 부처 - 40분
반야용선 - 30분

- 가격:₩13,000

연꽃 양면 손 자수 (소장용 작품)



머리카락 굵기의 실을 이용하여 오랜시간 불자님 손안에서 수만 수십만번의 섬세한 자수 작업으로 한올 한올 수놓아져 세겨진 놀라운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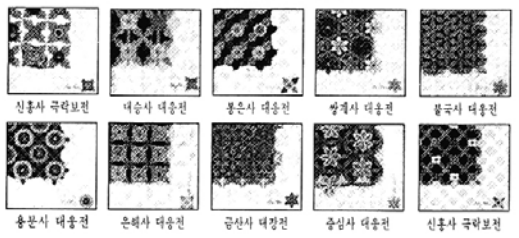
신심이 바탕이 된 기술로 심혈을 기울여 세겨놓은 불교 예술품에서 자수 미술의 극치를 경험하십시오. 수 놓은 면 앞뒤를 유리로 투명화하여 전등 빛이나 촛불이 어우러질때는 경이로움과 신비로운 감동이 함께 할 것입니다. 흔치않은 연꽃자수 명품의 소장자가 되십시오. 작업시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므로 공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양면수란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세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수 기법 (앞뒤를 보아도 똑같은 형체가 나타남)
- 액자크기 : 25 × 25cm(받침대 포함)

- 가격: ₩600,000

불교전통 창살문양 손수건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창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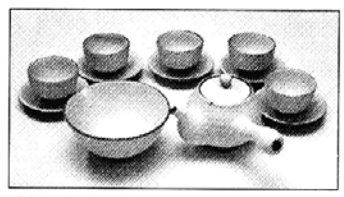


- 재질 순면 100%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5,000

다량 주문시 할인해여 드립니다

고산다기



고산 이규탁 선생은 임진란때 일본으로 강제납치 되었던 조선도공 팔산의 혼을 사백여년만에 한국에 되돌려온 도예가이다. 팔산의 심일대손인 고최정선선생이 그 조선진래 비장의 도예술인 그 불꽃을 조국에 되돌리고자 한국의 도예특기자를 전국의 수많은 지망생 중에서 선발하여 일본으로 데려가 그 문하에서 5년간 기법을 연마시켰던바 그 수제자가 이규초 선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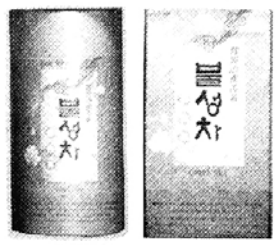
이리하여 이규초 선생은 그 도예진수를 발휘하여 국내외 전시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내고 있으며 따라서 고산 이규초선생은 일본삼신기의 예술혼의 불꽃을 현해탄을 건너 고국에 옮겨놓은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제품은 이러한 역사를 지닌 고신요(高山窯)에서 만들어 진 다기이다

고산 이규탁 선생은 임진란때 일본으로 강제납치 되었던 조선도공 팔산의 혼을 사백여년만에 한국에 되돌려온 도예가이다. 팔산의 심일대손인 고최정선선생이 그 조선진래 비장의 도예술인 그 불꽃을 조국에 되돌리고자 한국의 도예특기자를 전국의 수많은 지망생 중에서 선발하여 일본으로 데려가 그 문하에서 5년간 기법을 연마시켰던바 그 수제자가 이규초 선생이다

이리하여 이규초 선생은 그 도예진수를 발휘하여 국내외 전시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내고 있으며 따라서 고산 이규초선생은 일본삼신기의 예술혼의 불꽃을 현해탄을 건너 고국에 옮겨놓은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제품은 이러한 역사를 지닌 고신요(高山窯)에서 만들어 진 다기이다

- 가격:₩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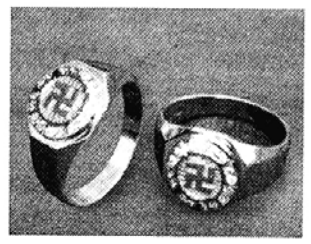
불성차 (佛性茶)



불성차는 지리산 심산유곡의 야생 차밭골에서 갓 피어난 어린 녹엽을 손수 채엽해
등(鎭)가마솥에 전승비법으로 빚어낸 전통 수제차로서 깊고 은밀한 맛과 향
그리고 신묘한 색의 조화가 한데 어우러진 한국 최고의 명차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의 선물을 보내세요

- 가격: 우전 : 90,000원
  세작 : 50,000원
  중작 : 30,000원
  대작 : 20,000원

반야불교반지



불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16개의 류찌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륙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意力), 행력(行力), 참력(慙力)
강력(强力), 지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번력(福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총법력(正法力)
항마력(降魔力)

- 제질 금규락(18k,14k-15존) - 가격 : ₩130,000(18k), ₩120,000(14k) -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쑥 환



- 가격 : ₩55,000
  (1달분 1통 (1500정)
- 가격 : ₩80,000
  (2달분 2통 (3000정)

3년 숙성시킨 강화사자발쑥 쑥 환 으로 드십시오 !

사자발 쑥 환이 좋은 3가지 이유
1. 복응과 휴대가 매우 편리합니다
강화사자발쑥 환은 기존의 환제품과는 달리 쑥 특유의 쓴 맛을 꺼려하는 남녀 , 노소 특히 어린이도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휴대나 보관도 매우 편리합니다
2. 효과가 빠릅니다
쑥 환이 효과가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저녁 과식후 속이 더부룩 할 때 20환 정도를 드시면 다음날 아침 속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쑥 100%입니다
사자발쑥 환은 순수 강화사자발쑥 100%로 고품질의 강화도 특산품입니다(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쑥 환 제품중에는 쑥을 달이지도 않고 분쇄후 풀하고 섞어서 환으로 만든 제품도 있는데 주의 바랍니다.)

향적원...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찌	12,000원
· 밤장	7,000원	· 된장 종일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옛일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갈 장아찌	12,000원	· 윤회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향나무 열쇠고리



고급향나무로 제작했습니다. 부담없이 선물하세요.

300개 이상 주문하실 경우 원하시는 문구 넣어드리며, 500개 이상은 원하는 디자인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 가격
  안전운행 3,000원
  재수대통 3,000원
  소원성취 3,000원
  달마 향 3,000원
  향 합장주(8mm) 800원

법회안내

26일 봉은사 일요법회



무진장스님(동산법회 법주)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봉은사 일요법회. (02)511-6070

9월 진흥원 다보법회



혜담스님(각화사 주지) 29일 오후 2시 대한불교진흥원 9월 다보법회. (02)703-0108

월정사 군인법회

선우스님(월정사 포교국장) 격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정사 서별당 군인법회. (0374)332-6664

근본불교 강의



최봉수교수(동국대)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2시 우리는선우법당 근본불교강의. (02)2278-8672

동산불교 청년회 법회

민병흥법사(동산불교청년회 지도법사)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동산불교청년회 법회.(02)732-1206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9월24일 (금)

■오어사 보경사 답사=여래지는 해돋이를 제일 먼저 맞이한다는 구룡포 장기곶과 보경사, 오어사 등지로 무박 2일 답사를 떠난다.(02)3445-0202

9월27일 (월)

■심원사·도피안사·청원사 참배=용진신행회는 오전 6시 30분 철원 심원사 지장기도 및 도피안사, 청원사 참배법회를 떠난다.(02)2279-1191

9월29일 (수)

■탑골공원 무의탁노인 무료급식=우리는 선우는 오후 4시~오후 6시 탑골공원에서 무의탁노인 무료급식자원봉사를 실시한다.(02)2278-8672

■타태아기령 천도사경 연합법회=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10월 19일까지 타태아기령 천도사경 연합법회를 진행한다.(02)723-6258

9월30일 (목)

■봉정사·용문사·김용사 삼사 순례법회=능인선원은 안동 봉정사, 예천 용문사, 문경 김용사 등지로 9월 삼사 순례법회를 떠난다.(02)577-5800

■포교전문인력 양성교육=조계종 포교원은 포교전문인력 양성 교육 제4강으로 '경전상의 포교방법론' 강좌를 진행한다.(02)720-7060

■무불선원 법장스님과 만나는 시간=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은 오후 3시 수덕사 주지이자 이사장인 법장스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02)541-0002

10월2일 (토)

■정암사 법흥사 순례=터사랑은 강원도 정선 정암사와 사자산 법흥사 등 태백지역으로 순례를 떠난다.(02)725-1284

■서불청 대성사 정진법회=서울불교청년회는 오후 6시 30분 우면산 대성사 대웅전에서 주말 정진법회를 연다.(02)730-9108

■오지탐험과 정무진씨 초청법회=우리는 선우는 오후 3시30분 오지탐험가 정무진씨 초청 '특별한 여행을 위한 길안내' 주제 가족법회를 연다.(02)2278-8672

■삼대 관음 성지 참배=용진신행회는 남해 보리암, 여수 향일암, 옥과 관음사 등 삼대 관음성지로 무박 2일 참배법회를 떠난다.(02)2279-1191

10월3일 (일)

■신륵사·고달사지 불교문화기행=불교신행연구원은 오전 7시 여주 신륵사와 유서깊은 고달사지를 찾아 불교문화기행을 떠난다.(02)582-6613

■서불청 둥지청소년의 집 자원봉사=서울불교청년회는 대부도 자현사 둥지청소년의 집으로 자원봉사를 떠난다. 오전 8시 사당역에서 집결 출발한다.(02)730-9108

10월4일 (월)

■법륜스님 전국순회법회=정토회 법륜스님이 11월 26일까지 서울, 부산, 대전, 청주, 대구, 울산 등지의 정토법당에서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주제로 전국 순회법회를 연다.(02)587-8994

절에서 추석차례 지내세요

결실의 계절 가을, 그 풍성함과 함께 하는 추석. 조상의 음덕(陰德)에 감사하는 이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례를 지낼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합동 차례가 마련된다. 불교식으로 차례를 지내고자 하는 불자들도 동참할 수 있다.

봉은사(02-545-1448)가 24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추석합동차례를 지낼 예정이며, 강원도 월정사(0374-332-6664)도 24일 추석제사를 지낸다. 또 전북불교회관(0652-251-4942)이 24일 오전 10시 추석 합동 기제사를 지내고, 능인선원(02-577-5800)이 24일 오전 11시에, 법련사(02-733-5322)가 24일 오전 10시 법련사 지장전에서 합동차례의식으로 선망부모와 조상의 은덕(恩德)을 기린다.

이밖에 도선사(02-993-3161), 화계사(02-902-2663), 석왕사(032-663-7771) 무진법장사(02-932-2333)에서도 추석날 합동차례상을 마련한다.

종단소식

조계종

용주사 보살계 수계법회

효행대본찰 용주사(주지 정락)는 10월 13일 오전 10시 용주사 금강계단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전계사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331)234-0040

태고종

안정사 천불전 건립불사

서울 안정사(주지 벽파)는 천불전 건립불사를 추진한다.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천불전은 지하1층 지상 1층 연건평 3백평 규모로, 지상1층에는 천불전, 지하1층에는 종무소와 신도회사무실, 공양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북종무원 승려·교임연수

전북종무원(원장 남파)은 13~15일 2박3일간 김제 혜봉사에서 승려및 교임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성직자로서의 자질함양'을 주제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법회의식 통일, 신도회조직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천태종

동광사 천도·예수재

속초 동광사(주지 개문)는 '99 속초관광 엑스포(9월11일~10월 31일)성공기원 선망조상 천도영산재 및 생전예수재를 10월 6·7일 양일간 봉행한다. (0392)632-7759

진각종

대구 의밀심인당 증축기공

14일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의밀심인당(주교 의현)의 증축을 위한 지진불사(기공식)를 가졌다.

한편 같은 날 대구 북구 읍내동에 신축중인 길상심인당의 상량식도 봉행했다. 길상심인당은 오는 12월경 완공될 예정이다.

대한법화종

법만사 종도 수련회

서울교구는 13~15일 중랑구 법만사(주지 법만)에서 종도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수련회를 개최하고 종단발전과 서울교리화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총지종

종조 멸도 19주기 법회

종조 원정대성사 멸도 19주기 법회를 8일 총지사 3층 법당에서 총지화 통리원장 등 2백여 종도가 모인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했다.

총화종

참몸원리사상 강론



강원 부설 참몸(眞身)원리연구원에서는 부처님사상에 입각하여 참몸의 원리를 알려주는 참몸원리사상을 10월부터 정기적으로 강론한다. 강사는 중국국제한방 외국대학에서 연구한 현오스님(사진·총화종 총무부장). (0346)592-8891

연화사 아미타대불 봉안



홍천 연화사(주지 화담·사진)는 동양 최대 아미타대불 낙성 및 점안식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봉행한다. 이번에 점안식을 갖는 아미타대불은 높이가 36m로 부처님몸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과 극락도·지옥도를 관람할 수 있게 해 놓았다. 화담스님은 "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과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청소년교육장으로 연화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0366)433-1815

무량종

재소자 회갑잔치 열어줘

감찰원장겸 경북종무원장 만오스님(용주사주지)은 신도회(회장 오금주)와 함께 17일 청송 제1보호감호소 재소자 17명의 회갑잔치를 열어주었다. 령관 상임부원장스님도 동참한 이날 재소자들에게 불서와 내의·음식 등을 전달했다.

고침 지난호(238호) 종단소식종 법륜종 연담종정 49재를 '법상종'으로 바로잡습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시판

알림

▲출판연구소·출판평론상 공모=한국출판연구소는 제5회 출판평론상 응모작을 10월31일까지 공모한다. 출판평론가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 상은 출판정책, 출판계 시평, 신간평론 등 3부문으로 각 부문당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의 분량이면 가능하다.(02)739-9040

▲취업정보·인터넷무료사용 서비스=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 고용전산망 연결을 통한 취업정보제공, 인터넷무료사용서비스를 제공한다.(02)421-6077

▲무료 돋보기안경 제공=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월 선착순 10명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돋보기안경을 무료로 제작해 준다.(02)2282-1100

▲무공해 고추가루 환희씨=강남포교원 생활협동조합에서는 무공해 월악산 고추가루와 황화씨, 거제도 멸치액젓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02)539-2631

강좌

▲무진법장사 시민불교교양대학=무진법장사는 제20기 시민불교교양대학을 연다. 10월 5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에 불교상식, 부처님일생, 기초교리, 참선법, 특강 등을 실시한다.(02)932-2333

▲김열권씨 위빠사나 강의=강남포교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와 오후 7시 3층 수선당에서 김열권씨의 강의로 위빠사나 수행을 실시한다. 교재는 〈대념처경〉과 〈청정도론〉.(02)539-2631

▲호스피스교육=충북불교자원봉사교육센터는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다. 29일~11월 4일까지 7주간 매주 수, 목요일 오전 10시에 신생아 및 산모보호, 유료간병인교육, 비보호환자를 위한 자원봉사 간병인 교육 등을 지도한다.(0431)254-2258

▲무료 퀼트 아트공예=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수, 금요일 오전 10시에 성인을 위한 무료 퀼트아트공예교실을 연다.(02)

▲장애인 한글교실=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중증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사랑반교실을 운영한다. 한글교육과 사회성 훈련을 지도한다.(02)989-4215

▲뜨개질교실=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뜨개질교실을 연다. 뜨개질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02)577-5800

▲불광바라밀교육=불광사는 제28기 불광 바라밀교육을 실시한다. 10월 6일부터 매주 수,목, 금요일 오전 10시에 불자예절과 불타론, 천수경 등을 지도한다.(02)413-6060

모집

▲사회복지사·운전기사·총무=덕유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선임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운전기사, 총무 등을 구한다.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한 유경험자여야 한다.(032)325-2161

▲성인자원봉사자=청담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치매, 중풍노인 및 독거노인들의 말벗봉사와 귀가지도를 해 줄 성인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매주 월요일~금요일 2시간 정도 봉사가능하면 된다.(02)806-1375

▲일감 제공업체=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공동작업장에서 실시할 일감을 제공해 줄 업체를 기다린다. 재택부업에 가능한 일로 실밥뜯기, 야채다듬기, 재봉, 봉투작업 등 만 55세 이상 성인이 할 수 있는 내용.902)385-1351

▲자원봉사자=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가정봉사원, 무료급식장, 밑반찬배달, 상담요원, 병원동행, 이동목욕서비스 등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458-1664

▲유아 한글 수학교육 교사=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글과 수학을 지도해줄 교사를 구한다.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후 2시에 지도 가능해야 한다.(02)985-0161

▲바자회후원=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알뜰장 바자회 행사에 판매할 중고물품과 행사지원, 물품정리 및 판매를 할 후원자를 찾는다.(02)806-1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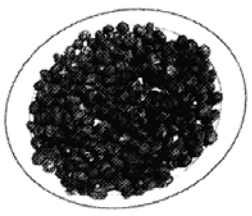
화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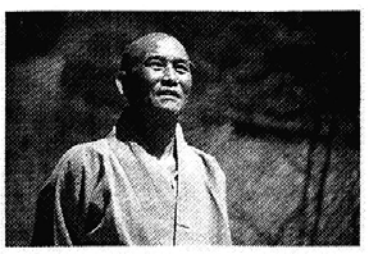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이동격대리와 도서출판 여시아문 강지숙씨가 10월 3일 오후 2시, 원주 치악예식장 3층 장미실에서 화촉을 밝힌다. (02)737-8881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법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개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 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체험사례 저희 금단화를 복용하여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드셨던 분들의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이 많았지만 지면상 우선 효과를 본 두 분만 먼저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남편은 10년 이상된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였는데 2월부터 금단화를 복용한 후 이번 8월 초에 종합검사를 해 보았더니 간염균이 아예 없어졌다고 합니다.
의사는 지금은 회복기에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 가족은 신기하여 믿을 수가 없을정도였습니다. 늘 남편의 피곤해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는데 이제 건강한 모습을 보니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파구 잠실동 승현엄마)

저희 남편은 혈압이 너무 높아 7년째 병원에 다니며 체크를 받고 약을 늘 복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금단화를 복용한 후 4개월만에 혈압이 정상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이후 이제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저도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늘 신경통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통증을 전혀 느낄 수 없고 몸 상태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제 금단화는 저희 부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삼동 김인숙)

◐ 상담문의 ☎ (02) 3437-82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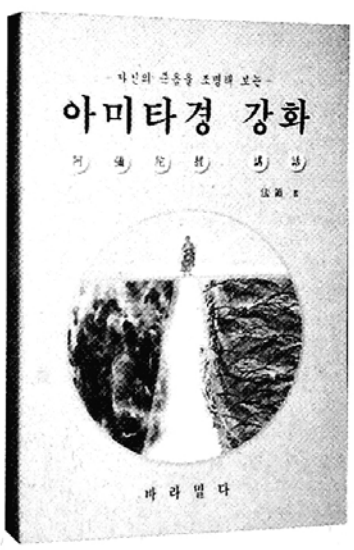
나는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

자신의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또한 죽음 자체를 소상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경전

아미타경 강화

생을 마감하는 최후의 순간,
그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염불인은 죽지 않고 삼계(三界)를 떠나 왕생한다.
생(生)과 사(死)를 떠나는 데는 참선과 염불 뿐이다.
그러나 참선은 삼계를 떠나는데 심히 어렵지만
염불은 만 사람이 행하면 모두 왕생한다.
이 책은 어느 강의보다 그 격을 달리하는 생(生)과 사(死)
그리고 사후에 왕생하는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 놓은,
한 염불인의 체험을 격조 높은 언어로 구사한
실감나는 강화집이다.



法鎭 著/신국판/493쪽/값 15,000원
도서출판 바라밀다 전화:(0558)636-5302

공급처: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이차돈 순교비 제막
경주흥륜사 추모법회

이차돈성사 순교1472주기 추모법회 및 순교비 제막식이 14일 오전10시 경주 천경림 흥륜사(주지 혜해)에서 봉행됐다.

이날 제막식〈사진〉에는 동화사조실 진제스님을 비롯 제주 약천사회주 혜인스님,이용택 경주관광개발공사사장,김백기 경주시문화관광국장등 사부대중7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막된 높이6m의 순교비는 연화와 구름문양이 장식되어 있는등 신라전통형식과 현대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순교비는 또 경주 남산에서 채취한 화강암 원석으로 조성됐으며 지난97년 7월부터 1억5천만원을 들여 제작됐다.

진제스님은 법어를 통해 "마음을 바로 살펴 진리의 눈을 뜨는 것이 참다운 공부"라며 "이차돈성사는 부처님의 해탈법을 만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순교의 길을 택하신분"이라고 성사의 큰 뜻을 기렸으며 이에 앞서 혜해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문화를 신라에 꽃피울수 있게한 성사의 뜻을 오늘에 되새기기 위해 순교비를 건립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명절이 오히려 서글퍼요"

소쩍새마을 · 보현의 집등 찾는 이 없어
장애인 · 노숙자등 올해도 '쓸쓸한 추석'

소쩍새마을의 3급지체장애인 이모씨(35)는 명절이 싫다. 가족도 없고 평소보다 사람구경하기도 더 힘들다. 늘상 느끼는 외로움이지만 명절때만 되면 쓸쓸함을 달래기가 더욱 힘들다.

명절때만 되면 되레 발길이 끊기는 곳. 그래서 더욱 사람냄새가 그리운 곳. 아이엠에프가 채 끝나지 않아서일까,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와도 교계 복지시설에는 찾는 발길이 별로 없다.

강원도 원주 소쩍새마을은 추석이 다가오자 마치 정전된 마을같은 적막감이 흐른다. 평소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방문으로 북적거렸지만 명절이 다가오면서 지역 인사들의 방문도 끊겼다. 그래서인지 장애인과 노인, 고아 등 2백50여 소쩍새마을 가족들은 풀이 죽은 모습이다. 추석날 차례도 지내고 법회도 가질 예정이지만 명절때마다 겪는 쓸쓸함을 올해 또 맛볼 생각을 하니 도무지 흥이 나질 않는다.

영등포 보현의 집엔 생활형편이 어려운 1백60여명의 일용직 · 공공근로자들이 모여 산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이 있지만 명절때 고향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작년 추석때는 정부에서 차량을 지원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올해 그런 것도 없다. 시에서 개인당 1만원씩의 추석지원금이 나왔지만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마주보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정이다. 그렇지만 명절을 앞두고 이곳을 방문한 단체나 사람들은 거의 없다. 서계동 보현의 집도 사정은 비슷하다. 60여명의 노숙자들은 온종일 서로 얼굴만 마주보며 명절을 보내야 할 처지다. 관심을 가져주는 이도, 찾는 이도 없다.

경불련 아침을 여는 집의 20여 노숙자들도 쓸쓸한 추석을 맞기는 마찬가지다. 간혹 있던 지역 단체들의 방문도 명절을 앞두고는 뚝 끊겼다. 오갈데 없는 이들에겐 명절이 마치 형벌처럼 느껴진다. 가족이 있지만 갈 수 없는 처지라 더욱 사람들이 그립다.

일본군위안부였던 할머니들이 모여사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도 할머니들끼리 추석음식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내야 할 형편이어서 이래저래 쓸쓸한 명절을 보내게 됐다.

강원도 속초 반야노인요양원의 30여 노인들은 차례조차 지내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요양원 재정이 열악한데다, 지역 관심이 온통 이곳에서 열리는 관광엑스포에 쏠려있어 이곳 노인들의 처지가 더욱 애처롭게 됐다.

아침을 여는 집의 이주원 간사는 "추석 당일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며칠전쯤 교계 단체들이 이런 곳을 위로방문한다면 포교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오히려 갈수록 무관심해지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자비로 빛는 한가위 송편

지난 15일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 1백여명이 참가해 '한가위 송편 빚어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빚어진 송편은 쓸쓸한 추석을 보내야 하는 지역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보낸다.

'가지산 지키자' 걷기대회
울산 시민 5백여명 참가

가지산 사랑 범시민 환경보호 걷기대회가 12일 가지산을 사랑하는 시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석남사 주지 상운스님, 우덕삼 시민걷기대회집행위원장을 비롯 한사랑 산악회, 울산대 학술보존회, 상북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여성불자회등 시민단체와 신행단체에서 5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걷기대회에 앞서 우덕삼 집행위원장은 "태화강의 발원지인 가지산을 지키자는 시민들의 염원을 모았다"며 "가지산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가지산을 사랑하는 시민연대는 석남사 앞 식당건립 반대를 계기로 결성돼 가지산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으로 힘을 모아 나가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YS 대통령 만들기 교계에 30억 썼다"
조기현씨 밝혀

92년 대선당시 조기현 前청우건설회장(전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이 주도해 YS 대통령만들기에 불교계를 움직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조씨가 1일 김영삼 前대통령의 상도동자택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낸 가압류신청이 기각되면서 밝혀졌다.

조씨에 따르면 92년 가을 서의현 전총무원장과 함께 YS를 만난 자리에서 YS가 "대선에서 불교계가 도와주었으면 한다. 돈은 얼마가 들던지 조희장이 내게 빌려준 것으로 해서 서원장에게 전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또 92년 5월 노태우 전대통령도 "불교계가 87년 대선에서 나를 지지하여 대통령을 만들었듯이 YS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이후 조씨와 서원장은 현금을 준비해 전국의 사찰과 신도회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30억원의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김원우 기자

교도소 합창단에 옷보시
원각종 정안스님



원각종 호남종무원(원장 정안)은 12년이나 낡은 합창단복을 입어온 광주교도소 재소자 불자들에게 새옷 25벌을 보시했다.

정안〈사진〉스님은 최근 광주교도소 불자법회에서 법사로 초청돼 갔다가 낡은 합창단복을 입은 재소자불자들이 찬불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 죄가 될 것 같아 며칠 후 종도들과 함께 새 합창단복을 마련할 4백만원을 전달했다.

불자재소자합창단 이승호지휘자는 "새단복을 입고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게돼 기쁘다"며 "우리도 출소하면 부처님처럼 자비행을 할수 있는 삶을 살자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국제포교사회 뮤지카씨 초청 '美불교현황' 워크숍

"미국인 대상 포교전략 절실"

한국 · 티벳등 7개국 전법
절 6천개 신도 4백만명
대부분 교포포교 주력

한국 불교가 세계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15일 서울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제4기 국제포교사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前 UCLA대 에드워드 뮤지카(비교종교학, 본지 238호 4면 참조) 교수를 초청, '미국내 한국불교의 현황'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에드워드 박사는 "미국에는 한국 티벳 태국 등 7개국가에서 약 6천개가 넘는 사찰을 세우고 4백만명에 이르는 불교신자가 있지만 포교 전략이 대체로 무계획적이며, 자국 불교신자들을 제외한 미국인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박사는 "불교와 힌두교는 빠른 시일내에 성장해 마침내 기독교를 능가하는 종교가 될 것이기에 상호 협력적 조화를 이룰 것"이라며 성공적인 해외포교를 위해서는 "깨달음을 성취하고 유머를 겸비한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교의 본질과 핵심, 수행법을 가르치는 불교교육센터의 강화가 요청되고, 자국민 보다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이 포교에 큰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드워드 박사는 "미국인들은 달라이 라마처럼 '영웅적인 스타'를 원한다"면서 "승속간의 엄격한 차별보다는 신도들에게 자비와 행운을 줄 수 있는 친근한 생활불교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성곡사 지장전



◇성곡사는 15만평 부지에 아외기도를 할수 있는 천불대참회 도량을 조성하고 있다. 사진은 지장전 전경, 원안은 주지 관묵스님.

도솔천 재현한 대참회 도량

15만평…지장상 5백불 봉불
미륵 · 천불 · 관음전 조성
내달 10일 호국영령 천도재

'야외에서 내안의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천불대참회도량이 조성된다'

충남 공주 차령산맥 줄기 고불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성곡사(주지 관묵)는 부지 15만평에 대불 및 천불전, 지장전, 미륵전, 관음전, 약사전, 아미타전을 건립하여 불자들의 새로운 기도처로 만든다.

성곡사는 27m 높이의 지장보살님을 본존으로 보살상의 좌대와 뒷켠에 병풍처럼 2m 크기의 지장보살상 5백불을 조성하고 10월 10일 점안식 및 호국영령천도 지장산림기도 입재법회를 갖는다.

도솔천 내원궁의 장엄함을 재현했다는 지장전은 유주무주 고혼및 조상천도는 물론 불자들의 지장 기도처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장전에서는 지장보살님의 좌대안에 선망부모와 조상천도를 위한 원불과 영가위패를 모실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을 위해 지장전에 1차로 1백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건립한 성곡사는 앞으로 대규모 묘탑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안까지 33m 높이의 미륵불을 조성하여 미륵전을 완공하고 관음전, 약사전, 아미타전의 기반공사도 진행중이다.

1980년 주지 관묵스님이 폐사지인 성곡사지에 천막을 치고 기거하며 손수 삽질과 경운기를 운전해 불사가 시작된 성곡사는 대웅전과 명부전, 용화전, 산신각, 요사채등의 건립불사를 1차 완공했다.

이어 95년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시 영취산의 설법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18m 높이의 청동좌불상과 2m높이의 부처님입상을 1천불 모신 대불 · 천불전을 건립해 불자들의 기도 순례지로 주목받아왔다. 문의 0416) 853~3355.

특히 관묵스님은 불우어린이 및 청소년들 20여명을 사찰에서 키우고 있으며 서울 고척동에 포교당 정암사를 개원하여 도심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지 관묵스님은 "형상화된 불교정토 구현의 대원력을 세우고 불사에 정진해 왔다"며 "불교신행의 공간뿐 아니라 민족정체성을 회복하는 성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사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삼보와 스승님께 귀의 합니다
- 석용산 스님을 매장하려 했던 모든 허황된 고소사건들이 검찰에서 모두 죄 없음을 최종 확인 -

회주큰스님을 가까이에서 십수년을 모셔온 저희들은 스님의 일여한 모습속에서 인욕보살의 진면목을 발견 할 수 있었기에 큰스님을 감히 이 시대의 인욕보살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오욕을 그대로 참으시며 끝까지 부처님과 약속을(남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지키시려 온갖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감내하시고 계십니다. 8월 28일 큰스님께 씌워졌던 형사 고소사건 3건이 모두 무혐의 판정을 검찰로 부터 통고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스님을 괴롭히려고 PD수첩까지 동원하여 큰스님을 매장하려 했던 허황된 고소사건, 김순자 고소사건, 이미영의 고소사건이 모두 죄 없음을 검찰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이비(이교도) 매스컴 종사자와 몇몇 승려들이 큰스님을 매도하고 있음은 큰스님의 자비 인욕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는 날, 큰스님을 매도했던 자신들의 입지가 문제되겠기에 끝까지 큰스님을 악인으로 몰아 매장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남을 다치게 하지는 말아야 하겠으나 큰스님의 명예는 회복시켜 드려야 하겠기에 우리 제자들은 「나의 스승 석용산스님」이란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큰스님과 인연닿아 오시면서 보고 느끼고 배우며 감동스러웠던 부분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여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이 채택된 분에게는 상품과 소정의 고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으로, 회주 큰스님께서 진정 이 시대의 인욕 보살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바른 것을 세상에 바로 보이는 진정한 불자님들이 되는 인연 되시기를 발원합니다.

— 아 래 —



■접수기간 : 1999년 9월 8일 ~ 9월 22일 까지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원고매수 관계없음)
■형 식 : 시, 수필, 신행수기, 단편등 (형식은 상관없음)
■접 수 처 : 도서출판 열린마음 · 열린세상.
공덕원(대구,부산)종무실. 우편으로 접수(주소문의)
■문 의 : 도서출판 열린마음 · 열린세상 ☎(051)627-5498
대구포교원 ☎(053)741-0077. 팩시. 741-0066
부산포교원 ☎(051)625-2253. 팩시. 623-3946

지장불교 근본도량
사 회 복 지 법 인 공 덕 원

문도대표 석효선 · 석지광 · 석효림
신도대표 장난주 · 이대등명
사회복지법인 임직원 일동
합장

불교 노인복지 양-질 '성장'

교계 노인시설 40여곳… '노인의 날' 맞아 행사다채

은평복지관 세미나등 열어
진각종 성북복지관 30일 개관
연꽃마을 10월 노인작품전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이자, 10월2일은 정부가 정한 제2회 노인의 날.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가지만 정작 노인복지는 그에 뒤따르지 못하는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교계가 노인복지시설을 잇따라 개원하는 등 노인복지에 힘을 쏟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교계 노인복지 관련시설들이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있다.

현재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40여개. 여기에 올 3월에 총지종에서 운영하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가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7월에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했으며, 오는 30일에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 문을 열 예정이다. 불교신행연구원도 최근 대구에 100평 규모의 그룹홈을 마련해 노인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양적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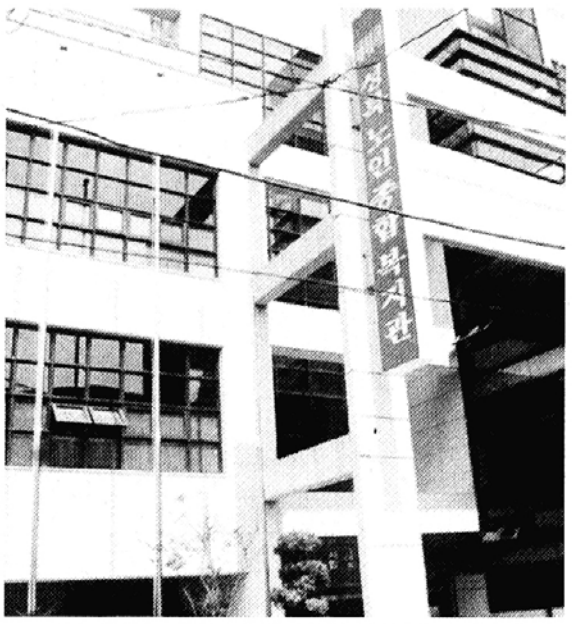
한편 연꽃마을은 해마다 2개씩 노인 무료병원을 확보해 현재 12개 병원에서 연 50만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3곳의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한 산하 8개 시설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사찰 및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20여개의 노인대학과 40여개의 경로식당을 비롯해 노인주·야간보호소, 노인상담전화, 이동목욕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은 현대불교신문사와 공동으로 28일부터 10월2일까지 5일간 '세계노인의 해 맞이 기념특별대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8~30일 3일간 순회노인무료진료를 시작으로 29일에는 복지관 세미나실에서 '새천년 고령화시대의 노인들의 역할'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30일 노래자랑, 10월1일 체육대회, 2일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공연 등이 계속돼 '노인종합축제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도 10월 한달동안 전국 7개 도시를 순회하는 '99 연꽃마을 노인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를 기념하고 노인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 시설 이용노인 및 자원봉사자 1만5천여명이 대거 참가하며, 10월1일 서울을 시작으로 안양 평택 용인 대구 인천 수원 등지에서 각 2일간씩 28일까지 열린다.

진각종이 운영하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식 당일인 30일 치매노인종사자세미나 및 장수왕 선발대회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10월중에는 노인의 해를 기념하는 별도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한명우·이은자 기자
(mwhan@buddhapia.com)



◇30일 개관하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치매주간보호사업 및 사회교육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펼치게 된다. 사진은 복지관 전경.



◇전국신도회 김재일 사무총장(왼쪽)이 성남 야탑중학교 정주석교장에게 죽비를 전달하고 있다.

'자비의 죽비' 전달

'부모와 자식과도 같은 아름다운 사제지정(師弟之情)의 확산'을 모토로 '자비의 죽비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가 14일 성남의 야탑중학교(교장 정주석)에 죽비 60개를 전달했다. 무관심과 삭막함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교육현실을 치유하고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달라는 취지로 전국 초 중 고에 죽비보내기를 하고 있는 전국신도회는 현재 등국대부속 중 고등학교 등 20개교에 630개의 죽비를 보냈다. 고영배 기자

승가원-日 메히노 야원
복지정보 교류 합의

승가원(이사장 현성)이 일본의 종합 장애인 복지시설인 '메히노 야원'과 복지정보를 상호교류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불교계가 선진복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가원은 이번 합의가 지난달 27일 현성스님이 메히노 야원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메히노 야원의 나카다 이사장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승가원은 향후 장애인 재활교육 정보화를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 시설 건축시 설계자문을 요청하는 등 일본 복지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창립

각종 교육사업 전개…대안학교 추진도

인드라망 생명공동체가 지난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도법(실상사 주지) 성관(수원포교당 주지) 정덕(전국비구니회)스님과 박광서(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정해숙(전 전교조위원장)씨 등 5인이 공동대표로 선출됐으며, 상임대표는 도법스님이 맡게됐다. 〈관련인터뷰 3면〉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창립식에 이어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과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세부사업계획에는 귀농전문교육, 생협교육, 생태순화적 생활교육, 전문교육가 양성교육 등 농촌과 도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각종 교육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생태·생명가치를 이념으로 하는 공식교육기관인 대안학교 설립추진안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창립전까지 사용해 오던 '불교도농공동체 운동본부'라는 명칭을 불교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었다. '인드라망'은 〈화엄경〉에 나오는 말로 글자 그대로는 '제석천의 궁전을 장엄하는 그물망'을 뜻하며 '만물이 모두 상관관계를 갖고 연결돼 있다'는 연기적 세계관을 의미한다.

한명우 기자

아파트내 사찰 납골시설 가능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이달말부터 아파트 단지내 절에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설 수 있는 문화 및 종교집회장 등의 부대시설 안에서도 납골당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납골당만을 따로 짓는 것은 여전히 금지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주거·상업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종교 시설내에서의 납골당 설치를 허가한 바 있다.

현재 서울에서만 하루에 55구가 발생하나, 처리능력은 45구에 불과한 실정. 또 전국적으로는 44개의 공설화장장이 있지만 서울과 부산 등 최근에 증·개축한 일부 화장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0~7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주변환경이 불량한 상태다. 따라서 최신시설의 사찰 납골당이 도심 곳곳에 자리잡을 경우 매장문화 선도는 물론 포교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명우기자

"승가대 김포학사 결함보수 완료"

풍림산업 기자간담회

(주)풍림산업 김덕완 전무(자금담당)와 조태두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현장소장은 13일 김포학사에서 교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포학사 시공 결함 보수공사의 결과를 밝혔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지난 8월초 폭우로 인해 침수되거나 결로현상이 발생한 대학본부동, 에너지관리동, 제1수행관, 교수회관, 강의동, 제2수행관 등 지하층의 결함부분은 대부분 보수가 이뤄졌으며, 대학본부동의 지하소극장의 벽제(천) 곰팡이 발생 부위는 페이브릭천을 교체시공하고 공조닥트시설을 추가보완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덕완 전무는 "지난 8월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김포학사 일부 건물에 누수 및 결로 등의 결함이 발생했으나 즉시 보수를 완료했다. 조계종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측은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실사 보고서〉를 발간, 공사부실의 책임을 묻는 한편 법적으로 준공검사가 완료돼야만 공사비 43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직지사앞 상가건립 "절대 안돼"

김천 직지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일주문앞에 휴게음식점 건립하려는 건축주를 저지하려다 신도 1명이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음식점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곽계화씨측은 14일 새벽6시 인부 및 괴청년 60여명을 동원, 건축예정부지에 건축자재를 불하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다 직지사스님과 신도 1백여명의 저지로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직지사측 신도 이복희씨(76세)와 공사인부1명이 부상을 당했다. 곽씨측은 다음날 오전에도 재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오후1시부터는 유혈충돌을 막기위해 전경 1개중대가 출동했다.

직지사측은 "음식점이 직지사일주문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사찰수행환경을 크게 저해한다"라며 건립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고가염주' 수사의뢰 검토

조계종 호법부

조계종 호법부는 큰스님 초청 법회를 빙자해 고가의 염주를 판매하는 행위와 관련,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호법부장 종고스님은 16일 교계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교의 이름을 팔아 국민들을 기만하고 금전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어 불교의 위신 및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법회를 빙자한 물품판매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호법부는 이들 법회는 △순수한 법회가 아닌 물품판매를 위한 위장된 법회 △물품조달과 판매는 전문적인 브로커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물품판매 이익금중 일부만 명의를 빌려준 스님들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장된 법회에 신도들이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윤 기자

뉴스 & 뉴스

석림동문회 회장 법조스님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는 15일 99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법조스님(고운사 주지·사진)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에는 지명스님(청계사 주지)이 선임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또 정관수정을 통해 회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신임 회장 법조스님은 "작년 종단사태를 보며 석림동문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감했다"면서 "전 동문의 화합을 통해 종단과 동국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수계산림 신청행자 급증

태고종이 7일 서울 종무처에서 실시한 제23기 합동득도수계산림참가신청을 위한 소양시험참가 행자가 214명으로, 예년의 1백여명보다 두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불의식, 제반 불교교리, 종단관 등 예비수행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점검하는 소양시험에 합격한 행자들은 각 사찰별로 오는 10월 10일까지 행자교육을 받은뒤 태고총림 선암사에 설판되는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해야 한다. 이경숙 기자

한나래문화재단 설립법회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은 15일 통도사부산포교원 법당에서 설립자축법회를 개최했다.

성오스님(부산불교연합회장)을 비롯한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장 심산스님은 "21세기 포교로 문화포교를 선택한 것에 많은분들이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사찰수련회 담당자 회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17일 회의실에서 교구본사 사찰수련회 담당자회의를 열고 사례발표와 자료수집 및 수련회 백서발간 계획, 홍보방법, 프로그램 개발방법, 수련생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련회 사전준비회(매년 5월) 및 평가회(9월)의 공식화 △수련대회 안내센타 설치 및 홍보 강화 △다도 등 사찰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계층별 연령별 단계별로 프로그램 전문화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동대 교수회장 심익섭교수

동국대 서울캠퍼스 교수회는 16일 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에 심익섭 교수(행정학과), 부회장에 이호영 교수(기계학과)를 선출했다. 교수회는 10월초 서울·경주캠퍼스 합동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총회장을 선출하는 조직을 정비한다. 강지연 기자

참몸(眞身) 원리 연구 회원 모집

본 원은 참 몸(眞身)원리 연구를 같이 탐구할
회·원·을·모·집·합·니·다

다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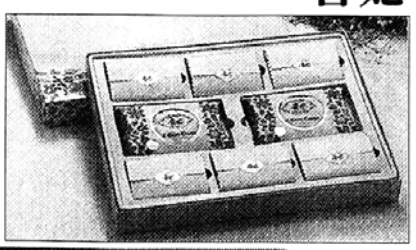
■ 과정 : 기초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전문과정(각 과정 3개월)
■ 과목 : 중의 기초학~침구경락학 상한론 금괘요락
■ 강의일시 : 10월부터 매주 월,수(2시간) 오후 2시~4시
■ 개강일시 : 10월 4일(월요일) 참 몸 원리 연구원
■ 강사 : 박현오 스님
■ 대상 : 수강 및 통신생(스님,포교사,불자)
■ 자격 : 연령 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전화 접수 후 본원 양식 서류를 제출함
■ 모집인원 : 수강생 00명 통신생 00명
■ 상담문의처 : 총무원 0346-592-8891, 02-591-7710, 전임강사 02-980-2177
■ 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42-1
대한불교총화종 총 본산인 수진사 강원 내 부설
참 몸(眞身)원리 연구원
■ 참고 : 각 과정 이수 후 참 몸(眞身) 원리 상담사 자격증 수여.
자격취득 후 본원에서 실시한 연수 교육(약7일) 과정을 거쳐 개원할 수 있음.
■ 특전 : 외국 연수기회 줌

참몸(眞身) 원리 연구원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전국 대리점 모집
02)757-1780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3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두통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주부신행담

처처에 계신 부처님



그림 · 문병성

자원봉사 · 결혼 · 남매의 엄마로 살며
'나는 누구인가' 날마다 묻고 또 물어

"자기 죽여 하심할줄 알아야 한다"
스님은 잠들때까지 일만 시켰다
비구니계를 받기전 나는 하산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날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나'를 참구한다. 아직 뚜렷한 답을 얻지는 못 했지만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마음 한편 편안함을 느낀다.

주부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법당 문턱을 넘나든게 어느새 30여 년. 어릴적 걸을 수 있으면서부터 어머니와 절에 다니기 시작했던 나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유난히 절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지만 그런 30여 년의 내 모습은 허깨비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는 최근에서야 깨달았다.

내 마음 하나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하면서 어릴적부터 스님과 가깝게 지내고, 부처님 말씀을 조금 공부했답시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사세요, 마음공부 좀 하시는게 어떻겠어요"라며 건방을 떨며 살아왔다.

돌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자만에 빠져 살아왔는지 나는 정말 알지 못 했다. 그저 자주 아픈 몸 때문에 짜증스러워하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두는 부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다.

몸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권위있는 의사가 중병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환자의 증세를 호소하게 된다. 반대로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못 믿고 내심 '이 의사 돌팔이 아니'라며 자신이 중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 어릴 적 나는 그렇게 살았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어느 한 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이 돌아가면서 아팠다. 물론 병원에서는 선천적으로 심장 좌심실이 조금 좋지 않을 뿐 모든게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믿지 못했다.

외상적으로 특이사항이 없지도 않았다. 중학교 2학년때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에 비해 1.5cm가 짧다는 진단을 받았다. 보통사람 어느 누구나 한쪽이 길거나 짧다며 아프지 않으면 걱정할게 없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과 생활에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고난은 시작되었다. 매일 이유없는 두통에 시달려야 했고, 힘이 없고 숨이 차 마음놓고 다니지 못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는 점집에 가 나의 증상을 호소 하셨는데 무당은 내게 영가가 씌였다고 했다. 신을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굿을 해 신을 퇴치해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 무당의 말을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며 나를 학교까지 결석시키고 한판 굿을 벌이시고는 울며 내가 얼른 낫게 해 달라고 비셨다. 얼마 후 그런 굿이 한 번 더 있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고 2를 지나 고 3이 되었고, 대학진학을 해야 했지만 '나는 대학공부를 해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학교 공부대신 법정스님의 〈서있는 사람들〉이며 불교 책들을 끼고 살았던 나는 세상이치는 학과 공부에 있지 않다고 믿었다. 그리고 출가를 결심했다. 어머니도 그런 내 생각을 존중해 주셨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친구분들을 만나면서 흔들렸고, 스님과 의논 끝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가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하라며 설득하셨다. 다행히도 대학에 무사히 진학한 나는 입학동기가 된 스님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론 격론하면서 식견을 넓혀갔다. 그러나 나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고 경북의 모 사찰에서 머리를 깎았다(은사 스님은 스님께 누가 될까봐 밝히지 않는다). 은사 스님이 시키는대로 죽어라 일만 했다. 스님은 '나를 죽여 하심할 줄 알아야 인연도 끊고, 경(經)도 제대로 볼 수 있다'며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들때까지 일만 시키셨다. 힘이 들긴 했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 사미니 계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비구니 계를 받기도 전에 절을 나와야 했다. 출가하고서 생긴 해괴망칙한 병 때문이었다. 나 스스로 절집 생활을 자처했지만 마음 한켠에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공부에 진전이 없었던 나는 월경 때마다 노출하고 싶은 충동을 못 이겨 신도들 앞에서 번번히 옷을 벗어야 직성이 풀리는 우사(愚事)를 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승려로서 살았지만 나는 아직 중물이 들지 않은 내 자신을 질책하며 방황을 했다.

그렇게 1년여를 지켜만 보시던 스님은 어느 이른 아침, 나를 조용히 불러 가까이 앉게 하시더니 "처처(處處)에 부처님이 계시니 꼭 절이 아니더라도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며 산을 내려가라 하셨다.

흐르는 눈물을 가누지 못하고 짐을 싸 절을 나서야만 했다.

내가 정말 갈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게 혼돈스러웠다.

집에 돌아온 나는 한동안 두문불출하며 나를 돌아보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한달여를 보낸 나는 수소문해 경기도 상남에 있는 복지시설을 찾아가 매일 출퇴근을 하며 노인들 돌보는 일에 매달렸다. 노인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목욕시켜 드리고, 오물을 치우면서 나는 조금씩 안정이 되었다.

그러면서 삶에 용기가 생겼고, 두통도 말끔히 사라져 몸에 힘이 났다. 진정으로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날 때 건강은 조절되고 행운이 모여든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아갔다.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사람을 사람들은 신뢰하고 협력하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도해 남매를 키우며 행복이라는게 이런 것이구나 느낄만큼 마음의 안정을 찾은 나는 '처처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스님의 말씀과 행자시절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다. 남편의 월급을 쪼개 몇몇 복지시설에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인연 닿는 곳을 찾아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학교 다닐때 공부하던 책도 꺼내 다시 읽고 있다.

환경이 좋아야만 기쁨이 있고, 표정이 밝아지고, 생기가 나는 것은 아니었다. 주인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어느 누구 한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내가 갈구했던 것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준 그들과 삶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김경희(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싸이버 선덕대왕 신종

원형그대로의 자태와
사이버 사운드의 완벽한 종소리

에밀레종 소리를 전자 사운드 칩을 이용해 디지털화, 이 칩을 에밀레종 축소모형에 넣어 제작 종을 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은은한 종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싸이버 에밀레종(주석)
재질: 주석
종류: 개금, 골동
규격: 종 17cm × 12cm
가격: 200,000



■ 싸이버 에밀레종
재질: 합금
종류: 청록, 동록, 청동
규격: 좌대높이 30cm
좌대크기 15cm × 15cm
종 5cm × 11cm
가격: 143,000



■ 싸이버 에밀레종
(나무사각)
재질: 합금
종류: 청록, 동록, 청동
규격: 좌대높이 26cm
종 5cm × 11cm
가격: 143,000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 현상공덕향 특별할인가 5,000원 (개당)
불사판촉용 및 보시용으로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하여드립니다.
※ 1~2개 주문시 등기로 구매자부담, 3개이상 구매시 판매자부담

• 판매원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 Tel: 02)732-1522 • Fax:02)737-0697
•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http://mall.buddhapia.co.kr

• 제조원 : 금 성 통 상 (전국대리점 모집)
• Tel: 051)324-3731 • Fax:051)324-3733

마하몰 경품대잔치

• 행사기간 :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1999년 12월 3일자 , 현대불교신문게재
• 응모방법 :
행사중 「현상공덕향」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 「현상공덕향」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경품내용
· 대상 :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매)
· 1등 : 2명 (고승기념메달 8개/세트)
· 2등 : 3명 (고산다기 및 다기함/세트)
· 3등 : 5명 (고산다기/세트)
· 4등 : 10명
(문구암스님 법음, 범패집 각 1질)
· 5등 : 50명 (참선명상방석 각1개)
· 마하몰상 : 200명(법성게걸망 각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구입처 · 서울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02)732-1522, 견지불교사 02)739-3032 · 대구 : 불광불교용품사 053)421-4768, 마하몰 대구지사 053)768-8008, 대구불교방송 사업팀 053)427-1011 · 부산 : 삼장원 051)646-6255, 마하몰 부산지사 051)634-5114, 관음불교 051)808-5655, 대성불교사 051)332-0289 · 광주 : 마하몰 광주지사 062)375-9666 · 대전 : 대전불교사 042)257-0318 · 전주 : 전주불교전시관 0652)282-7054 · 창원 : 경남불교전시관 0651)295-8911 · 진주 : 마하몰 진주지사 0591)747-0106 ※ 전국 유명불교 용품점 및 사찰내 용품점